

# 인제 사람들이 겪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학주·정무교



인제문화원

# 인제사람들이 겪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학주 · 정무교



인제문화원



# 발간사



남덕우 인제문화원 원장

매년 문화원은 여러 가지 책을 발간합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를 담은 책도 있고, 각 마을에서 행한 전통신앙을 담은 책도 있고, 우리가 옛날에 먹은 전통음식을 소재로 만든 책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책자로 발간되면 내 자식처럼 생각되어 애정이 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 책에 좀 더 마음이 갑니다. 아마도 전쟁을 겪은 분이라면 누구나 이 책에 마음이 끌리리라 생각합니다.

누군들 전쟁을 겪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쟁이, 그것도 동족끼리 전쟁이 일어나 우리는 처참한 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와 고통을 우리는 마음 저 밑바닥에 눌러놓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돌아보기 싫고 할 수만 있다면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겪은 우리는 그 체험 그대로를 후세에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주는 교훈을 후세가 배워서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 마음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겪은 체험을 다음 세대에게 정직하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아프고 시리더라도 말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바라는 이분들이 풀어놓은 체험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쟁의 피해자이잖습니까.

구술을 하는 용기를 내신 여섯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이분들에게 작은 위로나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술을 받아 글로 풀어낸 이학주, 정무교 씨의 수고가 있어 좋은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을 기획한 문화관광과 황언중 주사와 발간을 후원한 인제군청은 이 책의 산파產婆입니다.

.....

## 차 례

발간사	3
잃어버린 삶을 찾아/이학주	7
아, 불바다 • 원통리 이상섭 씨 구술 녹취문	11
용대리에서 살아남기 • 용대리 정종범 씨 구술 녹취문	53
동개골의 밤 • 서화리 이정화 씨 구술 녹취문	87
전쟁은 없어야 • 서화리 심병관 씨 구술 녹취문	105
어르신들이 겪어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정무교	123
딱꼭총을 들고 싸웠지 • 상동리 조병수 씨 구술 녹취문	125
면당위원이 뭐라고 • 북면 김인호(가명) 씨 구술 녹취문	168

# 잃어버린 삶을 찾아

이학주



이학주(李學周)

성균관대학교 문학박사  
한국문화스토리텔링연구원 원장

저서: 『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2010),  
『고전문학의 서사세계』(2012) 외 다수

## 잃어버린 삶을 찾아

오늘도 어느 군부대 앞 연병장을 바라보며 슬피 우는 한 여인이 있다. 그 연병장에는 하루 저녁에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랑하던 5명의 가족 뼈가 묻혔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14살 어린 나이에 온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되어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 엄마를 잃은 젓먹이 동생은 어린 언니의 품에서 배가 고파서 숨을 거두었고, 4살 남동생은 피난 길 누이의 가슴에서 병으로 생을 마감했다. 여인은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입버릇으로 달고 다닌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팔십 줄에 들어섰다. 얼마나 많은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지, 누구도 그 여인 앞에 서면 고통스런 삶을 이야기 할 수 없다. 분단과 전쟁이 가져다 준 삶의 고리는 평생을 따라 다녔다.



●담바위에 세워진 위령비.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린 사람들이 총칼을 들고, 집으로 들이친 것은 광복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밤중에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이 끌려가서 죽었다. 이튿날은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몰수당했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단란한 가정은 있을 수 없었다. 한 번 온 불행은 행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평생을 이어갔고, 대물림 되었다.

인제군 서화면에 살고 있는 이정화 씨의 사연이다. 구술을 하는 내내 눈물을 글썽였고, 이제는 허탈한지 헛웃음만 이야기 도중에 지어 보였다. 고통에 대한 해탈일 것이다. 살아서는 고통의 수레바퀴를 벗을 수 없다는 심경에서 나오는 초연함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도 모진 목숨은 어쩔 수 없어 지금껏 살아왔다고 했다.

용대리의 정종범 씨는 아버지 무덤을 철책선 안에 두고 있다. 열일곱 살에 서화면 가전리로 피난을 갔다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열병으로 잃고 산소를 썼다. 이후 휴전선이 그어지고 다시는 그곳으로 갈 수 없었다. 매년 추석에는 그곳에 가서 아버지 산소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망제를 지낸다.

이런 환경은 38선을 긋고 남북이 분단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분단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의 환경이다. 원통리의 이상섭 씨는 어떻게 통일이 되겠냐고 반문을 했다. 중국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호시탐탐 북한을 노리고 있는 한 주권국가로서의 통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분단과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충분히 짐작이 간다.

당시 38선을 기점으로 산 사람들은 짧은 기간에 원자폭탄 같은 엄

청년 경험을 하게 되었다. 비록 어린 시절 경험한 내용일지라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이념에 의해서 가족을 잃고, 전쟁에 의해서 형제를 잃고, 천애의 고아가 되어 삶을 개척해 왔다. 그 때문에 어른이 되어 살아온 삶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는 비극적 인생이라고 한다. 왜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 생사를 넘나드는 삶을 살아야 했던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오로지 살기 위해서 생각하고 움직여야만 했던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온 6.25한국전쟁 전후의 산 증인들을 모두 잃게 된다. 이들의 증언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자산이다. 이들의 증언은 우리의 역사임과 동시에 미래 삶의 터전이다. 이 땅에 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이번 인제군의 구술녹취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참 잘한 일이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몇 년 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던 증인들이 벌써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그것도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었다. 조금 일찍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다. 비록 당시 어렸지만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당시 사실이 쉽게 잊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이 이어져서 인제군의 근현대사를 많이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녹취를 위해 현장에 갔을 때 모두들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셨다. 경로당에서는 노인들이 직접 지은 점심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일어나서 커피를 타 주시기도 하였다. 이

렇게 정성으로 구술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을 전한다. 간혹 녹음은 했으나 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이번 취지에 적당하지 않아서 이 책에 신지 못한 경우도 있다. 열심히 구술을 해주셨는데, 함께 엮지 못해서 많이 미안하다.

아울러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비용을 책정해 준 인제군 이순선 군수님과 문화예술과 황언중 담당자와 함께 제작에 힘 써준 인제문화원 남덕우 원장님과 백창현 국장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녹취를 하고 풀면서 멋진 책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정무교 선생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필자의 녹취를 애벌 풀기를 해 준 강원대 스토리텔링학과 이하늘 학생도 고생이 많았다.

이 책은 구술을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의 것이다. 또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준 인제군의 것이다.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복이 있기를 기원한다.

2012년 동짓달

춘천 무편서실에서 문래산인(文來山人) 이학주 쓰다.

## 아, 불바다



- 구술자: 이상섭
- 구술자 나이: 78세(1935년생)
- 면담자: 이학주
- 면담주제: 6.25 한국전쟁 전후의 원통리와 구술자의 삶.
- 면담일자: 2012년 11월 15일
- 면담장소: 북면 원통리 이상섭 씨 자택

## 〈면담 상황〉

6. 25한국전쟁 전후 원통리의 상황을 이야기해 줄 사람으로 원통리의 이상섭 씨를 인터뷰 하게 된 것은 이 지역 구술자들 중 가장 사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이다.

이상섭 씨를 만나기 위해 2012년 11월 6일에 전화를 걸어서 시간을 정했다. 만나기로 한 전날 전화를 해서 다시 약속을 하고, 11월 15일 아침 10시에 자택에서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의 자택에서 만나 2시간여를 이야기하고, 집을 나와 점심을 먹으면서 계속 인터뷰를 이어갔다.

구술자 이상섭 씨는 기억력이 상당히 좋았으며, 세세한 일까지 당시 본 사건을 막힘없이 구술했다. 따라서 6. 25한국전쟁 전후의 원통리를 중심으로 한 민간인의 삶과 전쟁으로 인해 빚어진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당시 인제인의 삶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인후통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인이 정확히 발음을 하려고 애썼고, 힘이 부치는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술을 하였다.

- 오늘은 11월 15일 이곳은 원통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섭입니다.

- 네, 이자 상자 섭자고요.

네

- 언제 태어나셨어요?

원래 제가 원래 35년생인데.

- 아 35년생이요.

호적엔 38년생으로 올렸어요.

- 아, 그러셨어요. 35년생이시고요. 그럼 올해 연세가 정확히?

지금 여덟이죠, 78.

- 아 78세고요?

- 옛날부터 여기 사셨어요?

제가 원래 고향이 부모님 고향이 흥천이에요.

- 아, 흥천이셨어요.

일본시대 때 여기 터를 잡았어요.

- 아.

그래서 8.15해방도 여기서 겪었고 6.25도 여기서 겪었고요.

- 아 그랬어요?

그래서 8.15해방되고. 일본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sup>1)</sup> 매 맞는 것도 봤고. 또 6.25. 5월 말경이나 6월 초쯤에 인민군 군복에 철모 안 쓰고 순경 모자 같은 걸 쓰고 한 삼일인가. 그때 당시엔 차가 없으니까요. 늪 길로 걸어가서 그냥 삼일정도 나간 거 같아요.<sup>2)</sup>

- 아.

엄청 많이 나갔죠. 그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쪽 나갔으니까.

- 그럼 일제시대<sup>3)</sup> 때 생각나는 걸 얘기해 주실래요?

일제시대 때는 크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저희가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 앞으로 보급대<sup>4)</sup> 영장이 나왔는데 그 때 당시에 제가 돼지를 한 마리 키운 게 있었어요. 돼지를 잡아다주고 우리 형님 보급대 영장을 안 가게 빼고 집에서 같이 지내다가 인민군으로 갔죠. 형님은 인민군 가시고 6.25나면서 저는 여기서 피난가라고 막 그러는데 저희는 피난 간다고 가가지고 산 저기에 가서 11월인가요? 11월쯤 왔는데 산 쪽에 가서 겨울을 나고 전쟁을 거기서 골짜기에서 겪었죠.

- 거기 어디예요?

풍전동<sup>5)</sup>이라고.

---

1) 일제앞잡이를 일컫는 말이다.

2) 이 상황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이 됐을 때, 일인과 일제앞잡이가 한국을 떠나는 광경을 구술하고 있는 것이다.

3) 일제시대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면 잘 알아듣지 못해서 택한 단어이다.

4) 여기서는 일제강점기 때의 보급대를 말한다. 이 당시 일본군은 우리의 젊은 청년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군의 물자를 나르고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요원으로 보급대라하여 무작위로 차출하여 끌고 갔다.

5) 풍전동(楓田洞)은 월학의 송학동(松鶴洞)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땅이 비옥하여 농사가 잘된다.

- 풍전동이요?

풍전동이라고. 여기서 월학리 쪽으로 가다가 풍전동이라고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골짜기에서 난리를 겪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하도 폭격을 하니까 불도 못 피우고 나무도 바짝 말린 거 가져다 태고 밥해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봄에 아주 봄은 아니고, 인제 부식은 더덕 캐서 장(醬)하고 해서 이렇게 먹고 살고, 또 피난 갈 때 일할 게 없으니까 산으로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소재골하고 풍전동하고 등재 하나 사이인데 그걸 넘어서 가니까 뒤돌 사이에다가 좁쌀을 묻어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파다먹고 이려고. 하루저녁에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하고 포가 밤새도록 떨어지는데, 굴에 있으니까 돌이 막 내려구르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밥해떡던데 돌이 막 내려앉고 그래요. 이렇게 그날 말고 그 이튿날 보니까, 저 앞산에 원래 인민군은 낮에 안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인민군<sup>6)</sup>이 없는데 낮에 보니까 저 앞산에 군인이 왔다 갔다 해요. 그때 당시에 아 인제 아마 아군이 들어온 거라고. 그래가지고 뒷산에 올라가보니까, 그 지금 인제 시레종이라고 알지, 그 미군들이 먹던 시레종<sup>7)</sup>이라고 있어요. 시레종 전쟁 때 먹는 음식. 시레종 깡통이 막 있고 그래요. 그래 이걸 한국군에서, 인민군에선 못 보던 물건이니까요. 이제 탄 사람들이 왔구나 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나왔죠. 나왔는데 그때가 한 날씨가 따셨어요. 겨울에 들어가서 봄에 나오니까. 신작로 나오니까 그 다음엔 검둥이들이<sup>8)</sup> 보초를 서는데.

- 검둥이들이요?

네, 네. 그때 차가 얼마나 다니는지 신작로<sup>9)</sup>에 먼지가 뽀얗게 발목이 빠질 정

6) 인민군은 북한 군인을 일컫는 용어이다.

7) 시레종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이 전투식량으로 먹던 통조림의 일종인 듯 하다.

8) 흑인병사를 일컫는 말이다. 지금은 검둥이라고 쓰지 않으나 당시는 흑인을 비하해서 그렇게 썼다.

9) 신작로(新作路)는 새로 닦은 길이라는 뜻인데, 일제강점기 때 도로를 새로 닦으면서 명명한 것이다. 나중에는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넓은 도로, 곧 큰 길을 통칭하여 그렇게 불렀다.

도로 그렇게 해서 인제 나오니까. 한국군들하고 와서 한국군이 어디 가자고. 그래 런제 조사 받으러 젊은 사람들은 조사를 받고 노인들이랑 애들은 조사 안 받고. 그때 당시 시내는 집이 싹 탔고 저 산골에 집이 드문드문 있었는데, 가자 그래가지고. 움푹 파인데 집이 서너 개 있었어요. 그래 거기때에 갖다가 그 군인들이 여기서 오늘 저녁 거기서 지내라고, 그래가지고 하룻저녁에 지내는데, 아 글썽 미군들이 밤에 그냥 후래쉬<sup>10)</sup>들고 와서 여자 내놓으라고. 홀레 볶고선. 그렇게 있다 보니 군대가 왔더라고요. 군인들이 그래서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그림 가자고. 저기 강 건너 외딴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며칠을 있었는지 몰라요. 거기 가서 며칠을 묵었는데 하루는 군인들이 또 오더니만 오늘 저녁때는 원주로 피난 모집 장소로 가야하니까 오늘 저녁때는 나오라고 가자고 보따리 싸라고. 그래 보따리 싸가지고 따라 나서니까 군인 트럭이 한 대 와있어요. 저 신작로에. 그래 인제 군인 트럭을 타고 밤에 저녁때, 밤에 원주 나가서 내렸지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 수복될 때까지 거기서 피난 생활하다가 여기 수복될 때 왔죠.<sup>11)</sup>

- 그럼 미군들이 여자를 계속 내놓으라고 했어요?

네.

- 왜 그래요?

아휴, 뻘하지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구석에 가서 있고 남자들만 문턱에 있다가 그 이튿날 탄 데로 갔죠.

- 인민군들은 여자를 내놓으라고 안 그랬어요?

인민군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 인민군들은 여자 그런, 여자들이랑 같이 다녀도 여자군인들이 많았거든요.

- 아~ 여군이 많아서.

10) 후래쉬는 건전지를 넣어서 불을 밝히는 손전등의 이칭이다. 7자로 굵은 국방색의 후래쉬를 사용했다.

11) 인제사람들은 한국전쟁 때 북한의 인민군이 점령해 있을 당시에는 서화면 가전리 부근으로 피난을 갔고, 국군이 점령했을 때는 원주의 피난민 수용소에서 피난을 많이 했다.



같이 다녀도 그런 소문은 없었던 거 같아요. 인제 미군들은 그렇게 와서 훌레 북고 그리고 갔어요.

- 그러면 저기 그 전에도, 인민군시절 있잖아요. 해방되고 나서 인민군 시절 그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일본시대 때 학교를 안다녔어요. 8.15해방 되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북한에는 6학년이 없고 1학년이 2,4,5학년 밖에 없어요. 근데 2년 동안은 태극기 쓰고 동해물과 부르구요. 그런데 어느 날 2년 지나서 여름인데 1,2,3학년은 다 보내고 아침, 점심때까지 공부하고, 다 보내고, 4,5학년만 남으라고 그래서 4학년 5학년 남았는데, 저기 앞에다가 인민군기있죠? 인민군 깃발을 하나 꼽아놓고 4,5학년 학생들을 줄맞춰 앉혀놓고 인민군기 그걸 그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그렸죠. 학생들이. 그리고 그해 8월달서부터 태극기 다 태워라. 또 동해물과 못 부른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인민군 국가인 애국가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인민군 깃발이고, 태극기는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한 70, 8,90 되는 사람들은 태극기 그리는 건 다 알고, 처음에 저도 학교 들어가서 태극기는 다 그렸으니까. 지금도 공부 안 했지만 태극기 그리라면 콤파스만 하나 있으면 다 그려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인민군기를 쓰면서 아침에 조회할 때 우리 애국가인 동해물과 안 부르고, 그 북한의 그 아침에 애국가를 부르고.

- 그건 제목이 뭐였어요. 그것도 애국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애국가인데. 그 시작이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그런 식으로 쪽 나갔는데.

-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네. 그런데 이제 그거 다 잊어먹고. 그래가지고 그. 인민군 인제 그때 당시에 뭐 인민군이 어디 나왔다 어디 나왔다. 6.25 새벽에 4시쯤 났거든요? 날이 흰해질 때.

- 6.25나기 전에 인민군들 학교를 다녔잖아요, 학교 얘기를 조금 더해주세요.

학교 다닐 때. 그 여름에. 그 앞에 군인들 많이 나갔다 그랬죠. 군인들이 그렇

게 며칠을 나간 뒤로, 그 다음에는 세 바퀴 오토바이, 인민군 나간사람들은 총도 안 메고 세 바퀴 오토바이가 한 이삼일 나갔어요. 엄청 많이 나갔는데 계속 나가더니만 그 사람들은 오토바이 하나에 셋씩 탔는데, 두 사람은 따발총 메고 앞에 운전수는 그냥 운전하고. 그렇게 며칠 나가더니 하루는 오토바이가 나오더니 천도리 쪽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더니 어디로 갔나 했더니, 거 칠성고개<sup>12)</sup> 넘어서 거 넘어가면 버덩이 있는데 거기 잠복해 있다가 바로 6.25나기 전날 저녁에 전부 나갔어요.

- 인민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돼있었죠?

그렇죠. 인민위원회. 그때 당시에 인민위원회, 여성동맹, 청년동맹<sup>13)</sup> 이레가지고 저녁마다 회의고. 뭐 여성동맹 지휘한다, 청년동맹 위한다, 그래가지고 만날 회의했죠 뭐.

-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 8.15해방되고 지주들한테 땅 다 뺏어가지고, 그 집에서 일꾼하던 사람들 또 그 집에서 품 팔던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줬죠. 300평 이상 몇 평 이렇게 나눠줘서 이거는 네 거다 너 가져라. 이렇게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이 좀 좋아해요. 남의 일꾼을 하다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부를 누구 시켰냐면 일꾼 살던 사람들 또 품 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깨에다 빨간 완장 해줘가지고 빨간 완장 그래가지고 무슨 그 글씨 쓴 건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젊고 위에서 지시를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내 여기 막 돌아다니면서 정찰하면 그 사람들이 다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하지는 대로 하면서 따라다녔죠. 그렇게 계속 지나가다 6.25가 나면서.

- 지주들이 많았어요, 여기요?

12) 칠성고개는 원래 새골인데 그곳에서 한국군 장성의 별이 일곱 개가 떨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월하리 동쪽에 있다. 본문 중에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13) 인민위원회, 여성동맹, 청년동맹, 세포조직, 소년단, 내무서 등은 북한의 통치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한 북한 하부의 단체였다. 이곳에서 치안을 비롯한 행정 및 조직원들의 감시활동 등을 수행했다.

지주들이 많았죠, 지주들이 많았는데 원래 부자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8.15해방 딱 되면서 전부 인제 남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인제 거기서 좀 애매한 사람들이. 나 먹고 나머지만큼 있는 사람들.<sup>14)</sup> 이 사람들은 미처 못 나갔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땅을 뺏고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땅 좀 있고 부자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다 쫓겨나갔죠. 그것도 2차 몰수 때는 뭐 공식으로 와서 ‘당신 땅 많으니까 나가쇼.’ 이게 아니고, 그 빨긴 완장 찬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 개동무 좀 봅시다.”라고 해가지고 나가면, 그 자리에서 막 작대기로 내쫓는 거예요. 보따리도 못 싸고 나간, 그 집이 몇 집 돼요.

-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다 갔어요?

갈 데가 없었으니까 남쪽으로 다 갔죠. 우리가 피난 나가보니까 그 지주들이 남쪽에 다 있더라고.

- 1차 모집 때는 부자들만 내쫓고, 2차 모집 때는 땅 가진 사람 다 내쫓은 거예요?

네. 웬만한 사람들은 먹고 남을 만한 사람들은 다.

- 다 빼었어요? 조금도 안 남겨주고요?

그냥 다 내쫓았어요. 좀 아는 사람들은 이불보따리라도 싸서 나갔고, 아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그냥 맨 몸뚱이로 손가락 하나도 못가지고 나갔죠. 그렇게 전부했죠.

- 그렇게 토지를 다 빼어버렸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일꾼, 품팔이 나눠주고 처음에는 삼칠제로 삼은 정부에서 받아가고 칠은 그 분배 해준 사람들 차지가 되고.

- 3차 때는요?

아니, 삼칠제. 그 옛날에는 지주들이 도지주고 삼칠제 받잖아요.

- 아 삼칠제 예.

삼칠제인데. 칠은 부친사람이 갖고 첫해는 삼 정도는 나라에서 받아가고. 그 이듬해에는 반 정도는 정부에서 받아가고 반 정도는 인제 땅 부친 사람 주고.

---

14) 토지를 적게 가진 지주를 말한다.

-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한 7은 나라에서 가져가고 한 3은 부친사람 가져가고. 그다음에는 인제 땅을 전부 공출해가지고 협동농장<sup>15)</sup>, 그러니까 협동농장에서 지으니 까 그 일은 실컷 해도 가을에 타작하고 나면 정부에서 다 가져가니까. 그렇게 하고 인제 배급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배급타먹고 그러는 사람들이 나가서 일 하는 게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서 북한의 땅 양식모자라는 게 그러는 거 같아요. 공동으로 하니까.

- 그 다음에 공동으로 계속 진행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공동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 노동당<sup>16)</sup> 조직은 어떻게 됐어요?

노동당 조직은 내용은 잘 몰라요. 내용은 잘 모르고 그 시빨건 완장 차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 노동당 당원들인데, 그렇게 하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그때 북한에서는 그 일본시대 때 일본 사람 앞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 두드려 내쫓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도 정부에서 채용 안했어요. 전부 그냥 서민들 그런 사람들만 전부 채용해가지고 일을 했죠.

- 일제 청산을 참 잘했네요?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일제청산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놈들 저 만주 같은데 가있던 사람들 차가 없으니까 다 걸어서 가잖아요. 그 사람들 고생 많이 했죠. 잘 지내다가 먹지도 못하고 걸어서 나가니.

- 걸어서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가요?

그렇죠. 걸어 나와 가지고. 산 사람들은 일본으로 넘어 갔겠고, 죽은 사람도 더러 있겠고. 형편없었어요, 그 사람들. 거기 가는 것도. 자기네가 우리들한테

---

15) 협동농장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던 농사방식이다. 이는 공동으로 생산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만큼 공출을 하고 나머지는 함께 나눠 갖는 농사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처음 시도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부모다는 가난을 낳는 제도가 되었다. 남보다 잘살고 싶은 인간의 기본욕구를 무시한 제도였기 때문이다.

16)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 10일에 결성된 북한의 최고 통치 및 의결기관이다. 이에 대해서는 백과사전을 참조하면 된다.

-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그렇게 팔시 받은 거죠.
- 그렇게 청산을 다 했네요. 일제 청산하던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됐어요?  
어떤 식인지는 모르나 그때 당시 일본정치에 좀 말하자면 일본 정치에 협조한 사람들은 그냥 인제. 서민들만 썼으니까.
-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야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뭐 때 맞은 사람들도 많고, 도망가서 남 쪽으로 쫓겨난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대피를 했죠.
- 죽은 사람도 있겠네요?  
더러 있을 거예요. 제가 거 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빈짓마지(?)라고 거기 좀 더 들어가 살았는데. 거기 좀 높아요. 우리 사는 동네가. 그런데 “저 놈 잡아라.”하고 작대기를 들고 쫓아가면 뭐 죽어라하고 냅뒀으면서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고향에 못 오는 것이지요.
- 해방되자마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해방되자마자. 그래서 북한은 일본정치 때 의지하던 사람들 그 정리는 참 잘됐었어요.
- 해방되고 난 뒤 분위기 어땠어요?  
해방되고 나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는. 뭐 학교도 막 갔다 털어가는 사람이 있고.
- 학교를 털어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쓸 만한 물건 같은 것 막 가져가고. 교장도. 교장은 일본사람이었는데 뭐 가 보니까 제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교장네 집도 말짱 옷가지가 널브러져있고 참 가지고 갔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집이 비었더라고요.
- 그리고 나서 인민군이 와가지고 38선이 막혀가지고, 그죠?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인민군은 별로 인민군은 인제 드문드문 보고 6.25때 많이 봤으니까 그랬는데, 그 8.15해방 됐을 때요.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 러시아 말마차. 그때 당시에는 차가 별로 없고 말마차로만 나왔어요. 그 말마차 4마리가 끄는 말마차도 있고, 2마리가 끄는 것도 있

고, 그래 여기 38선에 나가 있었고 그랬는데. 6.25나기 얼마 전에 러시아사람들이 옛날에 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 소련사람들이 철수 한다고 원통 시내 와서 그 환영. 그러니까 철수 환영 뭐, 지금 말하면 파티가 그런 거겠지요 뭐. 시내서 춤추고 놀고 그런 거 봤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러시아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요. 싹 들어갔어요.

- 철수 했어요?

네. 그리고 얼마 있다가 6.25 났죠.

- 그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세포조직?

세포조직 예예. 그러니까 공산당있고 뭐 자유당 이런 거 조금 있긴 했는데 그런 거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공산당. 그러니 세포가 공산당이죠 뭐. 그 사람들이 전부 인제 정치를 운영하니까요.

- 아 세포조직이. 내무서는 뭐였어요?

내무서는 여기 지금 지서와 같은 거지요.

- 경찰서 같은 거?

네, 네. 경찰이요.

- 개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 그때 당시에 몇 사람 못 본 거 같아요. 그 그때 당시에 일본 있을 때는 규제서<sup>17)</sup>라 해가지고 조그맣게 우리 학교 앞에 있었고, 8.15해방 되고는 인제 그 뭐라 그랬나. 경찰. 순경 그니까 인민군. 그것도 다 잊어버렸네. 그 순경 몇 사람 안됐어요. 몇 사람 못보고. 인제 군인은 한 일개 소대인지 중대인지 하여튼 있었어요. 일개 중대. 여기 시내 어디 부근에서 있다가 초등학교 저위에 있었는데 거기서 훈련하는 것도 보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 여름에 6.25 날 때 인민군들 많이 봤고요.

- 인민군 시절에도 농민동맹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건 뭐하는 거였어요?

농사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지금 농협처럼 그런 식으로 농사하는 농민동맹.

---

17) 규제서는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경찰서 같은 기관으로 추정된다.

- 민청<sup>18)</sup>은 뭐였어요?

민청은 청년동맹이라 했던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여성동맹. 젊은 사람들은 전부 청년동맹 들어갔고 젊은 여자들은 여성동맹에 전부 들어갔고.

- 직업동맹도 있었다면서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 소비자조합<sup>19)</sup>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소비자조합 있었어요.

- 그건 물건 팔고 그런 거예요?

예, 물건 팔고 그때 당시에 북한에 연료라는 것은 기름하고 가스, 가스 덩어리 이런 걸 간드레<sup>20)</sup>라고 있어요. 거기에 물 넣어서 피우면 불붙는 거 그걸 많이 팔았어요. 그걸 큰 드럼에다 갖다놓고 팔고 그랬어요.

- 소년단<sup>21)</sup> 그런 것도 있었다면서요? 가입하셨어요?

네. 소년단 3학년부터 가입을 하는데 제가 미술을 원래 못해요. 그런데 그 소년단에 입학하려면 소년단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지금 상장을 주는 식으로 꼭대기 이렇게 봉황그림 있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그 안에다가 소년 서약서를 써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래 소년 서약서를 못 냈어요. 그래서 소년단에 못 들었죠.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으니까. 4학년 때인가 어느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네가 소년단에 들어가라. 그 서약서 없이도 소년단 할 수 있으니 소년단 들어가라.” 선생님이 그러시는 바람에 소년단

---

18) 민청은 대한청년단으로 38이북의 북한 통치에서는 없었던 기구였다. 남한에서는 1949년 12월 19일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해 있던 각 청년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해 결성한 우익단체이다. 1953년 9월 10일에 해체되었다. 그 때문에 구술자가 알지 못하고 있다.

19) 소비자조합은 북한통치체제에서 백성들의 소비생활을 위해 열었던 일종의 가게였다.

20) 간드레(Candle)는 광산에서 카바이트를 연료로 쓰던 갱 안에서 불을 밝히고 다니던 일종의 외출용 등이다. 카바이트에 물을 넣으면 가스가 나와 그 가스로 불을 밝혔다. 1980년대 초까지 가정에서도 많이 이용했다. 화력이 좋고 불이 밝아서 인기가 좋았다.

21) 소년단은 북한에 있었던 어린이 단체이다. 북한의 통치체제와 공산주의를 주입하기 위해서만 들어졌다.

에 들어갔죠. 소년단에 들어가면 이제 소년단이 참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분대 분단. 조그마한 분대에는 몇 사람씩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분단은 일개 학급, 그다음에는 더 올라가서 5학년 때까지 전부를 합해서 부르는 명칭이 있었는데 그거 잊어먹었네요.

- 소년단에서 뭘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분단회의를 해요. 몇이 모여가지고 분단회의를 하고 분단회의를 할 때는 참 비판이 있고 자아비판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자아비판을 안 할 경우에는 오늘 동무가 잘못을 했는데 아무개 동무는 뭘뭘을 잘못했는데 왜 자아비판을 안 하나. 그래가지고 그 분단에서 벌을 받고 그다음엔 분단회의를 이제 학급분단회의 있는데 그 분단회의 한 날은 거 나가서 토론하고 자아비판하고 그러는데. 그 자아비판 안한 사람들은 동료가 그걸 하잖아요. 비판 하면 나가서 해명을 하고 내가 뭘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달라. 그렇게 자아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고. 뭐 학급에서 이 사람들 몇이니까 벌을 뭐 주자. 거기서 합의가 되면 그 벌을 받아요.

- 어떤 벌을 받아요?

제가 4학년 때 한 번 벌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의자가 조그마했어요. 의자를 이렇게 들고 몇 분 동안 있었어요. 의자를 들고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는 뭐 그런 짓을 안 하니까. 이걸 그것도 어떻게 해서 그걸 받았나하니, 북한에서 지금도 여기도 한 달에 장이 5일장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여기 시내 5일장이 있었어요. 5일장에 가서 구경하다가 동료하고 같이 가서 머루치를. 여기서는 지금은 봉다리예다 이렇게 팔아. 멸치를 이렇게 넣어서 팔아. 북한에는 그때는 큰 맷방석<sup>22)</sup>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고는 뒷박으로 팔았어요. 그거 하나 집어먹으면서 “야 이게 맛있द्या 너도 좀 먹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더니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비판을 했어요. 자아비판을 했어요.

22) 맷방석은 매통이나 맷돌 밑에 끼는 짚으로 만든, 전이 있는 둥근 방석이다.



- 멸치 집어먹었다고?

네 그랬어요.

- 소년단에 구호도 있었다면서요?

소년단 구호는 지금도 티비에 가끔 나오던데 손들고 “준비하자.” 머리 이마 앞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 뭘 준비해요?

그게 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준비하자’ 뭐 이런 식으로.

- 만날 때마다 그런 거예요?

인제 뭐 나가서 회의할 때 토론할 때 앉을 때 자아비판 한다거나 그럴 때 인제 ‘준비하자’ 이라고 그런 식으로.

- 소년단 말고 가입한 건 없어요?

예, 없어요.

- 나이가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체제 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 없어요?

특별히 따로 기억에 남는 건 아까 지주들.

- 지주들 내쫓는 거?

네 그런 거. 특별히 기억나는 게.

- 1차 2차 이런 거.

네, 네.

- 전쟁이 날려고 할 때요, 전쟁나기 전에 특별한 징후 같은 게 있었나요?

특별한 징후라는 게. 글썄 아까 얘기했지만. 러시아인들이 8.15해방 되고 나왔다가 6.25나기 전 봄에 싹 철수했죠. 봄에.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하나도 없고 인민군만 그 5월 말 6월 초에 계속 나갔죠. 총도 안 메고 계속 나갔어요.

- 어디로 나가요?

38선이 저쪽이니까. 그렇게 계속 며칠 나가더니 그 다음에 오토바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는 뭘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탱크요.

- 네, 탱크요.

탱크 7대가 쭉 오는데 저기서 쉬어갔어요. 초등학교가 지금 학교 여기 있는

데 그 시내에서 한참 쉬었다 가더라고요. 그때 나가서 탱크 처음 봤으니까.

- 어땠어요?

그때 처음 보니까, 뭐 지금 우리 탱크처럼 그런 식인데, 그 처음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경만하고 떠날 때까지 구경을 했죠. 그거 나간 뒤로 조용했죠. 아무런 인적도 없고 조용하고 우리네는 농사꾼들은 농사하느라고 바쁘고. 그런데 6.25나기 새벽에 여기서 총, 포 소리가 들렸어요. 한 30분 아주 큰 포 소리가 들리더니 그 다음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 이튿날부터 그때부터 인민군이 어디 나갔다 어디 나갔다 소문이 뭐. 그러니까 지금처럼 매개체가 없으니까 소문으로만. 밀고 내려갔다. 서울로 갔다 어디로 갔다. 이렇게 소문이 자꾸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긴 총소리도 안 들리고 하니까. 우리 지역은 조용하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수군 그랬지 뭐. 얘기하느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 정치를 싫어해도 그런 내색을 못하잖아요. 싫어도 내색을 못하고 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팔월 달쯤 됐는데 인민군 부상병들이 하나들 들어와요. 그러니 왜 전쟁 안 하고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아 우리는 남조선<sup>23)</sup>해방 다 시키고 부대 가느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있다니까, 며칠 더 있다 보니까, 그 군인들도 들어오고. 그때 그 의용군<sup>24)</sup>이라고 있죠? 의용군. 의용군들도 들어오는데 여자들이 많았어요. 의용군에. 그때 당시 우린 그 짧은 치마 입고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지금 미니스커트라 그러잖아요. 그런 짧은 치마입고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여긴 그런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 의용군이 뭐예요?

의용군이 그 남한에서 인민군이 나간 뒤로 인민군 따라 다니면서 뭐 부역을 했거나 인민군한테 협조한 사람들은 아군이 들어오면 거기서 못살잖아요. 그

23) 남조선은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일컫는 용어이다.

24) 의용군은 국어사전에 ‘국가나 사회의 위급 상황에서 민간인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되는 군대’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북한에서 군대 가기 전 일정나이가 되면 선발하는 군인을 그렇게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주 옆에 구술자의 제보로 기록돼 있다.

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인제 그때 당시에 한 집에 몇씩 배당을 해요. 거기 지서가 분지소잖아요. 거기서 다니면서 동네에다 한 집에 몇 사람씩 채워달라고, 의용군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고는 뭘 주냐면 통밀, 갈지 않은 밀을 한 사람 앞에 요만큼씩 줘요. 이걸 삶아 먹이라고. 그렇게 해서 인제 그래 며칠 있다니까, 그 다음에 뭐 참 들어오더니. 그 후퇴한다는 그런 기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8월 달 되니까. 뭐 음력 8월 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난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피난 목적지가 가전리라고. 천도리 지나서 그 안에 있는데. 거기가 목적지인데. 저희는 그리로 안가고 저 갈골이란 댕 갔어요. 합강<sup>25)</sup> 건너.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제 우리 식구는 거기가 있고, 아버님은 집을 지켜야 되니까. 아버님은 집에 계셨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반장, 반장이 “이 동무는 왜 피난 안 가냐.”고. 그 인제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한 번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인제 나와서 피난을 간다고 갔어요.

-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원래목적지가 서화면 가전리인데 거기 가전리로 안 가고. 가다가 조그마한 골짜기로 들어가 피난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음식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길가에다가 뭐 소금 같은 거 쏟아놓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싸가지고 가고.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산골짜기로 가서 피란을 했는데, 거기서 뭐 겨울이어서 더덕을 캐먹었어요. 거 싹보고 캐면 잘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인제 아까 얘기했지만 큰 대포가 떨어지고 비행기가 조명탄 떨어뜨리고.

- 미군폭격기죠?

그렇죠. 미군이겠죠. 조명탄 떨어지면 개미 가는 것도 다보여요. 하얀 게. 그렇게 폭격하고. 이쪽에는 저 위에서 그 앞산에 인민군이 왔다 갔다 해서. 아 인

25) 합강은 인제의 내린천과 인북천이 합해서 강을 이루는 곳이다. 이곳엔 미륵의 이야기가 있고, 강원도 수령들이 모여서 기우제를 지내던 강원도 정중앙이 있는 곳이다. 지금은 목상이 건져 올렸다는 미륵이 코를 잃고 서 있으며, 정중앙의 표식을 비롯해서 휴게소까지 자리하고 있다.

제 그 군인이 온 거라고. 인민군은 낮에 꿈쩍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서 시레종 깎지 같은 거 먹다가 버린 거 그거 보고, 아 이제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왔죠. 피난터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나와서 그 군인들한테 인제 조사 받을 사람 받고. 미군들은 그래 이쪽으로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니 신작로 앞에 있으니 나가라고. 그래 인제 한국군들이 와서 조사 받을 사람은 더 받고 인제 그래 가지고, 그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 지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내다가 밤에 거기 미군들이 와서 여자 내놓으라고. 그래 가지고 그 이튿날 다른 데로 보내줘서 저기 늪둔지라는 데 가있다가, 원주로 피난 간 거지요.

-여자들 미군들한테 피해본 사람들 많죠?

저희식구는 없었어요. 남자들이 문턱에 쭉 앉았고 여자들만 저 뒤에다 숨겼지요. 그런데 그때 피해본 사람 많대요.

-칠성고개라고 있어요?

예, 칠성고개는 원래는 칠성고개가 아니고, 새골고개라 그랬어요. 예, 새골고개였는데, 왜 새골고개라 그러면 등지모양으로 된 등지마을이에요. 새둥지. 새둥지자를 글자를 써서. 등지. 새둥지. 그 고개가 새골고개. 새둥지 해가지고 새골고개라 그랬는데. 6.25나고 들어와서 피난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칠성고개라 그랬더라고요. 그래 내가 왜 칠성고개나 그랬더니, 그 능선에서 별이 일곱 개가 떨어졌대요. 별 하나 단 사람도 그곳에서 전사했을 테고, 둘 단 사람도 전사했을 테고. 거기에서 별이 일곱 개가 떨어졌대요.

-어느 별이요?

한국군별이요. 그렇게 해서 그곳이 칠성고개가 됐대요. 그래서 지금은 칠성고개죠. 원래는 거기가 새골고개인데 지금은 칠성고개가 된 거죠.

-그러면 거기 군인들이 들어왔잖아요. 군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한국군이 들어와서 우린 바로 피난 나가가지고, 여기 안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그 다음 원주 가서 원주 향교골 가서 피난 수용소 있는데, 거기 가서

조그마하게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우리 셋이서 어머니 제 동생 나 이렇게 셋이서. 셋이서 방을 만들고 거기서 며칠 있다가 미군부대서 사람을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미군부대를 갔어요. 미군 공병대를 가니까 공병대에 거기서 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서 여자들 때문에 못 건넌다 하니까, 군인이 오더니 젊은이들. 그래 우리 형수님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뭐 조사할게 있으니까 가자고, 그래가지고 먼저 제가 나왔어요. 피난은 잘 했는데 여기 나와서 그렇게 해서 갈라졌지요. 아버님하고. 우리는 원주로 갔고 아버님하고 형수님은 이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지 어쨌는지. 홍천에 휴양소가 또 있었어요. 그래 거길 갔는데 우리 친척이 홍천에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그래 거기서 피난 갔다가 휴양소에 놓고, 마음대로 해라. 그래 아버님은 친척집에 가셨어요. 그래 헤어졌고.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 원주로 갔고. 그리고 인제 공병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와서 불러요. 그 신작로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 보니까 동생하고 어떤 양반이 서있어요. 그래 보니까 제 아버님의 고모님의 아들이래요. 저한테는 왕고모 육촌형님이죠. 그분이 “내가 홍천에 있는데, 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계시니까 여기서 고생하는 거 보단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먼저 저하고 동생하고 그 형님을 따라서 원주에서 횡성을 거쳐서 홍천으로 들어왔어요. 홍천 와서 몇 달 있었는데, 그 형님이 또 어머니를 모시러 간다고 그래 나가더니 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러니 왕고모 5촌 아저씨뻘 되는 분이 방 하나를 얻어줘서 그 방에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하다가 여기 수복될 때 그때가 겨울인데 1월 달인가 됐어요. 수복이 됐는데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 인제 우리 따로 떨어져있으니까, 그 원주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하고 같이 못 들어오고 신청만 해놓으니까, 일종의 그 차 군인 제무시<sup>26)</sup>를 하나 내주면서 이걸 가져가서 네 식구들 데려가라. 그렇게 해서 수복될 때 여기를 들어왔죠.

26) 제무시는 M35트럭인데 차 뒤에 영어로 GMC라고 쓰여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따라서 제무시라고 불렀다. 앞의 엔진 부위가 나왔고, 4륜으로 힘이 무척 좋았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길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 들어오니까 어때요?

들어오니까 집이 싹 타고 아주 허허벌판이죠 뭐. 허허벌판인데 천막을 하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자라고. 인제 뭐 1차로 들어온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거 군인들이 인제 재목을 가져다주고 이래가지고, 우린 2차로 들어왔으니까 집도 못 짓고 천막에 있다가 인제 집을 조그마하게 지었어요. 조그맣게 짓고 인제 거기에 살다가 지금까지 사는 거죠 뭐.

- 여기 이 터예요?

아니, 이 터가 아니고 제가 이사를 4번이나 했어요. 처음에는 집이 조그마해서 조금 큰 집을 사서 갔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남의 땅에다 집을 지었었는데 토지 주인이 땅을 지금 말하면 브로커들한테 넘겨다 쥐가지고 싹 분할을 해 가지고 며칠까지 땅 값을 안내면 나가라 남의 땅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남의 이사 돈을 얻어가지고 땅값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쓴 것을 갚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그 집이 좀 크니까. 그러니까 팔았어요. 팔고 또 조그마한 집을. 그걸 갖고 나니까 조그마한 집 살 돈이 남아서 조그마한 집을 사서 왔는데. 그 원통 시내 마을 정리하면서 도로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또 탄 데 갔다가, 탄 데 거 방죽골이라는 데 갔는데 거기메 또 길이 또 난데요. 그래서 또 보상받고 그래가지고 이집으로 왔지요. 거기 체육공원이 있었어요. 방죽골이라는 데. 그래가지고 길이 나서 여기로 왔지요. 여기 온지는 한 6년 되나요?

- 여기 수복되고 나서 1.4후퇴 또 있었잖아요.

1.4후퇴는 수복되기 전이지요.

- 그땐 어땀어요?

1.4후퇴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피난 안 갔지요. 그래 여기 있다가 1.4후퇴 때 전부 피난 갔지요.

- 그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한국군이 이 남한에서 여기로 쳐들어 온 게 아니고, 속초에서, 지금 생각하면 일개 중대나 뭐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차 몇 대하고 포 몇 개하고 속초에서 여기로 왔어요. 그렇게 넘어오면서 여기 시내에 있는 그때

는 인민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포를 막 쏘면서 군대는 짝 도망갔죠.

- 속초 쪽에서 여기 미시령 쪽으로 넘어서?  
 그때 미시령이 없었어요. 진부령 넘어서.

- 진부령 넘어 왔었고, 인민군들 막 쳐들어오고.

네, 네 쪽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그러고 며칠 있더니 한국군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치안대<sup>27)</sup>라고 조직을 했는데, 젊은이들 있는 사람들은 대개 거길 들어갔어요. 우리 사촌 매형은 총을 메고 인제 순찰 들고, 우리 아버지는 삼형제분인데, 큰아버지 큰형님은 공부 좀 했어요. 그래 맨날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를 봤어요. 그래 인제 형님은 출퇴근을 했고 사촌매형은. 그러니 치안대는 군인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참여하면서 근무를 했고, 그런데 어느 날 기상해보니 안개 끼고 조용했는데, 우리 사촌형님이 출근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차가 없고 소 끄는 마차예요. 소 끄는 마차가 한 대여섯 대 이렇게 천도리 쪽으로 가면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당신 뭐 하러 가오.”하고 우리 사촌 형님 보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사무실에 일보러 간다.”고 “당신 정신이 있소 없소.” 어제 인민군이 나와서 우린 이제 천도리로 가는데, 쌀 같은 거 전부 신고 실어다 달래해서 신고 간다고. 그래 그때 당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짐을 지고 저기 시내에 안 있고 저 강 건너 피난을 갔었죠. 거기 가서는 낮에는 여기 미군이 아침 8시쯤 되면 탱크를 몰고 들어와요. 그렇게 탱크를 몰고 쪽 들어오고. 여기 있다가 저녁 네 시나 다섯 시쯤 되면 또 나가요. 미군이.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저 칠성고개. 칠성고개 언덕에 인민군들이 나와서 땅을 봐요. 밤은 인민군이요 낮에는 미군이요, 그러고 나서 며칠을 지냈죠. 미군이 나가면 인민군 나오고. 그렇게 며칠을 지냈는데. 그 다음에 어느 날인가 전부 한국군이 들어오고 저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엔 괜찮았죠. 1.4후퇴 때 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나가면서 우리 사촌형님하고. 사촌형님은 집에서 잤으니까 못나가고 매형은

27) 치안대(治安隊)는 원래 1945년 8월에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와 협의 하에 조직한 임시 경찰 기구로 처음에는 건국치안대(建國治安隊)라고 하였다. 이것이 나중에 한국전쟁이 나고 민간의 치안을 바로 잡고자 다시 결성된 것이다.

한국군 따라 나갔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원주 피난 나갔다 그랬지요?  
원주 나가보니까 매형이 거기 있어요. 그 치안대 들었던 사람들이. 그래 우리  
사촌형님은 인민군들한테 붙잡혀가서 돌아가셨고.

- 인민군한테 잡혀간 형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후퇴할 때 우리 형님하고 사촌형님 한 분하고 그러니 가운데 큰아버지  
사촌하고 서어서 지금 인민군으로 북한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후  
퇴할 때 와서 들어와 가지고 얼굴보고 그냥 들어갔지요.

- 다시 인민군으로?

네. 그 다음서부터 몰랐는데. 여기 수복되어가지고 들어와서 일 년인가 이년  
인가 있는데 일본에서 편지가 왔어요. 누군가 하니 우리 맏 큰아버지 둘째 형  
님이 인민군을 갔는데 어떻게 그게 일본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가. 그  
걸 어떻게 알고 지서에서 쫓아와 가지고 편지 달라고. 그래 편지 달라해 가지  
고 편지 주니까, 그 다음부터 순경들이 와서 살다시피 해요. 집에. “편지할라  
하면 지서에 와서 주소를 적어다 편지해라.” 그래 가지고 뭐 조석으로 불려가  
가지고 조사받는다고. 그래 가지고 내 아버님 돌아가시고. 불려가 가지고 조  
사 하고 조사 하고 계속 그러더니, 언젠 부터가 그 까만 가방을 든 사람들 들  
이 왔는데 와가지고 권총을 방바닥에 꺼내놓고 조사를 해요. 그때 당시에 저  
희는 농사만 했으니까 저거 없잖아요. 인제 뭐 혐의 다 없으니까. 그 사람들  
왔다간 뒤론 조사 안 왔었어요.

-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 사람들 어디서 왔는지. 와서 권총을 방바닥에 꺼내놓고  
앉아서 조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높은데 있는 사람이겠죠. 처음에는 지서  
에서 취조하러 왔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왔다간 뒤론 조사를 안 왔어요.

- 그 다음부터 피해 없었어요?

네, 피해는 없었어요.

- 혹시 뭐 자녀들이 공직에 못 간다던가?

그런 거는 없었고 그 마지막에 왔던 사람들이 제 동생. 제 동생이 그때 중학교



다녔거든요. 동생을 취직을 시켜준다고. 주소를 적어달라고 그래 가지고 간 것 밖에 몰라요. 그러니 별 피해는 없었어요.

- 동생이 중학생인데 취직을 시켜준다고요?

예.

- 나이가 많았나요, 그러면?

예, 좀 나이는 들었었죠. 6.25때 왔다 갔다 하느라 공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 늦게 들어갔지요. 학교를. 여기는 초등학교밖에 없고 인제에 중학교 고등학교 인제에 있었지요. 여기서 20리를 걸어서 다녔지요.

- 할아버지는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요?

저는 초등학교 나오고 말았죠.

- 형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는 삼형제인데 인민군 간 형 있고 저와 동생. 근데 동생은 작년에 사망했어요.

- 계속 농사만 짓고 사셨어요?

그렇지요. 농사만 지었지요.

- 옛날에 여기에 호림부대<sup>28)</sup> 이런 게 있었다면서요? 호림부대라고 들어보셨어요?

호림부대소리는 못 들어봤는데요.

- 여기 청년결사대<sup>29)</sup>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네, 있었어요. 정부에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인제 결사대.

- 결사대는 누가 조직했었어요?

그야 뭐 확실히 모르지만 공산당에서 지시했겠쥬 뭐.

---

28)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정보국 산하에 신설된 북과공작 특수부대였다. 이들은 실제로 많은 공을 세웠으나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나중에 금강산부근과 인제군 용대리부근에서 인민군에게 패하여 사실상 해체되었다. 따라서 호림부대는 인제군 북면과 관련이 깊다.

29) 청년결사대는 1948년 12월 19일에 결성되어 1953년 9월 10일 해산된 대한청년단의 산하 조직과 같은 청년조직이었다. 특히, 인제군의 경우는 남면과 기린면 등 38선 이남의 청년으로 결성되어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 때문에 38이북에 있던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잘 모른다.

- 아 공산당에서 한 거예요?

예, 국가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산당법도 있지만 공산당법보다 김일성이 지시하면 거기에 따라 하는 게 먼저 쳤거든요.

- 남한에 있는 게 아니라, 피난 왔다 갔다 하다가 전쟁 끝난 거네요, 그죠?

네, 네.

- 전쟁 끝나고 와서 조사 나오고 편지 오고 그죠? 그 다음엔 어떻게 사셨어요?

그 다음엔 뭐 농사만 하고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때부터 약을 먹었어요. 노인네들이 옛날 노인네들이.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 안 됐으니까 무당, 점쟁이 뭐 이런 데다 돈을 다 없애고, 잘 못 살았어요. 제가.

- 굶도 많이 했어요?

굶은 안 했던 거 같아요. 굶은 안 하고. 점쟁이 뭐 점하고. 경은 안 읽고. 점쟁이들이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또 인제 뭐 하여튼 몸이 아파 힘들었어요. 뭐 약을 쓰면 될 약. 뭘 병엔 뭐가 좋다. 별 걸 다 해먹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제가 결혼을 처음에 한 결혼은 실패했어요. 제가 처음 결혼하고는 그때 당시에 결핵이라고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고 한번 실신 했었어요, 한 몇 분 동안. 그때는 인제 의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국가에서 의대를 다니다가 나온 사람인데 의사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사람이 약 주는 거 먹고. 그러다가 결국은 못 고치고 그 여자하고는 헤어졌지요.

- 할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못살 거 같으니까 헤어지신 거지요, 그 여자는 어디 갔어요?

그 여자는 세 번인가 시집을 갔대요. 그리고 작년에 저기 암으로 해서 죽었대요. 그리고 저는 지금 47년 전에 지금 아내와 결혼했지요.

- 그때 나이가 몇이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서른 몇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결혼을 처음 결혼할 때는 구

식으로 사모관대 쓰고 했고, 나중에 할 때는 신식으로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성당에 다니는 친구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성당에 다니는 친구들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예배하고. 그때 당시는 제가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몸으로 별어서 식구를 부양을 못하니까 별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양봉을 하고 있었거든요, 양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 분을 만났는데 같이 있는 주임이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이모라는 분하고 이렇게 넷이 만나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둘이 남아서 얘기해봐라. 그래서 아이, 둘이 나가도 별 얘기가 있느냐 해서 여기서 다하자. 그래서 두 분들이 자기네가 나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남아서. 그래 지금 같으면 다방이나 뭐 이런 텔 가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다방은 있었지요. 그런데 다방은 안가고 강가에 가서 얘기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사실 내가 몸이 약해서 백 프로 가정 살림을 못하니까 내가 백을 모으면 안식구도 백을 모으는 그런 사람을 택하고 싶다. 그러면서 인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인제 방에서 다섯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나올 때. 뭐 얘기가 나왔냐 하면. 그때 난 지금 성당에 다니고 그러는데 성당에서 결혼을 하려면 하겠다, 여자한테 그랬죠. 그래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영세를 받았대요, 그니까 나보다 성당을 먼저 다녔지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됐냐하면 안식구도 저 북한에서 피난 나온 사람이에요. 삼남매가 있는데 언니는 시집을 갔고 오빠는 군인에 가있고. 성당에서 하란 대로 해야 되겠다. 그 자기는 영세를 받았다. 결혼이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영세를 안 받았었는데 신부님한테 그때는 미국 신부님이 한 분 있었거든. 인제 여기에. 그 분한테 얘길 하니까 그러면 영세준비를 해가지고 결혼 전날 영세를 해주마.

-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영세. 영세를 해주마. 그래가지고 여기는 성당이 없고, 인제에 있었어요. 그래 미국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결혼식 전날 영세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그 이튿날 인제 가서 성당에서 결혼했지요.

-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사시는 거군요.

예, 그래가지고 자녀가 둘. 아들 둘 있고요.

- 6.25때 민간인 피해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피해는 그 우리 주변에는 없었는데.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작전이 낮에 남한에 서처럼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빨간 띠 두른 사람들이 밤에, 밤중에 와서 데려가고 그러더라고요.

- 사람을 데려가요?

네, 그러면 그 사람 안 와요.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나 그 사람들은.

- 인민군들이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민군이 아니죠. 지방청년<sup>30)</sup>들이죠. 지방청년. 시빨건 완장 두른. 그 사람들은 뭐 총을 메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작대기 질질 끌고 와서 밤에 와 데려가고.

- 그럼 여기 같은 인민통치였지만도 그걸 대항에서 싸운 세력도 있었어요?

아이고, 뭐 말도 못해요. 여기서 만약에 남조선 찬양을 했다. 그러면 그날로 없애지는 거예요, 대항도 못해요. 지금 북한이 조용한 게 그런 게, 그래서 꿈쩍 못해요. 두 집, 세 집을 조직화 해가지고 누가 뭐 말을 하면 그날로 그 뭐 소문도 안 나고 그냥 붙들어 가니까요. 그니까 꿈쩍 못 하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데모나 뭐 남쪽에 뭐 찬양이나 이런 걸 못해요. 하고 싶어도 꿈쩍 못하죠.

- 조직을 만들어요?

그렇지요 조직을 만들죠. 반장 이렇게 해가지고 영농반장. 인민회의 반의 반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 통솔 하에 뭐든 이뤄지지. 개인으로 뭐 하는 게 없으니까요. 통제가 되니까 꿈쩍 못하죠 뭐. 그리고 거기때 그 사상이란 게 무섭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걸 몰랐는데, 비판할 때 보면 엄청나요. 별걸.

- 어떤 식으로 해요?

‘뭐, 뭐 잘못했다. 사상이 나쁘지 않느냐.’ 그런 걸 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래

30) 지방청년은 소위 말하는 지방빨갱이를 일컫는 것이다.

서 뭐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지금 북한이 데모 없이 조용한 게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누가 말할 수가 없지요. 서로 감시하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지금 내 나이 때 된 사람들은 북한에 들어간 사람들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태극기와 애국가는 다 알아요. 그때 당시에 2년 동안 썼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가 어떤지 다 알지요.

- 형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사촌형이랑 갔으니까 사망됐을 거예요. 북한에서 지금쯤 형님이 계시면 82세인가요.

- 그 다음에 소식이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 이산가족 신청 안 하셨어요?

했죠.

- 그런데 안 되셨어요?

예, 안 됐어요. 금년 봄에도 전화가 오긴 왔는데, 그 이산가족 신청하겠느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다고 전화만 했죠. 연락은 안 왔어요.

- 만나고 싶겠네요?

예, 물론 만나고 싶지만 형님은 돌아가셨을 거지만 조카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조카들 보면 뭐합니까. 지금, 북한에 있는 애들이 그 집안 우애 집안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것은 개인주의고 그러니까 '누구 사촌이다 누구 친척이다'를 별로 충실하게 못하니까.

- 형님이 올라갈 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19인가 20살도 안 됐을 거예요. 19정도. 18살에 군인 간 거예요. 인민군을.

- 어르신은 군대를 안가셨겠네요?

저는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16인가요?

- 다 기억나시겠네요?

그러니깐 다 기억나죠.

- 군인들은 들어와서 따로 뭐 안했어요?

네 군인들이 작패한 건 별로 모르겠어요.

- 수복되고 나서 어떤 통치를 받았어요?

그러고는 수복되고, 아 수복되고요. 수복되고는 자기네 그 농토 있는 사람은 농사하고 아무 제재 없이 그냥. 여기서 인제 뭐 불일 있어서 뭐 홍천이나 원주에 나가려면 지서에 가서 외출증 끊어가지고. 그때 당시엔 버스가 없고 군인 제무시라고 그걸 한 대 내 줬어요. 그걸 타고 인제 저 신남이 38선이잖아요. 거기때 거기만 가면 거기선 맘대로 다니니까요.

- 수복되고 나서도 계속 그랬어요.

예, 38이북에는 그 일 년인가 이 년 동안은, 홍천 나갈라 하면 외출증 끊어서 갔다 오고 그랬어요. 신남에 가면 거기서부터는 버스가 이따금씩 있었으니까 이쪽에는 군인차로 이동했고 신남 나가면 버스로 이동했구요.

- 38선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감시를 했네요. 그러다가 풀린 거예요? 언제 풀린 거예요?

수복되어가지고 1년인가 2년인가 1년밖에 안 돼서. 그 군인 제무시로 인제 민간인들 실어 나르고 그랬죠.

- 그럼 학교 가고 그런 건 어떻게 했어요?

학교는 그때 당시에 처음에 들어와선 저기 마당에다가 명석, 가마니 쪽 깔고 거기서 공부했어요. 거기서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는 감리교(?) 뭐꼬 애들 가르친다, 하니깐 그러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제 뭐 국민학교가 그 국민학교가 준비위원회를 뭐라 그러나요. 그 추진위원회. 국민학교 추진 위원회. 그 사람들이 토지를 사고 돈을 모아가지고 토지를 사고 학교를 짓고. 그 돈을 어디서 얻었는지 몰라. 초등학교 그렇게 짓고 거기서 학교 다니고. 중학생들은 한 4,5년 인제로 다녔어요. 인제 중학교 고등학교 인제에 있으니까 인제로 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때 중학교 그 준비위원 생겨가지고 그분들이

인제 중학교 짓고 그걸 가지고 교육청에 다닌 것도 알아요. 그 준비위원회 서류를. 그분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정년퇴직 했더라고요.

- 그 당시 신남 밖으로 38선 이남으로 학교 다니던 고등학생 있었어요?

그때 당시엔 그렇게 못했죠. 못 갔어요. 인제 중학교 고등학교 있었고 여긴 없었어요.

- 대학은?

그땐 대학이란 걸 몰랐어요.

- 그럼 수복되고 나서 옛날 북한통치 아래 땅을 막 토지분배를 했잖아요. 나중에 수복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 지주들이 모두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 찾았죠. 원래 땅을 다 찾았지요. 자연스럽게 찾게 되지요.

- 그때 완장 차고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고. 피난 나갔던 사람들만 들어왔어요. 처음에 피난 갔다 와서는 딴 데 못 가고 시내서만 집 짓고 살고.

- 다른 데 못 가게 했어요?

네. 다른 데 못 가게 했지요. 농사지으러 밖에는 갔죠. 논, 밭엔 가고. 저런 먼 데를 돌아다니진 못했죠.

- 감시를 했네요, 통제를 했네요.

마음대로 여기저기는 못 다녔죠. 그리고 한 일 년인가 있다 그 다음에서부터는 조금 나가서 집도 짓고 그렇게 살았지요.

- 점점 나가서

예, 점점 더 나가서.

- 그 다음엔 뭐 용대리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 천도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도리서 인제 거기서 몇

- 년 있다가 해안<sup>31)</sup>도 가고. 그때 당시엔 해안이 인제 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래가지고 해안으로도 갔지요. 지금은 양구로 붙었지만.
- 그럼 차츰차츰 풀렸네요?  
예, 그렇지요.
- 해안 같은 경우는 6.25 끝나고 나서 따로 사람들 모아서 했다면서요?  
네. 낮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밤이면 나오고.
- 아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나오고.  
예,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나오고. 그 다음에 인제 집을 짓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출입증명이 있어요. 출입증명이 있어야 들어가고.
- 풀린 지 얼마 안 됐지요?  
네. 얼마 안 됐지요. 이제는 뭐 마음대로 드나들지요.
- 여기 와서 처음 와서 여기서만 살고 통제를 했네요, 그죠.  
통제시가지요. 이 부근에서만 농사하고 집도 이 부근 밖에는 못 짓고 그렇게  
한 1년 2년 있다가 마을로 들어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집도 짓고 농사도 나가  
짓고 그랬지요.
- 자기 땅이 밖에 있는데도 여기서 살았어요?  
네. 그렇지요.
- 군인들이 통제했어요?  
그거는 군인들이 한 거 같지 않아요. 치안대가 그때 당시에는 수복되면서 해  
제됐지요. 해제됐지만 그 사람들이 권력이 좋았어요. 동네에서 큰 일 같은 거  
뭐 좀 해야 되면.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했고. 그래서 여기 처음 들어와서 집  
터 잡을 때도 그 사람들이 좋은 집터 다 잡고.
- 그럼 대한청년단 이런 건 아세요? 한청이라고 한청?  
한청이라고 들어는 봤어요.
- 여기서 못 봤죠? 여긴 북한지역이니까.

31) 해안은 현재 양구군 해안면을 일컫는다.



- 네. 못 본 것 같아요.
- 6.25전에 왔다갔다 싸운 건 모르겠네요. 38선 넘어서 왔다 갔다 싸운 거?  
 그때 당시 38선 그때 당시에 38선 별로 저거 감시가 심하지 않았어요.
-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홍천이 고향이라 그랬죠? 여기는 담배가 없어요. 담배가 없어서 홍천엔 담배 많이 심어요. 홍천 가서 담배를 한 짐 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팔면 이익이 엄청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해서 홍천을 몇 번 드나든 게 생각이 나요. 담배도 뭐 저 이런 봉담배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냥 엽초 말린 거 그대로 지고 들어왔는데. 그걸 몇 개씩 나눠서 팔고 그랬죠.
- 그런 것 말고도 장사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지요. 결혼도 하고 뭐. 그런데 38선도 그 부근 사람들이 어디 보초서고 어디 안 서는 거 알잖아요. 그래 거기 사람들에게 돈 얼마주고 그 사람들이 데려가고 데려오고.
- 보초선 사람들이?  
 아니, 동네 사람들이 어디 보초서고 안 서고를 아니까. 돈 얼마 주면 데려다주고, 인제 올 때는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드나들었어요.
- 결혼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는 그쪽사람들이랑 할 때.  
 맘대로 했죠 뭐.
- 보초 선 사람들이 그냥 가라고 해요?  
 아니 38보초 설 때는 그렇게 못했지요. 그렇게 못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몰래 왔다 갔다 했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8선 보초는 별로 심하지 않았어요.
- 초창기에는 그죠?  
 네.
- 아버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아버님은 뭐 아주 농사꾼이죠 뭐. 농사밖에 모르시니까요. 그때 당시에 담배도 가져다 팔게 된 거는 저희가 홍천에 연고가 있으니까. 이거 팔면 돈 번다고

- 소문이 나니까 다니면서 갖다 팔았죠.
-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건 안 팔았어요?  
다른 건 안 팔았어요.
- 북한에서 공동작업을 하잖아요, 돈은 어떻게 했어요?  
북한에서는 일하는데 돈을 안 줘요.
- 돈 안 줘요? 어떻게 그럼? 먹을 거는?  
어디 큰 공사가 있잖아요. 공사가 있으면 거 노력동원. 노력동원 해서 먹여주고 그거 밖에 없고 품값이란 건 없지요. 그냥 노력동원만 하지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원통에서 양구 넘어가는 길. 길 닦을 때 그때 당시에 인민군시절이었어 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 함흥 평안도 이런 데서도 한동네에서 한 번에 몇 사람씩 차출을 해서 보내면 여기 와서 길 닦는데 일을 해요. 며칠씩 하면 부식하고 쌀은 대주니까 먹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그런 고등어가 없지만 그때는 소금을 툇툇 떨어서 하루 정도 물에 담갔다 먹어야 되는 그런 고등어. 그런 고등어 놓고는 배급 주고 그래가지고 그 길을 다 닦았어요. 그 사람들은 품값이라는 것이 없어요.
- 따로 사고 뭘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사고 그러는 거는 처음에는 자기네가 뭘 조금씩 팔았으니까요.
-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같은 거? 누구한테 팔아요?  
그 장이 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장이 서니까 장에 가서.
- 내무서에서 피해 같은 건 안줬어요?  
그런 거는 저희는 그에 저축되는 일을 안 해서 그런지 그런 피해는 없었어요.
- 미군 폭격할 때는 어땠어요?  
아이고. 미군 폭격할 때 말도 못했어요. 제가 조금 이 동네에서 떨어진 데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 겨울인데 한 7시쯤 됐는데 비행기가 몇 대인지 모르죠, 새까맣게 떠서 원통시내를 폭격하는데 하루아침에 원통시내가 아주 속밭이 됐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루에 제사 있는 집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와서 폭격을 하고 가고. 그때 당시에 폭격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니까 한 3가지 정도. 처음에는 사람 죽이는 것은 기관총만 쏘고, 어디 뭐 집을 태워야겠다, 불을 싸 놔야겠다 이러 면은 휘발유통이라고 그런 일은 두 개를 떨궈요. 그렇게 떨구면 비행기에서 보여요. 떨구는 게, 땅에 터지면 한 백 메다(미터)씩 이렇게 그때는 휘발유라 그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휘발유가 아닌 거 같아요. 끈끈한 게 옷에 붙은 게 옷에 붙어 붙으면 그걸 탁치면 손에도 붙어 붙어요. 끈적끈적 했고 만지면, 마당에 붙어 닿잖아요? 마당에서 보면 하얀 게 점점이 이렇게 저 탄 자국이 있어요. 휘발유가 아닌 고 무나 이런 거 같아요. 끈적끈적 한 게. 그런 게 터지면서 불이나요 자동으로. 그러면 뭐 집안에 있던 사람은 살고 집 밖에 있던 사람들은 그거 뒤집어쓰면 다 타죽죠. 꼼짝 못해요. 집안에 있던 사람은 지붕에만 떨어지고 집안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지붕만 타지. 마당 안 나가면 괜찮죠. 마당에 있는 건 금방 타니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뒤집어쓰면 다 죽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제 뭐 파괴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큰 폭탄 같은 거 떨구고.

- 미군 폭격은 언제부터 했어요?

인제 면 년도인지는 모르나. 하루아침에 시내를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서부터 자주 와서 뭐 폭격을 가끔 했지요. 사람만 보면 폭격을 하고 했어요.

- 인민군통치 때 했어요, 아니면 전쟁 때 했어요?

그러니 인민군통치 때 했죠. 6.25 전후로. 1.4후퇴 때 하루아침에 원통시내 싹 망가졌어요. 그러니 집안에 사람들이 있었지요. 하루아침에 그냥.

- 민간인들을 왜 그렇게 죽였어요?

미군들이 한 거니까 뭐 모르지요. 지금도 미군들이 총살 했다고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 38이북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당해도 말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뭐 인민군시대 때니까 말을 못하지요. 말도 못하고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우리 할머니하고 그 큰집 형수님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집에 있었는데 비행기 폭격할 때 피난 안가고 집에 있었어요. 여느 사람들은 다 피난을 가는데. 우리 할머니는 연세가 많았고 형수님은 애기들이 둘 있으니까 못 갔고. 그런데 하루 저녁에 와서 폭격을 하는데 할머니는 그

날 저녁에 돌아가시고, 형수님은 한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여기 다리가 잘라져서요. 그러니 뭐 참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어리석었어요. 왜냐하면 그 환자를 붙을 때고 거기 바람 들면 안 된다고 형걸으로 싸매고 거기를 가리고 환자를 눕혔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어리석었어요. 시원해야 될 텐데 뜨듯하게 해서 총에 맞은 데가 여간 잘 굼아요. 그래서 한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형수님이.

- 그러면 그 조카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조카들은 큰아버지가 데리고 6.25, 그 1.4후퇴 때 우리 하고 안 가고 맨 위 큰 아버지하고 둘째큰아버지 둘째 형님은 따로 가고, 그래 그분들은 애기들이라 죽었대요. 애기들. 형의 자손은 없죠. 이제 사촌형님 맨 위 큰아버님 큰어머님 그렇게만 이제 여기 수복되고 나자 그제 한국군 들어오고 나오니까 민간인들을 한군데 모아둘 거 아니에요? 민간인. 한 군데 모아놓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서 자연히 큰 집을 만나게 됐죠.

- 민간인들이 수복이 돼서 들어오니까?

아니, 수복이 아니라. 아군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산골에 가 있다가 아군이 들어오니까 나오니까. 자연히 이제 군인들이 한군데다 모아놨죠. 그래 이제 월주로 피난 나가라했지요.

- 그럼 전쟁 통에는 피난 다닌 거밖엔 없네요?

그렇죠. 북으로 간 사람이 더 많아요. 남에 남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지금 내 나이또래 된 사람들은 한 7,8명. 6.25전에 여기 있던 사람들은 그밖에 없어요. 다 북으로 가고요. 지금 90대된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는 전부 우리 또래예요. 대 여섯 명.

- 90된 분은 성함이 어떻게 돼요?

김진수라고 전에 그 조사할 때요,<sup>32)</sup> 그때도 제가 그분이 연세가 많아서 그분한테 보냈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이 원통 안사시고 가아리, 인제 가아리. 그

---

32) 2008년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인제군의 민간인 피해 조사를 한 적이 있다.

- 러니 여기 내용을 모르시지요. 그래 저에게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녹음을 했어요.
- 가아리도 이복이었죠?
- 그렇죠. 이복이었죠.
- 지금은 인제 할머니랑 두 분이 계신 거예요?
- 예, 여기. 애들은 다 나가있고.
- 할머니 놀러 가셨어요?
- 아니 일 다녀요, 약국에 가서 점심 한 끼 해주고.
- 그래서 혼자 계셨구나. 특별히 지금 얘기 안한 것 중에 빠진 거 있잖아요. 빠진 게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 그때 그 남한에 남아서 얘기 들으니까. 그 일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도로 기관에 다 들어갔잖아요.
- 어디 일본으로?
- 아니, 일본놈들 앞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기관에도 들어갔고. (일제 앞잡이들 이) 그렇게 해서 일제의 그 잔재가 많잖아요. 그런데 북한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사람들 하나도 없이 싹 내쫓고, 아주 농촌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일 시켰기 때문에 말도 잘 듣고 일도 잘하고 그랬죠.
- 그거 하난 잘했네요?
-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북한에 뭐 일제잔재가 없잖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있겠죠. 그러나 공개를 못하죠.
- 그 당시 남한하고 북한하고 차이가 많았겠네요?
- 차이가 많죠.
- 체제 같은 것ियो. 남한 얘긴 많이 들었어요?
- 남한얘긴 별로 못 들었어요. 그 아버님이 인제 처음에 38선 그렇게 돼가지고 그쪽은 옛날처럼 그전처럼 그렇게 지낸다고 하는 그 얘기밖에.
- 아버님이 옛날처럼 지낸다고 그러면서 왜 남한으로 안 갔어요?
- 그때 당시에는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친척은 흥천에 다 있으니까 우리

형님 군인 갔으니 만약에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 되면 돼서 죽지 않고 살면 우리가 여기 없으면 홍천으로 찾아와라 홍천에 오면 우리 친척이 많다. 그 얘기 하신 게 생각나요.

- 인민군으로 갈 때요.

예. 그 얘기 하신 거는 생각이 나요.

- 인민군은 나이가 돼서 뽑혀서 간 거예요?

예, 그렇죠. 북한은 18살이면 가니까.

- 가족들을 두고 갔네요.

그렇지요. 형수님 두고 갔죠.

- 조카 둘하고

아니, 그 조카는 사촌 형님 자녀고요. 우리 형수님은 얘기가 없었어요. 장가 들고 얼마 있다 그랬으니까.

- 그럼 형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남한에 피난 나갔다가. 형이 없으니까 형수님은 따로 갔죠. 따로 갔는데, 사망했다 하는 거 같아요.

- 어쩔 수없이 헤어진 거네요?

그렇죠. 형님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친정이 좀 사상이 북한사상이 많았어요. 그런데 피난을 남한에 나왔더라고요. 원주가 만나서 형수는 친정으로 갔고 그때 헤어진 이후로는 모르지요.

- 형수는 집이 어디였어요? 친정이.

용대리요.

- 그러면 그 집안은 다 북한으로 갔겠네요?

아니요, 작은 집은 북한으로 갔고 그러니 처삼촌이지요. 처삼촌은 갔고. 형의 처갓집은 남한으로 갔지요. 갈라졌어요.

- 그 이후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네요?

모르죠 뭐.

- 형님이 북한으로 가고 나서 한동안 조사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사한 게 아니고, 사촌형님이 일본 갔다 그랬잖아요. 일본 가서 편지 온 거 때문에 조사를 많이 했어요.

- 그 다음부터는?

중양에서 왔다 가면서, 그 이후로는 간섭이 없었어요. 편지를 해도 답장도 없고.

- 일본으로 편지 보냈어요?

보냈지요. 그 편지 하려면 지서에 가서 주소적어주면, 검사 맡으라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한창 일본의 조총연 들어갈 때 들어간 거 같아요. 그 다음으론 소식이 없죠. 그분은 살아 있으면 지금 8십 한 7,8 세. 지금은 사망했을 거예요.

- 이 동네는 전쟁 끝나고 완전히 썩밭이 돼버렸네요?

그렇지요. 썩밭이 되고, 저 산 밑에 한두 집 남고, 하루아침에 그냥. 처음에는 사람만 죽이더라고. 폭격 오면 사람만 죽이고, 그 다음에는 휘발유통 떨궈가지고 집 싹 타고 하나도 없죠.

- 그리고 국군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을 때 여기 빨갱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 없죠. 다 도망가고 없어요. 지방 빨갱이들 싹 들어갔어요. 있으면 죽으니까 자기네들도 그걸 아니까.

- 그리고 1.4후퇴 때 다시 내려갔을 땐 어땠어요?

내려왔을 땐 그 사람들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은 못 보고, 빨치산. 빨치산 그 패들만 보고, 우리 사촌형님 그 치안대 다녔다 그랬죠? 치안대 다닐 때 빨치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가자 그래 갔죠. 그때 당시에 밤에는 인민군이 여기 나와 있고 낮엔 미군들이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밤에 저기 인민군들이 여기 나와 있고 빨치산들이 나와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붙들어갈 사람 붙들어 가고 그 사람들도 뭐 저기 남한에 협조한 사람들이나 붙잡아가지. 협조 안 하고 그냥 피난 간 사람들은 안 붙들어 갔어요. 우리 사촌형님은 치안대였으니까 잡혀갔죠.

- 아 그 사촌형님이 일본 간 거예요?

아니죠, 그분 동생. 사촌형님이 누님이 한 분 있고 형님이 두 분이데. 그 둘째 형님이 인민군 갔다가 일본 갔지요.

- 첫째는 치안대 있었고.

네. 치안대 있었고.

- 빨치산에 잡혀간 형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가자마자 사망됐을 거예요.

- 소식은 몰라요?

몰라요.

- 빨치산은 와서 무슨 일을 했어요.

빨치산은 뭐 동네 돌아다니면서 자기네한테 해코지한 사람들 불러 가면 그때 당시에 여기 칠성고개 넘어가서 보면 으스스한데 보면 송장이 많았어요. 그냥 묻지도 않고 사람 죽여 놓고 그냥 가고.

- 어떤 사람이 빨치산이 됐어요?

모르죠. 순 저 공산당원들이겠죠.

- 이 동네 살던 사람이 아니고?

아니예요, 이 동네 살던 사람이 아니고. 낯선 사람들이 와서 불러가고 그랬지요.

- 그 빨치산은 복장이 어땠어요?

그냥 동복입고 모자만 그 도로구치 같은 거 쓰고 다니면서.

- 총 들고?

총은. 총은 안 들고.

- 그럼 와서 조사만 하고.

조사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봅시다.”하면서 데려갔죠.

- 가면 끝이에요?

네. 가면 끝이지요.

- 집단으로 학살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 예, 요 모탱이는 그런 건 없었어요.
- 개인적으로만 그랬네요. 일일이?  
네. 불러 가면 그렇게 되고 그랬죠.
- 빨치산 활동이 심했나 봐요?  
아, 심하고말고. 그 사람들 대단했어요.
- 밤마다 오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미군들 여기 낮에 들어왔다 나가면 밤에 꼭 와요. 와서 돌아댱  
기고.
- 그 당시 미군들한테 동조하던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미군들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몇 안 돼요. 전쟁은 하지만 미군들  
이 들어와서 민간인 접촉하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쪽 들어왔다가 탱크 갖고  
쪽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은 없죠.
- 통치를 따로 한 건 아니지요?  
예, 따로 한 게 아니지요.
- 그러니까 따로 남한, 북한 해서 조직이 이루어지진 않았네요.  
네, 그런 건 없었죠.
- 어르신.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저는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북한 자꾸 뭐 국회에서도 북한 찬양을 한다, 그렇  
잖아요. 저는 그 소리 들으면 참 어리석다고 봐요. 왜 그런가하니. 땅굴 판 거  
보세요. 그게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봤겠어요. 남한 점령하려고 판 거잖아요.  
지금 핵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핵무기도 남한 점령. 물론 미군하고 한다고 하  
지만. 결국은 남한 점령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북한에 지원. 찬  
양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8.15 겪고 6.25 겪고 저는 이렇게 이  
쪽저쪽 보니까 참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평화통일 참 좋죠. 평화통일 좋은데. 그  
런데 한국 대 이북만 같으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미국이 있고 중

국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평화통일 한다면 가만 두겠어요? 지금 북한이 중국  
위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통일 참 좋은 말인데, 참 힘들 것 같아요.

- 평화통일 참 어렵겠네요?

나중에 남한과 북한만 있으면 언젠간 되겠죠. 그런데 중국하고 거대한 외부  
세력 때문에. 거대한 중국 때문에 어렵지요.

(휴식)

- 도민증<sup>33)</sup>은 어떻게?

예. 그런데 어른들은 도민증 다 있지요. 애들은 출생증이 있고요. 여기 지금  
남한은 학생증밖에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어려서부터 출생증이란 게 있어  
요. 출생증은 애들, 도민증은 어른들. (도민증을)사발에 넣어서 덮어서 빛을  
못 보게 돌 바위 밑에다 묻었는데.

- 어따가 묻었어요?

거, 피난 가있던 데요.

- 아 원주?

아니.

- 아, 홍천 아아 여기 가전리.

풍전동. 원래 여기 가전리로 가려고 그랬는데, 가전리로 갔으면 좋죠. 근데 풍  
전동 가서 거기서 피난 가고 나올 때 인제 이거(도민증) 필요 없으니까, 묻고  
가자 그래서 거기다 묻고 왔죠.

- 그런데 가보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도 가보면 찾을 거 같지 않아요. 있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묻은 곳  
에는 물에는 전혀 안 들어가니까 밥사발을 양쪽에 했으니 전혀 물이 안 들어  
가죠.

- 필요 없을 거 같아서 인제?

예.

---

33) 도민증은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북한의 신분증이다.

- 도민증 어떻게 생겼어요? 종이로?

예, 종이를 이렇게.

- 수첩처럼요?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접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돼있다고 출생증은 안하고.

- 지금 건강보험, 의료보험처럼요?

예.

- 그거 말고는 그 당시 남아있던 거 없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입을 옷 그거 부쳐 입는데 다 내다 버렸지요.

- 하나도 없네요, 지금.

예, 없어요.

- 옛날에 어르신 어렸을 때 사진도 없나요 지금?

없어요. 그때 당시엔 입을 옷 그것 밖에 없었는데, 다 내다 버렸지요.

- 어렸을 때 사진은 없나요?

그때 당시엔 사진 찍으려 하면 그 출생증하고 도민증하고 낼 때 찍고. 그다음은 몰랐어요.

- 농사짓고 뭐 이런 사진도 없어요?

없어요. 전혀.

- 환갑잔치 이런 거는?

환갑잔치는 저기 하나 있네요.

(휴식)

- 중공군 왔을 땐 어땀어요?

중국놈들 무서웠죠, 저 1.4후퇴 뒤로.

- 어떻게 했어요, 중공군은?

그 사람들 전쟁. 그 사람들 전쟁은 그래요. 총은 별로 없어요. 총은 별로 없고. 저녁 때 되면 저기 집결지로 모여요. 팽과리 있고, 저 중국제 수류탄 이건 나무로 이렇게 생긴 거. 이건 나무로 밑의 손잡이는 나무로 돼있어요. 이 부분에

꼭지는 쪽 들어가 묶고 다녔어. 던져버려 그럼 터지고. 그리고 ‘꾸아아아’하고 소리 지르고. 팽과리 쳐서. 완전 겁나죠.

- 완전 인해전술이네요?

인해전술이었죠. 중공군은 인해전술이에요.

- 죽창도 들고?

죽창은 못 봤어요. 수류탄 보고. 팽과리.

- 팽과리 들고 막 내려온 거예요?

네.

- 어떻게 됐어요, 개들은?

고지하나 점령하려면 초저녁에 집결지에 있다가 밤에 올라가요. 막 소리 지르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 총도 안 갖고요?



● 환갑잔치

- 예. 총도 별로 없어요.
- 어떻게 전쟁을 했어요?  
수류탄을 많이 들었어요.
- 수류탄을 많이 들고,  
예.
- 중공군은 민간인한테 피해 안줬어요?  
중국놈들이 피해준 건 없어요.
- 없어요? 개들은 먹을 거 다 싸들고 다녀요?  
개들은 먹을 거 가져가는 거 못 봤어요.
- 그럼 어떻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먹을 게 없어서. 여기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옛날에  
늦오강에 멍쌀을 넣고 그냥 끓여가지고 숟가락으로 퍼 먹었다고 들었어요.
- 요강에다가?  
예 그런 얘긴 들었어요. 저는 중공군도 몇 사람 못 봤어요. 왜냐면 산골에 있  
다가 나와서 그렇게 됐으니까.
- 중공군들이 내려오긴 많이 내려왔나 봐요?  
엄청 내려왔어. 중국놈도 많이 죽고.
- 총이 없으니까 또?  
네. 많이 죽었어요.
- 팽과리 치고. 완전히 조선시대 인해전이네요. 요란스러웠겠네요?  
네. 그리고 뭐 겁을 주려고 그래도. 한국군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아휴, 참 그  
러니. 나중에 중국군들이 미군 탄알이 모자라나 우리 머릿수. 우리 시체가 모  
자라나 해보자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 미군 탄알이 모자라나 우리 머릿수가 모자라나? 결국 중공군 내려오는 바람에 우  
리가 밀렸잖아요?  
예, 그렇지요.
- 말씀 고맙습니다.

## 용대리에서 살아남기



용대리2리 2반 아니오니 산제당

- 구술자: 정종범
- 구술자 나이: 78세(1935년생)
- 면담자: 이학주
- 면담주제: 6.25 한국전쟁 전후의 용대리 상황과 구술자의 삶.
- 면담일자: 2012년 11월 27일
- 면담장소: 북면 용대리 노인회관

## 〈면담 상황〉

용대리는 몇 년 전 인제군의 마을제사를 조사하여 책으로 내는 과정에서 비교적 많은 구술자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 중 말씀을 잘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어느 어르신과 전화 연락이 되어 면담을 하기로 하였다. 몇 번의 전화 끝에 간신히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막상 만났더니 나이가 너무 많아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면담을 거부 하셨다.

바람이 몹시 찬 겨울 용대리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올 형편에 놓였다. 그때 그 어르신과 함께 있던 정종범 씨를 만났다. 정종범 씨는 용대리에서 전쟁 과정을 모두 겪은 보기 드문 구술의 책임자였다. 취지를 말하고 인터뷰를 신청하였다.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간곡한 부탁에 드디어 말씀을 하셨다. 성함은 마지막에 밝혔으나, 사진은 끝내 거부하셨다.

구술자 정종범 씨는 기억력이 상당히 좋았으며, 세세한 일까지 당시 본 사건을 막힘없이 구술했다. 일촉즉발 목숨이 왔다 갔다한 치열했던 용대리의 상황이 구술과정에서 그대로 다가왔다. 구술 상황도 아주 힘차고 생생했다. 따라서 6.25 한국전쟁 전후의 용대리를 중심으로 한 민간인의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남과 북의 군인, 그리고 미군과 소련군의 상황까지 그 성격의 단면을 볼 수 있었으며, 생사를 넘나든 당시 세대의 힘들었던 삶도 그대로 포착되었다. 특히 방책선 너머에 아버지의 산소를 두고 애타하는 모습은 면담자에게도 눈물이 글썽이게 하였다. 전쟁이 없이 남과 북이 통일을 이뤄야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여기는 인제군 용대리입니다.
- 오늘이 11월 26일인가요?  
27일.
- 성씨는 어떻게 되세요, 성씨만이라도?  
정 씨요.
- 올해 연세는?  
일흔 여덟이예요. 35년생이예요.

- 그때 일제강점기 때 있잖아요, 그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일제 때 우리가 인제 그때만 해도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8살에 저 일본 지금은 초등학교라 하지만 옛날엔 국민학교<sup>34)</sup>라 하잖아요. 국민학교 들어가 가지고 2학년 2학기 배울 때 그때 저 8.15해방이 됐어요. 그때 해방이 돼가지고 그 기간 동안 학교 2학년 다니는 그 기간 동안만 그때 고생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발도 마땅치 않고 옛날에 나무 잘라서 게다<sup>35)</sup>라는 걸 아는지 모르지만 게다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 신었어요.

- 예, 들어봤어요.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 가죽으로 되고 못질을 하면 나무니까 잘 안 닳거든요. 그래서 게다 신고 학교 다녔고, 왜정 때도 얼마나 강했는지. 뭐 학교를 다녀도 점심 싸면 점심 다 검사하고 그랬어요.<sup>36)</sup> 옛날에도. 그래 나는 집에서 그래도 그 전에는 우리 집은 어지간히 일꾼들도 살기 때문에, 제가 외독자고 그러기 때문에, 밑에는 베토포<sup>37)</sup> 지금은 도시락이라 하지만 옛날 베토포 밑에다 쌀밥을 싸고 위에는 조밥을 깔고 그래 가면 학교 점심 때 되면 싹 검사해요, 선생이. 검사를 해가지고 왜정 때는 저 야스쿠니 신사<sup>38)</sup>가 일본사람은 하나의 신앙이에요. 그 점심을 먹을 때 밥 먹고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그전에 우리 저 뭐 그때만 해도 점심 못 싸가지고 오는 사람이 참 반이 넘었었어요. 그렇게 하고 뭐 칠팔리 캐먹고 나물 뜯어 그렇게 식생활 하던 그때, 끼니를 때우고 하던 사람들은 거의 그 전부터 열에 한 일곱 집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8.15

34) 국민학교(國民學校)는 1941년 일본이 황국신민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명칭을 바꾼 것이다. 이를 교육부에서는 1996년 3월 1일에 “일제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취지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初等學校)로 바꾸었다.

35) 게다는 일본 사람들이 신는 나막신을 말한다.

36) 여기서 검사는 도시락 검사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혼식(混食)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당시는 쌀이 귀한 시대이다 보니 상대에게 위화감을 주거나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우려에서 비롯한 것이다. 필자도 중학교 때까지 도시락 검사를 매일 받았다. 잠곡이 30퍼센트 이상 꼭 섞여야 했다.

37) 베토포는 도시락에 대한 일본식 표기이다.

38)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의 호국신사인데, 일본의 전쟁범죄자인 전범을 모시고 추앙하는 것으로 전락되었다. 그래서 원래 취지와는 달리 우익정권의 정권유지 차원에서 존속하고 있다.



해방되고 그때 뭐 여기서 사니까 그때 이북정치 받았지요.

- 학교 다닐 때요, 특별한 거 없었나요?

학교 다닐 때 뭐 특별한 게 있었냐면 지금 저 해장아리라고 있지요. 뭐라 그래 그전에 해장아리라고 전부 그걸 심었어요. 그걸 왜 그러냐 하면 그 기름을 내어 가지고 어떻게 비행기 기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해장아리요?

지금 뭐 둥그런 거.

- 해바라기?

해바라기. 그걸 아주 대량으로 심었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대량으로 심고, 또 나무 소나무. 소나무도 기름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린 소나무 기름까지는 안 냈지만은, 그거는 많이 심었어요. 그 해바라기 많이 심고.

- 학생들 시켜서 심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8.15해방되기 전에 일본이 그야말로 망할 때 되니까. 그때는 학교 가서 공부보다도 방공호 파놓고서는 비행기 뜨는 인제 옛날에 인제 군수개요<sup>39)</sup> 하게 되면 비행기 뜨고. 군수개요하면 방공호 들어가서 눈 막고 귀 막고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 군수개요가 뭐예요?

그러니까 인제 비행기. 비행기 공습한다고 그 소릴 지르면은 방공호 들어가서 이 저 손으로다가 양손으로다가 눈 막고 귀 막고 인제 그 고막 터진다고, 매일 그게 하루의 8시간이라면 매시간씩 그게 반복이 됐었어요. 그러다 해방됐죠 뭐. 그러다 8.15해방되고 여긴 38이북이니까 인제 그때부터 인민통치 받았어요.

- 공출은 어땠어요?

아휴, 옛날에 공출은 삼칠제라 그러죠. 가들은 그걸 취득세라 그랬어요. 취득세라 해놓고선 가들 말로는 삼칠제라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면 평균 논이

---

39) 군수개요는 정확은 뜻은 모르나 구술자의 구술내용에 의하면 비행기 공습에 대비한 일종의 훈련구호로 볼 수 있다.

인제 벼가. 그때만 해도 벼가 잘 안 됐어요. 비료가 없기 때문에 퇴비나 놓고 해서 벼를 심고 그랬는데. 평균된 자리 가서 비어가지고 그걸 훑어가지고 그 걸 계산해서 삼칠제로 환산해서 그 순서를 내보내는데. 거의 반이 더 반아가 다 시피 했어요. 그리고 일단 벼뿐이 아니에요 콩 감자 곡식이란 건 다 했어요. 감자도 그렇게 하면 양이 많으니까 감자를 썰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렇게 취득세를 하고 그랬어요. 감자는 저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려가지고 썰어가지고 썬 걸 키로(kg) 수를 달아가지고 말리면 얼마 나온다는 게 가들 계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썰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것도 또 그렇게 또 매상하고.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은 저 왜 인민공화국이라 해서 다 공동으로 똑 같이 살게 만든다 해가지고 논이 많은 사람은 뺏았어요.

- 인민공화국 가기 전예요 일제 때 끌려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대동아전쟁<sup>40)</sup> 때? 많죠. 많았어요. 못 온 사람도 많고.

- 이 동네도 그랬어요?

네, 많았어요.

- 어떻게 됐어요?

전부다 소식 없죠, 뭐. 간 사람들은.

- 어떤 분들이 다 끌려갔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 나이가 한.

다 젊은 사람인데 대략 그때 끌려간 사람들은 일본 구급대<sup>41)</sup>로 갔었어요. 군인으로 가서 한편으로 노무자도하고, 노무자 일하는 사람. 그리고 젊고 빠릿 빠릿한 사람은 군대 가고 그래가지고 많이 안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었죠 뭐. 소식도 없고.

- 그 다음에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 여자들 끌려가고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40)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과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태평양 전쟁'을 일본에서 이르던 말이다.

41) 구급대는 보급대를 일컫는 말인 것 같다.

여기서 여자들은 어려서도 그건 못 들었어요. 남자들만.

- 망할 때 그 상황은요?

일본 망할 때요. 일본 망할 때는 우리 인제 학교 가면 군수개요 하면 방공호가 서 피난하는 거 거의 그거만 받고, 가들은 망할 때 그래도 마초<sup>42)</sup>는 많이 베었어요. 말한테 먹이는 풀 있죠? 그걸 많이 베었어요. 그걸 호당으로 베어가지고 말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망할 때 되니까요. 가들도 바짝 쇠불이 걷어가지고, 그리고 얼마 안가서 해방됐어요.

- 쇠불이요? 다 걷어요?

다 걷어요.

- 어떻게 걸었어요?

뭐 집집이 호당 얼마. 뭐 왜 저 옛날엔 밥주발은 낫주발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수저도 낫숫갈로 하고, 그러면 한 집이 얼마 얼마 호당으로 나와 가주곤요. 거의 다 걷다시피 했어요. 낫주발은. 옛날 그 낫주발은 이 저 밥 풀 때도 그 낫주걱도 그 낫그릇도 다 그리로 했는데 거의 전부 걷다시피 했어요. 탄피 만든대요. 총 탄피 만든다고 많이 걷고, 그 나머지는 해방되고 또 이북 아들 또 걷고.

- 해방 딱 되면서 일본인들 다 철수했나요?

다 철수했어요.

- 혼란 같은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해방될 때는 가들이 먼저 알고 이런데서 만일에 있었으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고통 받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 알고 다 간 거예요. 피난을.

- 일제 앞잡이들도?

일제 앞잡이들도 다 여기서 그때 도망가고 그랬어요. 원래는 언제나 그 앞잡이들이 더 악질이었어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조선 사람들은 일본

---

42) 마초(馬草)는 말에게 먹이는 풀과 남자다움을 지나치게 과시하거나 우월하게 여기는 남자를 일컫는 표현이다. 여기서는 말에게 먹이는 건초를 말한다.

사람 앞잡이 하는 사람이 더 악질이에요. 일본놈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으면 다 맞아죽지요. 그거야. 그러니까 벌써 집집이 해서 다 내뺐어요. 그때 여기는 38이북이잖아요. 벌써 도망가고 이쪽은 소련군이 나왔어요. 소련군이 나와 가지고 인제 그 38선까지는 소련군이 나오고, 저쪽엔 미군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벌써 이 악질들은 다 이남으로 갔어요. 남한으로 그때 여기 이남이라 하고 이북이라 하는데 그때 삼팔선 넘어서 다 넘어갔어요.

- 삼팔선이 그어질 때 그때 상황은 어땠어요?

그땐 나이 어려서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삼팔선 그어질 때는 소련군이 나와서 그었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우리는 그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소련군이 나오고 저쪽에서는 미군이 들어와서 딱 만난 자리에 삼팔선을 그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제에 거기 38교(橋) 있잖아요. 그리고 양양 그쪽에도 삼팔 선 있잖아요. 그렇게.

- 인민군들이 와서 통치를 어떻게 했어요?

이북아들요. 이북아들은 맨 처음에 통치는 잘 알겠지만, 거 통치라는 거는 그 무조건 독재 아니에요. 그런데 다 소련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왜 전부다 동무<sup>43)</sup>라 그래요. 다 동무, 동무 하는데 뭘 얘기가 또 있었냐면 이 부락에는 그런 사실은 없는데 다른 부락에서는 그랬다고 그래요. 동무 동무하니까는 남녀평등권법령이라고 가들은 냈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남녀평등권법령을 내어 가지고 남자와 여자 구별 없이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 며느리가 밥을 하는데 늦게 했는데 시아버지가 잔소리를 했대요. “야, 밥을 빨리 좀 가져와야 먹고 일을 가는데 왜 밥을 이렇게 늦게 했느냐.”하니깐. 며느리 하는 말이 “아버지 동무, 남녀평등권법령을 모르겠소. 내가 마땅치 않으면 아버지동무가 지으시오.”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부모로써

43) 동무는 원래 친구 등의 여러 뜻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북한에서 남을 부를 때 붙이는 일종의 호칭을 말한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쓰였지만, 북한에서 그렇게 씀으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친구로 바뀌었다.

그걸 들으니까 너무도 화도 나도 참 우습기도 하고 저걸 내가 며느리를 혼을 내키고 길을 들여야겠다고 해서 뭘 얘기를 했냐 하면 “동무 그러면 오늘 나랑 나무하러 갑시다.” 아무리 여자가 젊고 힘이 세도 남자들한테 되겠냐 못 배기지. 나무 한 짐을 해가지고 오니까 아주 뒤따라서 그 미쳤지 않아요. 남자를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쫓아오더라고요. 쫓아온 걸, 또 가자 그랬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끌려가서 또 한 번 해가지고 오니까. 아주 땀에 뭉에 옷에 하여튼 여자가 다 범벅을 했대요. 그렇게 온 걸 아버지가 뭐라 했냐하면 “며느리 동무, 그렇게 해서 과업을 완수 하겠냐고. 김일성 장군님 밑에서 그렇게 일해가지고 과업을 완수하겠냐고.” 그렇게 하니까 며느리 하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잘못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그런 유래도 있어요. 그런 말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해방되고는 이 일본시대 때보다도 더 고통 받았어요. 일본시대 때는 그래도 그 산에 칩 파먹는 사람 거의 드물었어요. 가들이 배급주고 하는 바람에 거의 드물었는데, 해방되고는 이 가금산에 이 앞에 소나무 칩뿌리가 없었어요. 다 파먹고. 여기서 한 5년 동안 이북정치 받았지요.

- 그때 이북정치 받을 때 토지개혁 같은 거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토지개혁은 없는 사람들. 그 집의 노력을 봐가지고 가들은 뭐 인제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를 노력동원이라 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로일 거예요. 그 집의 논을 봐가지고 그 논 많은 사람은 우리가 1,200평이었어요. 2,000평만 있으면 1,000평 잘려 나가야돼요. 그래서 한 집에 1,000평 계산을 하고, 이 시골엔 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인제 거의 2,000평되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주었어요. 없는 사람주고. 그렇게 하고 뭐. 하여튼 저. 여기서 비료 없고 하니까 봄에라도 소밭 거름하고 또 이 풀 비어가지고 비료 하는 데 지금 수확에 대면요 3분의 1도 못 났어요.

- 비료가 없으니까.

비료가 없으니까 3분의 1도 못 났어요. 옛날에 쌀 10가마라 그러면 그 집을 부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쌀 열가마니라 하면 아이 이름이에요. 지금 여기서.

- 인민위원회? 그건 뭘 한 거예요?

인민위원회라는 거는 지금 그 부락에, 부락에 인민위원회라고 이제 지금 이 장이라잖아요. 인민위원장이 이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인민위원회하면 부락. 가들은 이 단체생활이니까. 인민위원회하면 부락 전체가 딱 집결, 거 뭐 인민위원장 말이라면 다 복종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들은 또 그 게 많잖아요. 세포란 것도 있어요. 세포란 건 가들은 세포는 당원들이 그 조직을 세포라 그랬어요.

- 당원조직을 세포라했어?

예. 거기에 또 세포위원장이 있어요. 그건 또 당에 위원장 있고. 노동당. 세포란 게 있었고 또 민청이라고 있어요, 민청. 또 여맹이라고 있고. 그러니까 여맹은 여자. 여자들 또 여맹위원장이라 하고 뭐. 가들은 여기 살 때는 보통 닷 세에 한 번씩은 아마 회의가 있었어요. 닷 세에 한번씩은. 그러니까 가들이야 강하죠. 지금 애들 보면 가들은 참 강했어요. 여맹도 그렇고 전체가. 처음에 가들이 인민군대 나갈 때는요. 이 부락에서 한 7명 8명 나오잖아요, 영장이. 나와서 가면은 합격된 사람이 2,3사람밖에 없었어요. 인민군대 가는데요. 다 불합격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곤 좀 똥똥하고 배우고, 뚝뚝한 놈은 합격이 되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다 빠꾸예요. 다 빠꾸해서 오고.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인민군대는 전투도 안하고 후방에서 후방만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저 전방에서 싸운 사람들은 38보안대<sup>44)</sup>라고 있어요. 인민군 애들은 줄이 빨간 줄이고 38보안대는 파란 줄이었어요. 이 줄도 바짓줄도 소대장들은 빨간 줄 내려가잖아요. 가들은 파란 줄이에요, 38보안대는. 38보안대만 전투하고, 인민군들은 전투를 안 한다 해가지고, 그게 훈련돼가지고 모집된 인민군이 6.25때 나온 거예요. 그때. 그런데 처음 뽑을 땐 뚝뚝한 애들 뽑았어요. 그런데 나중엔 뭐 막 뽑았죠. 나도 인민군대 갈 뻔했어요. 그때 16살인데 그제 17살 되던 해인데 전부 나오래요. 전부 나가니까 가들은 정치보위

44) 38보안대는 남북을 가른 38선에서 전투를 하고 경계를 서던 북한군의 일종이었다.

부란 게 있어요. 정치보위부란 건 우리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저 보안 대나 이런 헌병대 같은 기관이에요. 가들은 정치보위부는 민간인이고 군인이고 가는데 뭐든 다 조사를 해요. 다 조사를 해요. 그래 우리 친구들이 여기 여섯인가 일곱 됐네. 전부다 모였는데. 그때 여기 12사가 왔어요. 인민군. 12사가 와 가지고. 그땐 여기서 막 전투할 때예요. 그렇게 모이니까. 맨 처음 나올 때 우리 부친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하든 빠지라고. 네가 거기 가면 붙들려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인민군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여튼 거짓말 하더라도 빠지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그렇게 하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쪽 앉았는데. 정치보위부장이란 게 가들은 이게 소대장은 금줄이 하나지만 옆 금은 줄이 두 개가 가요. 완장에 금줄이. 이 두 개에 무궁화도 두 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중령급 되죠. 또 가들은 별이니까 소성, 중성 뭐 그러는데, 보니까 중성이더라고. 그러니까 여(?)급이에요. 딱 권총차고 딱 서더니 정치보위부장이라 그래요. 그러더니 뭘 얘길 하나하면,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얼마 있으면 적화통일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동무들도 같이 합심해서 적화통일을 해야 된대요.

-남한을요?

예, 적화통일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맨 처음엔 아주 신사적으로 얘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민군대 아주 신사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갈 사람 손을 들래요. 그러니 한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우리가 친군데.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드니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나가니까. 가들은 국군한테 뺏은 칼빈인지 그 개머리 없는 칼빈들을 많이 가지도 다니더라고요. 나갔더니 그걸 아주 새 걸로 싹 갈아 입혔어요. 싹 갈아입히고. 거 칼빈총을 거꾸로 메켜서 앞에 딱 세워놓고. 동무들도 이런 동무가 돼야 된다고 그런 얘길 해요. 이런 동무가 돼야 하는데. 그래 동무들도 가야한대요. 그래 우린 가면 죽는 판인데. 그때는 뭐 가면 죽는 판인데. 그래 우리는 간다는 소리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 동무들 밥 가져다주래요. 그때가 점심때가 됐거든요. 밥 갖다 주라고. 옛날에 여기서 소고기국이란 먹고 죽을래도 그건 소고기란 상

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소고기 국 한 그릇하고 밥 한 그릇을, 그 전에 우리가 가져다주기 전에. 그 사람은 이런 동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의자에 앉혀서 소고기국하고, 옛날에는 쌀밥을 이밥이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참 쌀밥을 갖다주고 소고기국하고 가져다주고 그 사람한테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이 앉아서 그걸 먹는데. 이 동무들도 가져다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앞에 한 그릇씩 딱 받았는데, 아주 환장하죠. 냄새 술술 들어오는데. 그러더니 숟가락 들래요. 그래 숟가락 들고 있으니 먹지는 말래요. 숟가락만 들고. 그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 한 사람씩 다짐을 받는 거예요. 나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동무 가겠소, 못가겠소.”하니까. “전 못합니다.” “왜 못가냐.”고 그러니까 “나는 어제 스케이트 타다가 자빠져 가지고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해서 못가겠습니다.” 하니까. 숟가락 내려놓고 나오라 그러더라고. 밥을 먹지 말고. 아 그러더니 한 놈이 그 사람이 이제 나랑 한 동갑인데 여기 있다가 죽었는데요. 그 사람이 제 차례 오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난 안 갈 테니까 너희끼리 가라” 그러면서 빠지면서 나왔더라고요. 하하, 그러니 어이가 없어서 보고 웃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온 거예요, 또. 그래 날보고 “동무 가겠소, 못가겠소?”하니. “못합니다” 했어요. 그래 “왜 못가겠냐.”고. 그래서 “나는 밤에 자다가 오줌을 싸서 못합니다.”했더니. 그랬더니 숟갈 놓고 이쪽에 나왔으래요. 그래서 숟갈 놓고 이쪽에 나왔으니까. 전부 다 뭐 별, 그것들 데려다 뭘 전쟁을 해요. 그거를. 전부다 이 뭐 별놈의 핑계를 다 대면서 못 간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길 하나면 지금은 봐 준대요. 동무들 조금 더 있다가 내년쯤 한 살씩 더 먹었을 땐 동무들도 가야한대요. 하나하나 빠지게 되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냐고. 그러니까 전부해서 남을 적화통일을 해야 한대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어떤 때 우수개소리로 그 얘길 하는데 갸들 머리 사상하고. 저도 군대를 갔다 왔어요.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사상적으로 갸들하고 우리 남한 군인하고 벌써 하늘과 땅이에요.

- 어떻게 다라요?

갸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지 죽는 건 겁나지 않는대요. 지가 과연 죽으



면 지가 남자구실을 못하고 한 사람만 죽이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임무는 완수한대요. 뭐라 하나면 가들은 국군 뭐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국방군 아들 전쟁하다 한 둘만 죽으면 도망하는 것이 국방군이라고, 가들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들은 구호가 뭐냐 하면, 한 사람만 죽이고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임무는 완수한대요. 그러니까 지 죽으면 슬퍼하지도 말고 그러래요. 지가 하나 죽음으로서 이 나라가 성장한다고. 가들은 구호가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국군이야 아 누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나 살기 바쁘죠. 그런데 6.25때 그 후에 사변 때 전쟁 당시 여기 그 당시에 인민군아들도. 하루는 인민군 하루는 국군이예요. 그 때만해도 그러니 여기 휴전선을 딱 막아놓으니까 패잔병들이 여기 설악산에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 안에 들어가니까 여럿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 따러 들어간다고. 여럿이 들어갔는데. 아 공비 나왔다고. 그때는 공비라 해요. 그 이북하고는 반대예요. 나와 가지고 국군통치를 받으니까 또 가들이 무서운 거예요. 반대로. 그전엔 국군이 무서웠는데. 그래 도망을 해 내려오다 보니까. 나도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잘 뛰었어요. 그래 내뒤다보니 뒤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는데 조용해요. 보니까 갈빈총을 나한테다 겨누더라고요. 쏠라고. 그래서 얼른 손들었지요 뭐. 그냥 갈리려고 하니까. 얼른 손드니까, 오래요. 그래 가니까 국군들 들어왔는지 한 달도 채 안됐는데 맘이 그렇게 변했냐고 해요. 그러더니 너들은 총알이 아까워서 대검 맛을 보래요. 하여튼 올라갔어요. 그래 그 위에 올라가니까 한 사람 또 쫓아내려왔어요. 그러더니 너 칼 대검 맛 좀 보래요. 그래서 '이젠 죽었구나.'하고서 올라가면서 뛰려고 하니까. 또 뛰래야 뭘 수가 없어요. 뒤에 바짝 붙어있으니. 그래 가니까 하여튼 머리가 이렇게 길고 통통한 사람이 가니까 뭐라 하나면, 야 너들 참 불쌍하대요. 지금 공부 한참 할 나이에 공부 못하고 참 피난만 다니고 너희들이 참 안타깝고 불쌍하대요. 그렇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6개월 전에 다시 온대요. 여기 다시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어떻게 하든지 살래요. 살고. 아 그 말 들으니까 뭐 죽이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랬죠. 아이고, 군관동무 그때는 뭐 군관동무라 그랬거든요. 군관동지. 너무

도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네가 여기 노인들도 많이 드나들었지만 더 잘 알아요. 여기 지리를. 지도를 톡 내놓고 먼저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마도 장성급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그렇게 우리를 애기하더라고요. 불쌍하다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나하면 내려가서 신고를 하래요. 그래서 인제 노인들이 “우리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우릴 보고 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 비밀이 있다고 이 순간을 누가 또 애길 해도 한다고 인민군 봤다고 공비 봤다고 애길 하니까, 가서 무조건 신고를 하래요. 신고를 해야 살지 그러지 않으면 또 국군한테 죽으니까 신고를 하래요. 내려가서 신고할 동안에 우린 천리를 간대요. 그렇게 하고 내려가서 여기 현병초소를 턴대요. 현병들을 털어가지고 전방으로 해서 넘어 간대요. 그러니 우리가 쫓겨 내려와 가지고 인제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하니까. 여기 국군이 저 수색중대라고 있는 대요. 개미와 새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북아들하고 차이가 나요. 거기를 못 들어가고요. 여기서 총만 대고 쏘는 거예요, 여기서. 겁이 나니까. 여기서 지금 이 골짜기 있잖아요.

- 아니오니<sup>45)</sup> 골짜기요?

거기 앞 골짜구니. 거기다 대고 총만 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거기 조금도

---

45) 아니오니는 용대리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이곳에 김부자가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면 잡아서 일을 시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서 한 번 들어가면 아니온다고 해서 ‘아니오니’라는 명칭이 생긴 것이다. 설화는 이렇다. 이곳에는 ‘김부자터’와 ‘너래비’라는 지명이 있다. 옛날 아니오니 골짜기에는 ‘김부자터’에 김 부자가 감자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곳은 워낙 높은 지대라 감자 이외에는 농사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김 부자는 산적이나 마찬가지여서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강제로 잡아서 농사를 시켰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다가 김 부자에게 발각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도 아니오는 구나.”라고 해서 그곳의 지명을 그렇게 불렀다. 한편 김부자터의 반대편 ‘너래비’에는 황 부자가 살고 있었다. 황부자는 메밀을 주로 심었다. 메밀농사를 아주 많이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김 부자와 황 부자가 만나서 술을 한 잔 하고 말씨름을 하였다. 그때 황 부자가 “내가 농사한 메밀로 국수를 만들면 국수가락이 끊어지지 않고 서울의 한강까지 간다.”고 했다. 그러자 김 부자는 그에 질세라. “내가 지은 감자의 녹말가루를 풀면 서울의 한강까지 녹말가루로 하얗게 덮인다.”고 하였다. 워낙 김 부자와 황 부자는 큰 농사를 짓고 있어서 서로 자신들의 부를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곳에 가면 아직도 아니오니의 유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구전을 하고 있다. 현재 아니오니에는 산제당이 있어서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학주, 『인제 사람들의 마음 신앙』, 인제문화원, 2010. 참고)

예, 중대를 만든 거예요. 이북 들어가려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중대를 만들었는데 국군이 왔다 하나까 그 사람들이 여길 온 거예요. 와가지고 백골부대하고 전투를 하는데 벌써 그 사람들이 척후병이. 나중에 그 얘길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또 그때 주민회의 있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알았냐하니까. 여기 신고를 해서 알고, 여기 척후병이 들어 딱 들어와 보니까. 다섯 집 마당에서 국군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놀더라고. 딱 돌아서보니까. 그 뒤에 보초들이 평상을 놓고 이렇게 자더라고. 그래서 나뉘가지고. 자는 거야 뭐 총 들고서는 손들려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보초 둘 자는 걸 그대로 잡아놓고 아주 여기 삼각형으로 포위 쥘은 거예요. 대문으로 싸우려고 나오는 걸 그 통로 통로에도 싸고. 그러가지고 이쪽에서 내려 갈기니까. 그때가 우리가 급해가지고요, 어디 대낮에 수류탄 광광 떨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엌바닥에 가서 엎드려 있는데 뭐. 옛날에는 이 뭐 흙으로다 벽을 했잖아요. 아주 부엌이라고 먼지가 뽀애 가지고 부엌 바닥에 들어가 엎드려 있다가 또 아궁이에 들어가 있다가 또 비행기가 공습을 해서 마루 밑으로 인제 들어가 있는데. 전투를 하는데 한 30분하더라고요. 전투를. 그러더니 이북 아들이 그때 돌격 앞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쿵덕쿵덕하며 난리예요. 그래 나가보니까 진짜 한 번 보지 두 번은 못 보겠대요. 그래 우리도 총 막, 쑥 들어가 있으니까. 안 나오면 쏜대요. 그래서 여기는 민간인이라 그러니. 빨리 나오래요. 그래 나가니까. 거기 또 누가 있냐고 하니, 없다고 하니. 벌써 나가보니까요. 지금 그 저 식당 앞에 다리 이쪽으로 벌써 시체가 너더분해요.

-백골부대 사람들이.

예, 벌써 죽은 게. 벌써 너더분해요. 그리고 그쪽으로 뭐 뛰는 거 같기 시작하는데 뭐. 막 내 갈기고 그다음엔. 그 쪽으로도 포위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30,40명 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리니까 날보고 뒷문으로 나오래요. 그땐 말 한 마디, 가들 죽이는 건요. 그건 뭐 파리 목숨만도 못해요. 그때는. 총이 여섯 자루를 지니까 아주 한 짐 돼요. 그러가지고 저 아래 쭈 가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어디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

들어가지도 못하고. 백담사 골짜기 있어요, 국립공원.

- 백담사 골짜기, 국립공원 예, 예

거기다 대고 총만 쏘더라고요.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그 이틀날 낮이 되니까 헌병초소를 털었더라고요. 총 다 뺏기고 식량 다 뺏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가들은 갔어요. 그러니 지금은 그래서 어떤데 이렇게 보던 요. 그때 여기 와서 간첩 그 강릉 잠수함 간첩<sup>46)</sup> 나와서 여기서 죽은 사람들 봐도 그 사람들 둘이서 몇이나 죽었어요. 여럿 죽었잖아요. 기무사 대령이 막 죽고 뭐 하여튼 많이 죽었잖아요. 가들은 그렇게 강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휴전당시에는 인민군아들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전에 국방군하고. 가들은 국군이라 안 그러고 국방군이라고 그래요. 옛날 국방군하고 지금 국방군하고 많이 달랐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때는 여기 이북이니까. 우리가 “국방군에들도 전투 잘해요?”라고 물으니까. 같은 다 조선 사람이니까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북아들 여기 설악산 전투에서 많이 망했어요, 아주 12사단 11사단도 아주 여기서 녹았는데요 뭐. 그리고 여기 국립공원사무실 이쪽에 식당 있는 데서도 여기 백골부대 일개 중대가 다 녹고.

- 백골부대가 뭐예요?

그 백골부대 그때 그전에 국군들도 참 지금만 해도. 여기, 여기 집이 지금 국립공원 다리 이쪽에 다섯 집 있었거든요. 그런데 백골부대가 강릉에서 들어온 게 일개 중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마크 보니까 백골, 사람의 백골을 그렸더라고요. 해골. 그런데 일개 중대가 거기 다섯 집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 남의 제사 지내려고 저 막걸리 해놓은 거 그거 퍼먹고, 거개서 남의 벌통 뒤져가지고 꿀 파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꿀에 취해서 자빠지고 드러누워 있고, 또 술에 취해서 또 드러누워 있고. 이젠 안 그러겠지. 보초를 밖에다가 두 사람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서 그 사람들 꿀에 취해서 막 뭐 쓰러져 자

46)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은 1996년 9월 14일에 북한의 잠수함이 북한에서 출항에서 17일 강릉에서 좌초하여 육지에 상륙하여 1996년 10월 5일 인제군 용대리 야산에서 정찰조 2명을 사살하기까지 있었던 납과간첩 사건이었다.

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도 젊은 여자들 데려다가 축음기 들고 춤추고 놀았어요. 두드리고.

- 술취해가지고?

그럼요. 여기 38이북이에요. 그리고 두드리고 놀고 그러니 뭐. 이북에 여기에 적진지 들어와서 그게 할 것이냐고요. 그래 술취해가지고 막 두드리고 놀고 막 그럴 때. 여기서도 또 당원 있거든요. 당원이 저기 저 아래 가들이 패잔병이 모아가지고 일개 중대가 됐다 그래요. 우린 몰랐어요. 거기 있는지도. 거기에 신고해가지고 가들 일개 중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벌써 여러 면에서 아군이냐 뒤 떨어졌지요. 가들은 이래 보니까 거의 장교가 반이에요. 일개 중대라도. 패잔병 모은 부대니까. 그리고 그 부대에 대장 보니까 이 무궁화가 서이더라고요. 아, 계급장 붙이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서 전투가 따로 붙었는데.

- 패잔병들이 모여서 중대를 만든 거예요?

셋 자루를 지고서 거기까지 갔다가 인제 올라왔지요.

- 총 여섯 자루를 지고 간 거예요?

예, 국군한테 뺏은 거. 거 국군한테 뺏은 총 여섯 자루를 지고 거길 가니까. 그게 거기서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 돌려주고 오려니까. 어떤 사람들은 옷을 싹 뺏긴 거예요. 신발이고 뭐고 싹 뺏겼어요.

- 그 인민군들이요?

예, 가들이 옷이고 신발이 없잖아요. 그 6.25 그때 후퇴 당시에는. 이 아군이 죽은 것도요, 이 팬티하고 넝구밖에 없어요, 입은 것은.

- 아군 죽은 사람들이요?

예, 싹 뺏긴 거예요. 옷은 신발이고 뭐고. 싹 뺏겼는데.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묻고 인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런데 여긴 38이북이니까. 또 국군 나온다고 피난가라고 그래서 나중에 피난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 묻은 자리. 그때 여우가 막 봤더라고요. 여우가. 그때 나가보니까 여우가 막 파던데 그걸 보니 참 안됐더라고요. 그때 남들 몰래. 그때 모래자루에다, 모래자루에다 막 넣었어요. 그런데 도로 판 걸 내가 흙으로다 해서 막 이렇게 묻었어요.

그랬는데. 그 후로 또 피난가라 그러더라고요. 이북아들이. 그러니 그때 피난 갔으면 이북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 어르신들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제 가면 먹을 것도 없고, 이젠 가면 다 죽으니까 아무데 그냥 골짜기 들어가서, 아무데서 우리 그렇게 피난하자 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 골짜기 딱 들어가서 있더라니까. 그때 국군들이 왔더라고요. 그래 국군이 와서 그때부터 남한정치를 받았어요.

- 그때 그러면 수복된 거예요?

그 땐 수복이 안 됐고. 그땐 여기 공비들 막 내려올 때예요.

- 그럼 왔다 갔다 막 할 때네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여기 뭐 공비들 때문에. 그때는 국군들 들어오면 무섭지. 그전엔 국군이 무서웠는데 그 이후론 인민군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다니다가 저 너머 피난을 가서 거기서도 한 5년 있다가 다시 그 다음에 수복돼서 그 다음에 여기를 왔거든요. 그래 여기와 있다가 나도 인제 군대 갔다가 그렇게 하고선 한 삼년동안 군대 생활했어요.

- 그땐 어르신은 그러면 민청 같은데 안 들었어요?

민청 뭐 한테는 나이 적어서 못했지요.

- 몇 살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 18세 이상은 돼야했어요. 한 18세 이상 됐어요.

- 민청 말고 다른 조직은 없었어요?

없어요. 한청<sup>47)</sup>이라고. 한청.

- 한청은 뭐예요?

청년들. 인민군 뽑을 때 한청에서 뽑은 거예요.

- 인민군을 한청에서 뽑아요?

예, 그게 다 젊은 사람들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 집단. 그러니까 가들은 한청회의다 민청회의다 여맹 회의다. 하여튼 오일에 한 번씩은, 오일에

---

47) 여기서 말하는 한청은 이승만 대통령이 결성했던 38선 이남의 한청 곧, 대한청년단하고는 다른 것이다.

한 번도 넘어, 어쩔 땐 3,4일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해요.

- 소년단은 없었어요?

소년단, 그때는 그런 소년단 같은 거는 없었어요.

- 그때 토지 있잖아요. 지주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주들, 지주들은 뭐 많은 사람들은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주고. 가들은 뭐라고 하나 하면 자기 땅이 아니란 거예요. 정부 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뺏아서 없는 사람주고. 그러니까 노동력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2,000평 이상은 안줬어요. 아, 아니 1,000평 이상은 안 줬어요. 1,000평 미만으로. 만약 그전에 여기 3,000평 5,000평 가진 사람들은 몰수해서 내쫓았어요. 다 뺏고. 하여튼 전부 다 해서 내쫓았어요. 이남으로. 그러니까 어지간히 2,000평까지는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주고 가들은 토지개혁이라 했죠.

- 몇 번 했어요? 토지개혁을?

한 번 한 걸로 알아요. 한 번에 다 완전히 했을 거예요.

- 친일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들은 친일파란 거 뭐 인제 친일파 타도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긴 뭐 친일파는 없었거든요. 여기는 뭐 남한정치 받지도 않고 바로 찢라 가지고. 그러니까 친일파란 건. 이 노인들을 많이 했어요.<sup>48)</sup> 노인들은 그때 당시에 모여서 남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정치엔 못산다. 어떻게 하든지 남한정치를 받아야지 이 정치엔 못산다, 그리고 우리 부친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이 정치는 언젠가는 망하는 정치다. ‘아버지 동무 어머니 동무’가 이게 이게 나라냐. 언젠든 망하고. 새 정치, 이남. 새 정치 받을 때 너희들 좋을 때가 한 번 나올 거라고 항시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 지금 좀 좋아요. 먹을 거도 뭐 먹기 싫어서 못 먹고. 사실 옛 노인들 말한 게 지금 딱 맞아요.

- 아버님도 어머님도 6.25 다 같이 겪으셨네요?

우리 어머니는 왜정 때 돌아가셨어요. 왜정 때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저

---

48) 구술자가 여기서 친일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열일곱 살에 돌아가셨어요. 열일곱 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쉰일곱에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 그러니 어르신 열일곱에 아버지가 쉰일곱이었네요?

예. 쉰일곱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쉰일곱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여기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도 오래 살았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도 얘기 하는 게 이 동네 전체로 인제군 전체로 아마 말해도 될 거예요. 내 나이 먹은 사람 없어요. 이 동네도 한 50호 거의 한 70호는 되겠네. 환갑 먹은 사람을 못 봤어요. 그 당시에. 환갑 먹기 전에 다 죽고. 글썄 우리 부친이 57세에 돌아가셨을 때 많이 살았다 했으니까요.

- 그때 전쟁 통이었잖아요?

그때 우리 부친은 이 전쟁 통에.

- 인민통치 받을 때?

인민통치 받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열병이라고 있지요. 그걸 염병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 병 앓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어떤 집은 문 닫았어요.<sup>49)</sup>

- 대가 끊겼네요?

대가 다 끊기고.

- 그 병은 정확히 무슨 병이에요?

열병이라고. 염병이라고. 그거 걸리면은 그때 당시 걸리면. 바람만 쐬다 하면 죽어요. 10사람이 염병하면, 이 병 관리를 잘 하면은 10사람에 한 7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고 바람 쐬면 10에 잘 살아야 2,3정도 밖에 못살아요. 다 죽고. 그런데 우리 부친도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 지금 그 이복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저 서화리. 처음 피난가라고 그래서 병에 걸린 거를 업고 그래가지고.

- 처음에 서화리로 피난 가셨어요?

예, 처음에.

---

49) '문 닫았다'는 표현은 후손이 없이 모두 죽은 것을 말한다. 곧, 더 이상 후손이 번창하지 못하고 자손의 대가 끊긴 것이다.



- 여기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요. 이북아들이. 옛날엔 부자지간이라도 서로 말 안 해요.

- 왜요?

사상적으로 사상이.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도 내가 지금 후회되는 게 우리만 가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우리 늙은이 국군 들어와야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나 죽이겠느냐. 그러니 난 골짜기 들어가서 있어야지 난 피난 가면 죽는다고 안 갈려고 하는데. 안 가면 반동분자로 몰리는 거예요. 이북아들한테. 그래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업고라도 가자고, 그래서 저 서화리 가전리<sup>50)</sup>라고 있어요, 가전리. 그 꼭대기 가있다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왔어요.

- 그럼 서화리에서 열방이 걸리신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걸려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조금 걸려서 거기서 들어가서 거기서 바람을 쐬고 그러는 바람에 거기서 돌아가셔가지고 거기다 모시고. 그렇게 하고 나와 가지고. 두 번째 가라 그랬을 때는 내가 안 갔어요. 그때 갔으면 이북사람 됐어요. 안 가고 산골짜기에 있다가 국군들 들어오는 바람에.

- 1.4후퇴 때문가요? 그러면.

그렇죠. 1.4후퇴 때지요.

- 그때 또 가라 그런 거예요?

또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 그때는 안 갔더니 그때 갔으면 뭐 그때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간 사람들은 지금 소식이 없지요. 다 죽었지요 뭐. 이젠.

- 아예 소식이 없어요?

예, 아예 소식이 없어요.

- 그럼 이산가족도 되게 많겠네요?

여기 사람들은 다 죽고 문 닫은 집도 많고 실은 그래요.

- 그럼 나중에 국군이 들어와서 수복이 됐잖아요. 수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통치가

---

50)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와 가전리를 말한다.

어땠어요?

국군들 들어오고요. 통치 자유대로 했지요. 자유지요. 근데 국군들은 전투나 하고 국군들은 그러고. 우리는 우리대로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하고 막 그랬죠 뭐.

- 전쟁 통에도요?

그렇지요 뭐.

- 인민군들 들어와서 토지를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국군들 들어와서는요?

국군들 들어와서는 자기 땅 자기가 다 찾은 거죠 뭐.

- 원래 그대로요?

예, 그렇지요 뭐. 자기 땅 자기가 다 찾아가지고 등기내고. 그거는 부락사람 다 인정하니까. 저사람 누구 땅이고 누구 땅이고 하는 거를 그거 다 인정하니까. 그러고요. 또 남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요. 한 1,000평 받으면 그거 가지고 식생활 안됐잖아요. 다섯 여섯 식구가.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이란 게 있었어요. 글로 많이 갔어요. 주로 경의선, 아오지탄광으로 다. 그렇게 분배받은 사람들은 한 1,000평씩 분배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로 갔어요. 그렇게 거기 간 사람들 또 소식 끊기고.

- 그 인민군들이 왔을 때 노동자 그런 사람들이 완장차고 지방 빨갱이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남하고 저쪽하고 달라가지고 38이북이잖아요. 여기는 벌써 이게 누가 누구다 하는 것을 완장은 안 찾어도 그 사람들이 중앙당의 세포위 원장이다 뭐 인민위원장이다 하는 것은 부락사람들이 아니까 같은 동네고 하니까 그래도 같은 부락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딛고 넘어갔죠.

- 그냥 무난히 넘어간 거네요?

예. 뭘 일이 있으면 미리 코치해주고, 미리 빼주고. 그런데 그렇게 또 지랄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저 앞에 뭐 지랄한 사람 다 죽고. 오히려 노인들한테 가서, 노인은 즉 반대거든요. 남한 정치 받고, 남한 얘기만 하고. 그러면은 그런 저 당원이래도 자기가 당에 그 했던 얘기를 노인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비밀로. 그러니까 이 난리 통에 이쪽은 내가 낫고. 국군이 들어오면 아저씨들이 나오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해서 의지하면서 살자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다 죽더라고요.

- 국군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다시 잡아서 죽인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 죽이기 전에 벌써 노인들이 막으니까 안 죽는데, 이 전투 하게 되면은 전부다 들고 뛰잖아요. 아이고, 거기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전투할 때. 전부다. 여기는 전투마당이에요 전부. 하루는 인민군 하루는 국군이예요. 그 바람에 다 죽었어요. 국군들 들어왔을 때 뛰니까 또 쏘죽이고. 그리고 또 인민군아들 들어오면 인민군들이 국군들한테 왜 또 붙었냐 하면 국군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만약 국군들 하고 뭐 얘기라도 하면 그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혀요. 국군들하고. 그러니까 안 잡히려고 내 뛰다 걸리면 국군들한테 죽고. 그러니 이래저래 하여튼 이래죽고 저래죽고 젊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나이 어린 여자들은 뭐 배겨 나는 줄 알아요. 젊은 여자들은, 또 인민군아들은 안 그래요, 국군아들 들어와서 뭐 조사 받는다고 뭐 강제로 끌고 가서 지랄들하고 그랬지.

- 성폭행 하고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 인민군들은 왜 안 그랬어요?

아이, 안 그래요. 가들은 안 그래요.

- 여자군인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뇨. 가들은 법이 엄해요. 가들은 그러면 총살이에요. 같이 여자남자 같이 자도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 건드리지 않아요?

아이고, 총살이에요. 가들은 절대 때리는 건 없어요. 가들은 인제 전부다 자기가 자아비판을 해요. 거 전부 있는 앞에서 내가 뭐에, 뭐에 해서 잘못했다는 걸 자기가 자아비판을 해요. 그것도 자아비판을 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것도 몇 차, 몇 차 해서 얼마 넘어가면 총살이에요.

- 죽여요. 가들은 때리지 않아도 국군보다 더 엄해요. 가들은. 이 여자남자 한 군데 자는 거 많이 봤어요. 자면서 아무 탈 없어요. 가들은.
- 국군이 들어와서 피해를 많이 줬군요?  
 국군들 들어오면 그때 아주 개판이라 그랬어요. 개판이라고. 지가 죽으면서도 그 지랄을 해. 아주 개판이라고.
- 죽으면서도 그래요?  
 아이, 여자들 하고 그 방에서 하다가 공비들 들어오면 그렇잖아.
- 공비들한테요?  
 예 예.
- 미군들도 들어왔잖아요?  
 미군들은 도로로 다니고 여기까지 개인집에 들어와서 그러진 않았어요. 미군들은. 도로로 차로나 다니고.
- 미군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1.4후퇴 때 피난가라고 안 그랬어요?  
 미군들은 안 그랬어요. 그 전에 피난가고 그러고 여기서 맨 처음에 여기서 이 북아들이 됐고. 두 번째도 이북아들이 됐고. 우리는 그때도 미군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안 갔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한정치 했어요.
- 소련사람도 봤을 거 아니에요?  
 많이 봤어요.
- 소련사람들 어땠어요?  
 아휴 지지분해요. 진짜 지지분해요. 아이고, 미국 사람들은 신사지요.
- 어떻게?  
 가들은 헐레발이라고 있어요. 빵. 이 베개만치 해요. 헐레발이라는 게.
- 베개만 한 거를요?  
 비고(베고) 자는데. 비고 자는데요. 가들은. 그걸 비고 자요. 그걸 잘라서 먹고. 아주 지지분해요. 가들은 이 죽 썬 먹을 때 이렇게 곁에 가보면 지랄하고. 이제 “로스께 헐레발이다오.”하면 이렇게 박스로 갖다 줘요. 이제. “로스께 헐레발이다오.” 그러면 음식을 줌 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죽을 췌 때 막 빼가

지고 쭉고. 이제 집게 있잖아요. 나무 이제 쭉서 넣고 부지깥이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쭉서 넣고 하는.

- 고무래?

고무래<sup>51)</sup>. 나무로 이렇게 된 거. 하필이면 그걸로 다 죽을 쭉고 지랄해요. 그리고 기름을 많이 넣어서 손에 묻잖아요, 옷에 닦아서 번들번들해요. 기름 묻어서. 아이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장교들은 깨끗해요. 장교들은 깨끗한데. 그런데 그때 당시 말로는 그놈들 이 영창에 있는 놈들 끌어 내와서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 소련군 애들 영창에 있는 애들을 데려와서요?

죄수들, 그런 애들 내보내서 왔다고 하는데. 아이고 미국아들은 아주 양반이고 신사지요. 한국 사람들 보다 더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소련아들은 먹는 것도 그렇고. 아이 생고등어를 막 먹더라고요. 빵하고. 그리고 빵 저기 비고 자다가 그걸 먹고 뭐. 하나하나 행동이요. 소련군은 그래도 여기서요. 그래도 몇 년 있었지요.

- 민간인들에게 피해 안 줬어요? 소련군은.

안 줬어요. 차로만 다녔어요.

- 가들도 자아비판해요?

글쎄 모르겠어요. 아, 그 정치가 그 정치인데 했겠죠, 뭐. 그리고 그때 소련은 스탈린, 스탈린 만세하고, 뭐 김일성 장군 만세 하고.

- 중공군은 어땠어요?

중공군은 여기 설악산 전투 때 중공군이 왔는데요, 그때 지금도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때 이 중국은 그때 말로는 “미국사람들 보고 네 총알이 모자르냐, 우리 인구가 모자르냐. 내기 한 번 해보자.”고. 이 설악산 전투에 들어가면 보통 일개 분대가 9명에서 12명이잖아요. 애네들은 12명이 가게 되면 총 4자루나 5자루예요.

---

51) 고무래는 부지깥이로 쓰는 나무로 된 ㄱ자나 T자 모양의 곱배팔이 물건을 말한다.

-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요?

다 총이 없어요. 그리고 반땅꼬<sup>52)</sup> 수류탄만 차고 가는 거예요. 전방에 가서 전투할 때 앞에는 총 가진 놈을 뒤로 한다 그래요. 앞에 놈이 죽으면 그 총을 하고, 또 죽으면 그 총 갖고 하고.

- 뒤에 사람이 받아서요?

예, 총 없는 놈이. 총 없는 놈이 많았어요. 이 반땅꼬 수류탄이라고 그 수류탄만 들고. 반땅꼬 수류탄이라고. 나무방망이를 이렇게 밑에 해서.

- 방망이처럼요?

예 예. 그런데 그 때만해도 중공군이 참 그랬는데.

- 팽과리 막 쳤다면서요?

피리불고. 팽과리 치고. 그런데 여기서 그런 전투하는 건 못 봤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 설악산 전투에서 많이 죽었어요. 그 총이 없는 게 뭐 버티나요. 그때 하여튼 설악산전투에도 많이 죽고 하여튼 중공군은 엄청 죽었어요. 그런데 이북아들은 전투할 때보면 참. 그때 일개 중대가 망할 때 우리가 죽은 거를 우리가 봤거든요. 얼마나 죽었나 봤거든요. 총 4명밖에 안 죽었어요.

- 4명밖에 안 죽었어요?

예, 너이 죽고, 다섯인가 부상당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총 맞은 사람이 그때 뭐 약이 있나 아무 것도 없을 때인데. 그래 그걸 보던 중대장이 자기 부하들에게 시켜 썩죽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부하들이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썩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한참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다음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다 죽었을 거예요. 뭐 약이 있나 뭐가 있나.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북아들 다 넷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야 국군들은 왜 국군이냐고 물으니까 이승만이가. 저저 왜 백골부대냐 그러니까. 이승만 씨가 백골이 되도록 싸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명칭을 백골부대라 했대요.

---

52) 반땅꼬는 중공군들이 가지고 다니던 수류탄을 구술자가 일컫는 말이다. 수류탄의 모양이 반은 쇠로 되어있고, 반은 손잡이나무로 되어있어서 부른 듯하다.

- 그 치안대라고 있었죠?

그건 남한에 있었죠.

- 여긴 없었고?

남한에 치안대란 게 있었죠. 아이고, 우리들. 우리들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 공민증 이런 것도 발급했다면서요?

그렇죠. 공민증은 다 있어요.

-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기 주민등록증이랑 비슷해요. 그거 공민증 없으면 어디. 그리고 어디 당길 때도 없어요. 여기서 원통을 가도 소를 사러 원통을 갔다 와도 하루 종일 걸리는 데요. 말이 공민증이죠. 여기서도 어디 나가면 조사하지. 모르는 사람들은. 같은 마을이라도 별의 별사람들이 다 오니까 조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망할 때가 되니까요. 설악산에 국군이 여러 번 왔다가 갔어요. 이 경비라는 게. 지금도 경비 세운다 하잖아요. 보초 세운다고. 한 300메다(미터)에 하나씩 경비 세우는 거예요.

- 삼백 메다(미터)에 하나씩요?

예, 그러니까 백담사에서부터 여기까지 300미터에 하나씩 세우는데. 그 인제 하나,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두 사람씩 하면 그 전에야 뭐 앉아서 신도 삼고. 신은 삼아야 신으니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백담사에서 국군이 오면은 한 사람 300미터씩은 뛰는 거는 빨리 뛰거든,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전달하면 그 사람이 또 300미터 뛰는 것은 또 빨리 뛰잖아요. 한 사람이 뛰자면 못 뛰지마는. 하나 앞에 300미터씩 뛰면 금방 뛰잖아요. 젊었으니까.

-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예, 그게 연락망이에요. “국군이 왔다.”하면 또 거기서 들고 뛰고, “국군이 왔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창을 갖다놓고 찔러 죽인다고. 그렇게 또 가들은 시키니까. 국군을 찔러죽이라고. 근데 창이 어디 있어요. 총 앞에. 그런데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래도 꽤 빠르더라고요. 백담사에서 군인

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미리 벌써 알고.

- 인민군들이요?

예, 인민군들이 미리 알고, 그 다음에 대처를 하는데 인제 38보안대에 일개 대대가 있었어요. 전방 지키는. 그런데 일리 나와 가지고, 여기 소비조합이라고. 지금 소비조합이라고 하면 가게죠. 거기 뭐 쌀도 있고 여러 거, 물건 파는 데거든요. 국군들은 거기 한 자루 불을 싸놓고, 그렇게 해놓고 민간인도 몇 죽였어요.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이 인제에도 군인이 있는데 인제 군인이 출동 안하고. 이 간성서 오더라고요. 간성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간성 특별 대대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서화리 들어가서 한 사람도 안 남고 전멸했어요. 거기서 또.

- 아, 전멸했어요?

예, 전멸했어요. 아이 그 저저 그때 한 대대 되나. 그까짓 것 들어와서 뭐해요. 여기는 적진지인데. 그래 가지고 그것도 또 그냥 잠복하고 뭐 서로 있다가 전투가 나면 그러면 덜 죽었지. 목욕하다가. 하다가 보니. 총 세워놓고 목욕하다가 그 목욕하는 거를 딱 해가지고 하니. 거기서 싸우는데 거기서 전멸했어요.

- 아, 그러면 전체가 목욕을 하다가?

예, 거 총 세워놓고. 거 하나까 뭐해. 다 해놓고. 거 서화리 가매소라는 곳인데 거기서 목욕하다가 거기서 전멸 당했어요. 그렇게 하고. 아이고, 여기 군인들 많이 죽었어요. 군인들 그 분들.

- 그러면 그 서화리에 갔다가 언제 다시 여기로 오셨어요?

우리요? 그해 왔어요. 봄에 갔다가 한 20일 있었나. 그러고 바로 나와서 여기서 농사지었어요.

- 그럼 서화리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들어가서 한 20일 있다가 바로 나왔어요. 그때는 인제 이북 아들 후퇴당시에 우리 올라 쫓았는데, 그때는 다시 내려 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농사지으라고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뒤로 나온 사람 못나왔어요. 우린 또 피난 가라고 할 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가고 농사짓는다고



거길 들어갔지요. 그대 산속에 들어가는 바람에 안 가고. 못나온 사람들은 막혀서 못나오고 그랬어요.

- 그러면 그 사람들 딱 끊어버렸구나?

예, 끊어버렸죠. 그대 우리도 그대 당시에 못나왔으면 다 죽었지요.

-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선 어땠어요?

저 전쟁 끝나고 나서요. 그대는 뭐 좋았지요 뭐. 전쟁 끝나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농사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여기는 전쟁 끝나고 나서 이 정권 때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할 때잖아요. 그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저기 저 그대는 나이 들어가시고 군대 가서 한 삼년 동안 또 거기서 있었지요.

- 군대는 언제 가셨어요?

아이, 오래됐어요.

- 몇 년도에?

그대가 50년대 하여튼 갔어요. 그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있을 때 우리가 제대했으니까요. 59년도에 아마 제대했는지 그랬을 거예요. 3년 만에 4.19가 났어요. 제대하고. 제대하고 3년 만에 4.19가 났어요.

- 4.19가 60년도에 났으니까?

제대하고 3년 만에. 그대 제대군인들은 원주 38사단에 가서 다시 훈련받거든요. 그대 원주 38사단 가서 훈련 받을 때 4.19가 났어요.

- 그러면 6.25 끝나고 군대를 갔네요?

그렇죠. 6.25 때는 여기 이북이니까.

- 몇 살 때 가셨어요?

군대 갈 때는 22살에 갔어요. 제 나이에 갔어요. 정확히. 여기 있던 사람들 다 그렇게 갔어요. 자기 나이 따라서 22살에.

- 군대에는 몇 년 동안 계셨어요?

한 3년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뭐 군인 뭐 저번에 보니 18개월이니 20개월이니 하더구먼, 우린 36개월 했어요. 3년을 좀 더했어요.

- 저도 30개월 했어요.  
30개월 했어요? 아.
-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스물아홉에 했어요.
- 늦게 하셨네요. 그 당시에?  
늦게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한참 있다가.
- 그러면 자식들이 나이가 많지 않겠네요?  
많아요. 40이 좀 넘었어요.
- 농사만 계속 지으셨어요?  
그렇지요. 농사만 계속 했어요. 지금도 또 농사만 해요.
- 나중에 부역자 처벌은 안했어요?  
그건 없었어요. 여기 사실 남한정치가 살기 좋죠. 그런데 저 아무 것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때 이북에는 내가 또 그때 나이어리니까. 맘대로 못하고 그렇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죠. 아버지사상하고 아들 사상이 틀리니까요. 옛날에 가들이야.
- 마을에 주요 사건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그 전에 주요 사건은 없었어요.
- 인민군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그리고 가들은 지금은 이 국군들은 우리 아군들은 지금 여기 연대도 있고 그렇지만은 휴가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놀러 나오고. 이북아들은 여기 있을 때 평양 특별 대대가 여기 나와 있어도요. 외출외박 없어요. 딱 훈련 나올 때는 부대 전체가 나와서 훈련받고 들어가고. 이 뭐 하나도 이 외박이라는 거는 없어요. 면회 같은 것은 없어요. 면회도 없고 가들은. 이 군대는 가들은 민간인 짝 접촉도 안 해요. 부대에서.
- 여기는 38선이 멀어서 38이남이랑 서로 교통도 하고 그랬어요?  
아이고 못했어요. 그 저 38선이 딱 막혀 있기 때문에.
- 원통까지는 했다는데요?

원통 인제 사람은 가만둥이<sup>53)</sup>로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했어요. 소련놈 나왔을 때. 그때 딱 막히고 인민군아들 38보안대 와서 딱 지키고 나서. 그때는 넘어가면 죽는데요, 뭘. 갈기는데요.

- 공동으로 일을 해서 소비조합에서 사고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여긴 안 그랬어요. 처음에 인제 해방되고서는 안 그랬어요. 그때도 인제 집단농장이 생긴다생긴다고는 했어요. 그때도.

- 생기진 않았어요?

예, 생기진 않았어요. 그때도 그런 얘긴 있었어요.

-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걷어 갔어요?

가들은 세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란 건 없고. 이 세금이라는 거는 쌀이지요 뭐. 그러니까 거의 다 뺏어가다시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농사지은 것. 콩, 팥, 감자, 옥수수 이 사람 먹은 곡식은 전체니까. 그래 말은 삼찰제라고 하지만, 거의 다 삼찰제 반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세금이다 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고. 또 호당 가들은 왜 저 지금은 자루가 많아서 곡식을 자루에다가 넣지만. 그때는 가마니거든요. 그럼 한 집에 거의 할당을 줘요. 40장이면 40장 50장이면 50장 그러면 할당을 주면 그냥 가마니 짜는라고 그냥, 가마니 짜서 오면 그거를 또 등수를 쳐요. 1등 2등 3등, 불합격 하면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짜야 해요. 그러면 1등 얼마 2등 얼마 3등 얼마야 그때 내가 40장을 짰는데. 거 한 집에 40장을 짰는데, 겨울 내내 짰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공출을 하니깐 그때 돈을 주는데, 그때 몇 백 원인가 내가 그렇게 받았는데. 가들은 카바이트란 게 있어요. 카바이트. 거기 이렇게 불 켜잖아요. 그래 공출을 하고 카바이트 두 관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가마니 40장해서 바친 거를. 돈 탄 거를 카바이트 두 관 사니까 딱 맞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가들은 그것 갖다 켜는 간드레라는 게 있잖아요. 거 불 초 켜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깡통. 간시메 통<sup>54)</sup>. 깡통을 따먹고는 아주 작게 거기

53) 가만둥이는 남 몰래의 의미이다.

54) 간시메 통은 통조림통을 말한다.

만 구멍을 뚫어놓고 밑에다가는 이 나무를 맞게 해놓고서는 걸레를 짜가지고  
틀어막고 물에다 담가놔요. 거기다 카바이트를 넣고서 물에다 딱 담가놓으  
면, 그게 녹으면서 그 구멍에서 카바이트가 나오거든요. 거기다 불을 탁 키면  
아주 밝아요. 그게, 지금은 뭐 등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때는 등잔불  
이잖아요. 참 밝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칭찬하던 거 어제 일 같아요. 우리  
저놈이. 내가 외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저 이놈이 카바이트 저걸 사가지  
고 이렇게 불 킨다고. 불을 집안이 환하게 킨다고. 아들덕본다고 참 칭찬 많이  
한 게 엇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 세월이란 게 벌써 한 60년이 더 지나갔어요.

- 외아들이었어요? 누나나 여동생은 없고?

딸을 열 명을 낳고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저 백담사 절에서 기도를 드렸대요.  
10년 기도를 드렸대요. 그래서 나 하나 나아가지요. 그래가지고 여기 외아들  
로 컸어요. 그래서 어려서 귀여움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일찍이 뭐 조실부모  
하니 뭐. 개밥에 도토리지요 뭐. 그렇게 컸어요.

- 누나가 열 명이네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동생하나 있어요.

- 누이동생?

예, 누이동생.

- 백담사에서 기도를 드렸군요?

네, 10년을 기도를 했어요. 오세암. 그것도 오세암 가서 했어요. 오세암이 40  
리예요. 10년을 오세암 가서 기도를 드렸대요.

- 아버지가요?

예, 우리 어머니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날보고 그랬는데. 그래 뭐 10살  
먹어서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 많이 그리웠겠네요.

아휴 그럼요. 우리 엄마 있을 때는 인제군 전체에 과질<sup>55)</sup>이란 게 있잖아요. 과

55) 과질은 과질의 방언으로 우리의 전통한과 일종이다. 쌀가루로 반죽을 해서 말렸다가 기름에 튀겨 부풀게 한 후 조충을 바르고 박산튀김 기계에 튀긴 쌀알을 붙여 먹었다.

질 선수랬더랬어요. 그래 큰 결혼식 집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뽀뽀 다니면서 과질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열병이 걸려가지고 그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 어머니도 열병으로요?

네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 눈에 선하겠네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45세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아주 청춘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아버지는 57세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금 저 서화 가전리에 송로평이라고 있어요. 전방 밑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거길 한 번 갔었어요. 나는 매년 인제 뭐 과일 뭐 제사꺼리 해가지고. 해가지고 가면서 초소마다 이렇게 또 송편해서 주고.

- 송편요?

예, 추석 때. 해서 주고. 그 안에 들어가면 철책선이 있는데 또 그 안이에요. 그것도. 이 바깥이었으면 벌써 파가지고 왔지요. 그런데 그 안이니까 들어갈 순 없고.

- 그러면 묘를 못 파왔어요?

못 파왔어요. 그러니 거기 방향만 보고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술 한 잔 붓고. 다 보이는데.

- 아, 그러면 망제<sup>56)</sup>를 지내는 거네요?

예, 거기서 그 동네서 그래도 가만히 보면 데려다<sup>57)</sup> 보이는데. 먼저 군인을 하나 데려 갔는데 내가 그 애길 하나까. 그 송로평이라고 그 저 철미라는 데가 그 위에 우리 아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에 우리 아군이 있는데. 거기가 이남일수도 있고 이북일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 아버지 묘 있는 데 가요?

56) 망제(望祭)는 직접 현장에 가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고향을 향해 지내는 제사는 망향제(望鄉祭)라고 한다.

57) 데려다는 '들여다'의 방언이다.

그 묘 있는 데가. 이남일 수도 있고 이북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쪽 을  
라가는데 거기 안치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뭐 거기는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  
고.

-눈에는 선하겠네요?

예, 눈에 선해요. 그래 거기 사진도 찍고 해왔는데. 지금 그래도 내가 그전에  
도요. 거기 고물 캐러 가는 사람한테 질문했어요. 그때 특무대에서 거 뭐 고  
물 캔다고 그래서요. 나도 하나 신청해라. 나 신청하면 나는 고물은 안 캐고  
우리 아버지 산 파가져오고 그 대신 내가 소 한 마리 큰 거를 낸다. 그러니까  
나를 신청해 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보고서 얘길 해 주겠다 해요. 그래 갔더  
니 이북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북이래요?

예, 그래서 거길 못 들어간다고. 그런데 나중에 다시 알아보니까. 이남 땅이기  
도 하고 이북 땅이기도 하대요. 거기가.

-중간에 있구나?

예,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철미라는 거는. 그거 날보고 철미  
라는 곳이라 했더니. 거기가 철미인데. 거긴 이남일 수도 있고 이북일 수도  
있대요.

-아버님은 피난 갔다 돌아가신 거네요?

네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장사지냈네요?

예를 들어 거기가 뭐 이 철책선 밖에만 있어도. 그전에 어떻게 했을 것인데.  
엄마 곁에 가서 모셨을 것인데. 그래 우리 아들보고서 항시 추석 때면 내가 거  
길 들어가요 얘길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거 지금은 그것들이야 찾겠냐 뭐.  
나도 열일곱에 해서 77살이니까 벌써 60년이 벌써 지났어요. 10년이 넘어가  
면 강산이 변한다고. 게도 내가 어려서 그걸 봐서 원래 이런 산골에서 산을 많  
이 타고 그래서 가보니까 방향은 알겠더라고요. 그 지점은. 그래서 나는 지금  
도 들어가면 찾아요. 그래도 나는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찾을 수 있다. 그런데.

- 그러면 매년 추석 때가서 제사꺼리 준비해서?

예. 철책선 가서 제사를 지내요. 아이고 그것도 한 번씩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 못 들어가게 해요?

아휴, 그럼요. 조용히 철책마다. 거기다 검사하고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 민통선이니까 미리 신청해 가지고 군인하나 딸려 보내면 가서 제사지내고.

- 같이 가세요?

예, 제사를 지내고.

- 어머니묘소는 이남에 있겠네요?

네 거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내가 살아서 아버지 뼈라도 추렸으면.

- 제가 여쭙는데 얘기 안한 거 빠진 거?

뭐 빠진 게 있어요. 다했어요. 내가 어려서 크면서 살던 얘기는 거의 다 했어요. 그거 거기까지예요.

- 존함은 안 적어도 돼요?

정중범이에요.

- 정자 종자 범자.

- 감사합니다.

## 동개골의 밤



- 구술자: 이정화
- 구술자 나이: 77세(1936년생)
- 면담자: 이학주
- 면담주제: 6.25 한국전쟁 전후의 서화리 상황과 구술자의 삶.
- 면담일자: 2012년 11월 14일
- 면담장소: 서화면 서화2리 이정화 씨의 자택



## 〈면담 상황〉

겨울이 다가오는 문턱 즈음 서화리를 찾아갔다. 밭에서는 마늘을 심는 사람들이 드물게 보였고, 일찍 김장을 하는 집도 있었다. 역시 전방이라 곳곳에 군부대가 있었고, 훈련이 한창이라 도로에 바리게이트를 친 광경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곳이 그 옛날 6.25한국전쟁의 중심에 놓여 있던 곳이라는 것을 주변 풍광으로 인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6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치열했던 전쟁의 상흔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는 곳이었다.

서화면의 구술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 문헌과 전화번호 등을 뒤졌다. 그 결과 해당 나이에 있는 사람들 10여명을 물망에 올렸다. 그러나 현지에 가서 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는 쉽게 적당한 구술자를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많은 곳을 헤매다가 서화리에 살고 계시는 심병관 씨를 만났다. 면담을 하고는 뭔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또 다른 제보자를 선정해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 동네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다며, 이정화 씨를 소개해 주셨다. 마침 이정화 씨는 댁에서 손자를 보며 계셨다. 이정화 씨는 아직도 목소리가 맑았으며, 말씀을 아주 잘 하셨다. 구술 중 한숨을 자주 내쉬고, 삶이 전쟁으로 인해 고통으로 얼룩졌다고 했다. 지주라는 이유로 가족 5명을 하루아침에 잃고, 14살 어린 나이에 동생을 데리고 살다가 둘은 품안에서 보냈다. 14살 소녀가 고아가 된 몸으로 동생들을 보살펴야 했던 것이다. 집도 재산도 모두 몰수당하고 의지할 데 없이 살았던 것이다. 지방 빨갱이들의 거둬진 조사와 원주로의 피난으로 고통스런 삶은 계속 이어졌다. 또 열(염)병으로 인해서 친척을 대부분 잃었고, 부모님들이 부치던 땅마저 거의 잃었다.

이처럼 이정화 씨는 6.25한국전쟁의 최대 피해자면서, 그 소용돌이를 직접 몸으로 겪은 장본인이었다. 따라서 아래의 구술은 인제군의 전쟁전후사와 우리의 근대사를 재조명 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을 확신한다.

- 오늘은 11월14일 서화2리입니다.

-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나 이정화.

- 몇 년도 생이세요?

난 칠십일곱이니까. 모르지 뭐. 난 몇 년생인지 그건 몰라.

- 77살?

칠십일곱 살. 이제 여든 다 됐지 뭐.

- 그럼 1936년생이네. 그쵸?

그건 잘 몰라.

- 어디 출신이에요?

나 저 골안에. 동개골이란 데 거기서 살았어.

- 동개골, 서화리에요, 거기도?

서화리지. 동개골. 이 안에 들어가서.

-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어요?

학교는 못 댕졌어. 야학 배운다 댕기다하다가 말았지 뭐.

- 농사짓고 계셨어요?

그럼 부모들이 농사짓고.

- 부모들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어머니<sup>58)</sup> 아버지. 아이고, 말도 못해요. 얼마나 고생들 하다가 돌아가셨는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여기서 살다가 글썸. 그리고 우리 삼남매인데. 그래 우리 아홉 식구가 살다가선. 글썸 다섯 식구가 하루저녁에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이랬어. 우리 삼촌은 그래도 많이 가르친다고 가르쳤어. 그때 서화 여기서 고등학교 나왔으면 잘 나왔다 그랬잖아 왜. 고등학교 댕겨서 나왔으니까.

- 삼형제였어요, 삼남매?

우리가? 삼남매.

- 위에는요?

위에는 없어.

- 제일 만이에요?

아니, 내가 둘째야. 맏언니 하나 동생 하나 삼형제. 아니 동생하나는 데리고

---

58) 어머니는 구술자가 어머니를 일컫는 말이다. 강원도일대에서는 보편적인 표현이다.

나갔다가 또 죽고. 피난 나가서 남동생. 그래 삼형제 딸 삼형제 남았어. 하나는 양평 살고 하나는 인제 덕산리라는 데 살고.

- 딸만 셋 남았네요?

예, 딸만 셋. 그래 집안이 망했어. 그러는 바람에.

- 지금 자녀들은?

시방. 시방은 내가 여기 나와 가지고 7남매 낳았지.

- 몇 살에 결혼하셨는데요?

열일곱에.

- 열일곱, 빨리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20살부터 낳은 게 7남매 낳았어. 그래도 다 출가시키고. 그래 야가 막내아들 손주. 그래, 야 데리고 살아요.<sup>59)</sup>

- 그 일제시대 때 기억나요?

나지요.

-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일제시대 때 뭐 아주 저게 몸뻐<sup>60)</sup>만 입고 당기게 하더라고. 치마도 못 입게 하고. 그리고 뭐 사방서 그렇게 하고선 살았어. 엄청 엄했어. 그쪽엔. 이북에선 엄청 엄해. 이북서 나와 가지고. 그러니 이북 땅이지 여기가.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다. 아이고, 말도 못해. 엄청 고통 겪었어.

- 어떤 고통?

아주 참 별의 별. 아저씨<sup>61)</sup>도 여기 계시지만. 농사지어 혼자 못 먹어. 갖다 바치라 지랄해서.

- 어떻게 바쳤어요?

그냥 가져갔지 지가.

59) 구술 당시 막내아들이 낳은 손자를 데리고 있었다.

60) 몸뻐는 여성들이 입는 통이 큰 바지를 말한다. 허리와 바지 단에 고무줄을 넣어서 쉽게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었다. 색깔은 아주 다양했다. 활동하기에 편해서 한동안 많이 입었다.

61) 구술 현장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심병관(80) 씨가 와 계셨다. 가끔 구술에도 참가를 했다.

-얼마나요?

얼마나 마나 그 먹을 거만 남기고 다 가져 갖지 뭐. 우리 농사지어가지고 싹 넘어갔어. 땅이고 뭐 등기장이고 뭐 싹 넘어갔잖어. 그땐 뭐 있으면 다 가져가. 나처럼 고생한 사람 없어. 진짜로.

-그땐 지주였어요?

내가 지주가 아니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삼촌이 있는데. 그래 우리 큰아들이 그랬어. 아이고, 저게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했다고 내가 성공해 가지고 아주 책을 하나 내준다고, 크게 하나 내 준다고 그러더니,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어. 얼마 전에. 우리 큰 아들이. 그래 아들하나 낳아놓고 아들 둘을 낳아놓고 갔구만. 그러니 작은 것들이야 아무 것도 모르지 뭐. 내가 고생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 뭐. 큰 거 맡아들이 그러더니, 내가 고생한 이야기 죽 하면, 다 적어놓더라고 그렇게. 그런데 그거 가고나니 뭐뭐. 없지 뭐. 고생 말도 못했어 난 아주. 고생 나처럼 한 사람 없을 거야.

-일제시대 때 학교를 못 다녔겠네요?

못 다녔지. 학교라는 건 문턱에도 못 가봤어. 거 동네서 무슨 야학<sup>62</sup>들 한다고 하면 어머니 가면 뒤에 따라가 앉았다 오고 그랬어.

-인민군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아휴 인민군들이 그때 싸움이 붙어가지고. 저기 가매소지요. 아저씨도 알지요. 가매소서 여기 헌병대 싸움이 붙어가지고. 아주 말도 못했어 그때. 많이 죽었지 여기 사람도 많이 죽고 거기서 나온 사람도 많이 죽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났었지. 가매소서. 그런데 인민군 하나가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더니만 그만 쓰러져 죽었어. 너무 많이 맞았던가봐. 그래 발 밑에다 파묻고. 땡겼는데. 거기만 당기면 무서워 못 땡기겠더라고. 사람 파묻은 걸 봐서. 그러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다 이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동

---

62) 야학(夜學)은 밤에 공부할 수 있도록 각 마을에서 학식 있는 사람들이 봉사차원에서 열었던 학교이다. 낮에는 일을 하고 일이 끝난 밤에 공부를 하였다. 야학교라고도 하였다. 옛날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네서 살다가 피난을 나가가지고 여기 군대가 막 들어오니까 인제. 그래 나가가지고 사는 게 고생도 많이 했지. 열네 살에 나갔으니까 인제. 그래 가가지고 피난해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그래 여기 들어와 사는데 참 이렇게 살아.

- 전쟁 나기 전에 인민군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인민군들이.

아이고, 얼마나 뭐 무섭지 뭐. 그냥 밥해 달라 그러고 뭐. 배가고프니 그래 밥해 먹고 자지도 않아. 그래 산으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가 조그마해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로 살았어. 우리가 그렇게 부자로 살았어. 그렇게 반동이라고 아주 내 몰려가지고 몰살을 했어요. 우리는 아주.

- 어머니 아버지 데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총살시켰지. 그럼. 밤에 와서 데리고 가더라고. 그러니 내가 14살이니 피가 말짱하지 뭐. 아이고, 밤에 뭐 우당탕탕해서 쫓아 나와 보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삼촌 다섯이 뺨 둘러 앉혀가지고 뒤로 손을 묶어 뺐더라고. 그러더니 날 부르더니 나도 손을 묶더라고 이렇게. 그래 어머니 아버지 하고 손을 묶고 앉았지. 그다음에 애들은 우리 젓먹이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었지. 그리고 네 살 먹은 머슴애 있지. 그리고 양평 간 애가 그때 아홉 살 먹었지. 그래가지고 서어서 지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문밖까지 나가는데. 이놈의 애들이 막 깨어 운거야. 내가 나가다 보니. 그래 나갔지요. 줄래줄래. 나가다 보니. 애들이 막 울더니만, 내가 그랬지. 아이고, 저 애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이따가 우리 저 큰 애만 살려달라고. 저 애들은 누가 전사를 하냐고. 저 애들 다 깎는데 어떻게 하냐고. 사정을 하더라고. 이렇게. 저 큰 애만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는 참 나를 내 손을 풀어 놓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엄마한테 따라간다고 손으로 휘잡으니까, 엄마가 발길로 짝 차더라고. 그런데 내가 쓰러지는 바람에 일어나 보니 어디로 간지 없더라고. 그래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애들을 하나는 업고 하나는 붙잡고 이리고 밤새껏 울었어. 서이다. 그래 새벽녘이 돼서 아주 막 뭐 들이닥치더라고.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지게에다 파묻었는지 어땠는지. 그리고 뭐 다 들어온 거야.

우리 집에 쳐들어온 거야.

- 인민군들이?

인민군대도 아니야. 그 동네 빨갱이들. 그럼. 그래가지고 주방에도 그때 낮은 몰라 그래가지고 들어오더니만 막 뒤지면서 등기장이고 돈이고 뭐고 다 꺼내. 광에 들어가 쌀자루 뭐 막 세어서 다 적어 이렇게. 치부책을 갖고 와서. 다 꺼내놓고 우리 서이가 먹으라고 세 가마를 주더라고. 줍살하고 콩하고 인제 그래 세 가마를 주면서 죽겠으면 죽고 모른데. 그래 어떡해. 그걸 가지고. 큰집에가 그 밑에 있는데. 큰집에 가니 그 이튿날 큰아버지가 와서 데려가더라고. 그래 거기 가있는데 애가 병이 나서. 그 젓 먹든 기 젓을 못 먹으니 죽더라고. 그래 내가 끓여 안고 막 드러누워 자다보니까 애가 죽었어. 그래 할아버지가 가서 파묻고 왔더라고. 아휴 말도 못해 내 고생한 얘기를 진짜 너무했어.

- 어머니, 아버지 시체 못 찾았어요?

있어요. 근데 시체가 여기 동개골 어귀에다 묻었는데. 그렇게 저기 마당을 닦았더라고. 여기 시방 부대 있잖아요. 부대가 있어 마당을 죄 닦아 암만 가 봐도 모르겠어.<sup>63)</sup>

- 그럼 묘가 없어요?

묘도 없어졌지 뭐. 아주 뼈다귀조차도 없어. 다 밀어서 제쳐서.

- 그럼 묘 주인도 안 찾고 뭉개 버렸어요?

그럼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다 밀어제쳤어. 몰라 시방은 어디가 있는지. 그래도 그 질에 땡기며 내가 만날 거기만 쳐다보고 다니지. 그래 피난나 갔다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한 번 가 찾아봤어 거길. 묘 있는 데를. 그러더니만 이렇게 내가 기억이 나더라고. 거기 내가 조그마해서 가서 이렇게 데려다보고 울고 하던 적이 나. 가보니 있더라고. 그런데 군인들이 싹 들어와서 싹 밀어 붙인 거야. 허허. 운동장을 만들어 버렸지. 아주 이렇게 마당을 닦아서 시

---

63) 구술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이 지방빨갱이에게 끌려가서 몰살을 당한 후 무덤을 쓰고, 피난을 갔다가 왔더니 그 무덤 위에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연병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계속 구술이 된다.

방. 거개 아주 없어졌어. 그래 내가 하도 억울해서는 부대에 들어가서는 여기  
때 왜 이렇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기 묻었는데 왜 밀었냐 그러니까. 모른  
대. 그 사람들이 자꾸 이동해 가고 오고 그러니. 그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그만이지 뭐. 어떡해.

- 그럼 14살 때 막내는 안고 죽고?

안고 죽고 또 9살, 4살 먹은 거는 피난 나가 원주가 죽고. 머스맨데<sup>64</sup> 가가. 그  
리고 9살 먹은 거는 저 양평 가서 살아 시방. 난 여기서 살고. 그래 어떻게 돼  
서 그 뼈다귀 다 밀어서 그런지. 언니도 중풍 났지요. 동생도 여 허리수술해서  
꿈짝도 못해요. 우리 동생도. 그러더니 나도 시방 다리가 아파요. 먼데 못 가.  
집구석에서만 이려고 애나 봐주지.

- 천도제를 한 번 지내주지?

그러니 제사를 내가 계속 지내다가. 언니도 병신 됐지 동생도 그렇지 에이 이  
건 제사를 지내도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거 내가 안 지낸다고 그랬어. 그냥 밀어  
붙이고 말았어. 나 혼자 지내면 뭐해. 누가 보러 오는 사람도 없지요.

- 그때 인민군 시절에 지방 빨갱이들 대단했어요?

대단했지요. 무서워요.

- 어떻게요?

그래 그렇게 없는 거를 막 찾아내서 죽이고 그랬죠. 그래서 다 죽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래 제삿날은 아나, 그러니 몇 해 지냈어. 지내다가 하도 동  
생도 못 오지요, 언니도 못 오지. 나 혼자 지내려니 진짜 애들 보기에도 그렇  
고 그래. 그리고 외손봉사(外孫奉祀)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남들도 그래.  
그러니 그만되라. 안 지내지 뭐.

그래 하루는 사위가 저기 있는데. 거기매 나물을 뜯으러 가자고 작년에도 그  
렇게 해서 그래 갔는데. 세상에 거기 가니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나물이고 뭐

---

64) 머스맨데는 남자아이에 대한 이 지역 방언이다. 이 집안에 유일하게 태어났던 아들이었으나  
엄마가 죽고 나서 전쟁 통에 돌볼 사람이 없어서 죽었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 집안의 봉사(  
奉祀)는 끊어졌다.

고 앉아 헤매고 울다 그냥 왔어 내가. 하도 억울해서. 묘라도 있으면 가서 좋잖아요. 묘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 그래 앉아 울다 보니 우리 사우가 아이고 이젠 산도 50년이 흐르고, 인제 그렇게 60년이 흘렀는데 이제 올면 뭐하냐고. 가시자고. 나물이고 뭐고 가시자고. 그렇게 하고 오더라고.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그냥 왔어요. 아이고, 그런 날에, 억울하게 그랬어 나는.

- 그럼 지방 빨갱이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모르지요. 어떤 놈들이 와 밤에 와서 뒤집어쓰고 그러니. 누가 알어요.

- 머리에 쓰고 왔어요?

그럼요. 다 쓰고, 이 총 끝에다 칼을 번들번들 한 걸 이런 걸 끼워 가지고 하나씩 다 베고 왔더라고. 그래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어. 그래 부모들은 그래 돌아가셨지만 나는 아주. 시방 저 다리 꼬맹이 그 부대 있는데. 거기매 뭐 보안댄가 무슨 지랄인가 있는데. 거기 맨날 오라는 거야, 조사받으러. 그래 무조건 모른다고 그랬어 내가. 알면서도 모른다고 그랬어. 몇 명 왔다하는 것도 모른다. 아는 사람이 왔다하는 것도 모른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니 죽이진 않더라고. 그래서 살아났어.

-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 놓고 그놈들도 다 들어가고 나는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아이 가재 자꾸 그리로 들어가래.

- 북한으로?

어, 들어가래. 아이 난 죽어도 아파서 못 간다고 아주 늘어졌지. 난 죽어도 못 간다고. 여기서 죽어도 여기다 파묻어달라고. 그냥 그랬더니. 말짱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여 버리고 그냥 이렇게 실어내더라고. 다 들여 몰아. 염병이 그뻐 또 그렇게 무서워 염병이. 그저 말 한마디만 잘 못하면 그 자리에서 싸 죽이는 거야.

- 인민군이 그런 게 아니라 지방빨갱이들이 그런 거예요?

인민군들도 나오고, 지방빨갱이들도 그러고. 그쪽 편이지 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래 자꾸. 그런데 아파서 들어갈 수가 있어. 나는 죽어도 못 가겠다고 늘어



졌더니, 그래 봐두고. 여느 사람만 들어 몰고. 우리는 소가 꽤 많았어. 소도 갱  
변<sup>65)</sup>에다 갖다 놓고 막 썬서 지들이 잡아먹더라고. 잡아먹었는지 어쩐지 그러  
더라고. 그리고 들어갔어. 그리고 나와서 이쪽 아군들이 막 들어오더라고. 그  
래서 실어내서 저 원주 귀래라는데 가서 살았어. 귀래면. 거기 가서 좁은 막사  
를, 요래요래 천막을 치고 구석구석에다가 인제 주더라고. 거기서 피난을 해  
가지고 그래도 거기 갔다가 여기와 앉았어. 내가.

- 피난 갈 때 미군이 실어갔어요?

미군인지 한국군인지 와서 신고 가더라고. 미군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

- 여기 있는 주민들 다?

네 피난시켜 주더라고. 그래 이 꽤들 우리 다 같이 가서 피난 갔지. 귀래면에  
갔다가.

- 갔다가 언제 돌아 왔어요?

꽤 오래 있었어요. 꽤 오래 있었지요. 우리가. 그때 들어가라 해서 우리가 여  
기 들어왔지요. (여기 수복된 다음에 - 심병관). 그래 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  
어요.

- 피난살이 할 땐 어떻게 견뎠어요?

그냥 뭐 배급을 주던데. 그래도. 허허허. 보리쌀도 주고 밀쌀도 주고, 그거 줘  
서 그거 가지고 죽썬먹고, 모자라면 죽썬먹고, 나물 뜯어다가 죽썬먹고 이러  
고 살았어.

- 천막 같은 거 쳐놓고, 단체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크게 천막을 치고 구석구석에 이렇게 있었어.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준 게 고맙더라고. 그러니까 살았지.

그 다음에 국군이 여기 밀고 들어와서.

그래 가지고 들어와 가주고선. 그래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니. 들어오니 뭐 있  
어 아무것도 없잖아 살림이 있어 뭐있어.

---

65) 갱변은 바깥의 허름한 공터를 말하는 것으로, 강변의 지방 방언이다.

-전쟁 다 끝나고?

다 끝나고. 그래 들어와 가지고 인제 와서 우리 언니네가 있었어. 언니가 그래도 나이 먹은 게. 그래 거기 사랑에<sup>66)</sup> 살다가 있다가, 여기 들어와서 인제 이렇게 앉아있지.

-그 언니는 누구인데요?

인제 덕산에 있어.<sup>67)</sup>

-몇 촌이에요?

친언니지. 친언니가 말도 못하고 이 중풍이 나서 아무것도 몰라.

-그럼 옛날에 시집 갔었네요?

우리 언니는 시집가고. 나는 동생하고 이래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우리 언니는 시방 중풍 나고 맨날 그러고 있어. 아들네가 착해서 그래도 편안히 있어.

-여기 14살 때 그 거할 때 언니한테 가지 그랬어요?

아이고, 언니도 살기 힘든데 어디 거기 가서 밥 얻어먹게. 그러니까 내 몸은 아무 데고 갱변에서도 자다가 그러고. 이래 귀래 나가서 천막을 쳤더라고. 그래 그 속에 가 있었지. 시상에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으니.

-여기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들어오니 우리 언니가 또 무슨 야네(손자) 할아버지한테 중신을 했어.<sup>68)</sup> 그 때 19인지 그랬어. 18이구만. 그래서 시집을 준다고 주대. 이 집도 아무것도 없어. 숟가락도 하나 없어. 오니까는. 허이, 군인이었다고 왔는데. 숟가락도 하나 없으니, 인제 가서 숟가락을 얻어다 먹었으면 다 알지. 시어머니 하나 있고. 신랑 하나 있고 그렇게. 그래도 그놈의 살림을 내가 이어 나갔어. 여태까지. 그러니 이 아저씨도 알지만 우리 나그네가 일을 안 해. 군인 갔다 와서. 맨날 술만 먹으러 댕겨. 그저 맨날 술만 먹으러 다니며 일을 안 해. 일을 해야 살잖아 사람이. 그래도 뭐 직업을 가져야 사는데 안 해. 그러다보니 내

66) 사랑은 사랑방을 말한다.

67) 인제를 덕산리를 말한다.

68) 구술 당시 막내아들이 낳은 손자를 안고 있었다. 구술자의 남편을 일컫는다.

가 나가 농사를 짓는다, 애를 8남매 낳았는데 하나 죽어서 7남매 됐지. 8남매를 낳아 놓은 거를 그거 다 건사하며 내가 일을 해 먹고 살았어. 남의 품팔이를 하니. 그리고 땅 좀 여기 들어와 조금 찾아가지고 그것도 붙이며, 이래가지고 살았어.

- 그러면 옛날 땅을 못 찾았어요?

조금 찾았어요. 내가 그래도 돌아댕기며, 할머니(시어머니)가 그래도 어디 잔치 보러 가면 쫓아가서. 내가 그때 그 붙이는 집에 가서 인제 찾자고 그래 하다보면 오더라고. 그래 그걸 알고 쫓아다니며 내가 우리 동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친구분들한테 사정을 했더니만. 그래도 이래 도장을 찍어서 찾았어. 그래가지고 논이 찾아야 얼마 안 돼. 그래가지고 참 애들 그렇게 키우며 사는 게.

시방은 아주 큰 고통이야 우리 막내 데리고 있는 게. 그게 땅 팔아가지고 춘천 병원에 다니는데 시방 걱정스러워 죽겠어.<sup>69)</sup>

- 땅 다 못 찾았어요?

못 찾았지. 다 못 찾았어. 그래 뭐 이게 증명을 해줘야 찾는데 그거 안 해주면 도장 안 찍어주면 못 찾아.

- 등기가 없으니까?

그래 등기가 없어서. 등기가 아주 없으니까. 그 사람 땅이라고 도장을 찍어줘야 찾아요, 그때는. 그래도 할아버지 친구들이 많이 봐줬어. 그래서 조금 찾아가지고, 애 새끼들 먹여 살리며 이 만큼 살게 됐어 내가.

- 그때 그 염병사건은 뭐예요?

전쟁하는 거 보지만 했지.<sup>70)</sup>

- 주변에는 염병 걸린 사람 없었어요?

그 게요. 우리 집 식구가 다 들어가서 죽고. 우리 작은 어머니하고 다 죽었어

69) 막내아들이 현재 투병 중이다.

70) 구술자는 이 부근에서 염병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옆에 있던 심병관 할아버지가 전염병이라고 알려주자 구술이 이어졌다.

요. 염병이 들어가지고. 우리 큰 집이 훌쩍 망했어 아주, 염병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나는 하도 들었다 났다 하더니만 그 저 살려주더라고 그 염병이. 그 때 내가 죽어야 내가 편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지. 한 집안에 한 명은 살려줬고.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서 이렇게 여태까지 나온 게. 살기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 내가 어떤 때는 살기 힘들면, 에휴 그때 염병하다 죽었으면 어머니 아버지 혼이나 따라가 고생은 안했지. 영감보고 맨날 그리고 울었어 내가. 에휴 너무 고생스러워서 그래 내가. 뭐 있어야지 살지. 애들은 거둬 낳아 놓고.

- 중공군 같은 건 봤어요?

중공군도 봤지.

- 어땠어요?

에이, 사람 같지도 않지 뭐 중공군은. 저기 뭐. 그 사람들이 들어 올 적에 일본 사람들도 그때 솔하게 나왔잖아.

- 일본 사람 들이요?

그 일본사람들도 나와서 그 북아치다가 들어가고 그랬어.

-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나와 가지고 저 뭐이 돌아다니면서 말썹을 일으키더니만. 봤을 거예요. 이 아저씨도.

- 언제요?

우리 거기 살을 때. 동개골 살을 때.

- 일정 때?

일제시대 땐 많이 나오지 뭐. 말이 통해? 일본사람들이 잘 떠들잖아. 조그마한 게 그냥 보기만 했지 뭐. 그렇게 피해는 안줬는데, 와서 설치고 돌아가더라고. 피해는 안 줬는데. 아이고, 일본놈들 같으니라고. 난 진짜 우리가 거기서 고생을 하고 살았지만 너무 심했어. 아주 너무 심했어. 남들이. 시방도 이 북서 이렇게 텔레비 보면, 아이고 너들이 우리 식구 다 잡아 가더니만 그래 그러는 구나.

- 중공군들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중공군들은 뭐 살라살라 하면서 돌아댕기니까 무섭더라고, 그래서 졌데도<sup>71)</sup> 못 갔어. 살라 거리고 돌아 댕기니. 떼거리로 돌아댕기면서 얼굴이 시커먼 것들이 돌아다니니까.

-총도 안 가지고 다닌다면서요?

안가지고 다녀 그 사람들은. 총도 10명 20명에 하나 꼴이라고. 총도 없어. 그냥 돌아댕겨. 그랬지 뭐 열 몇 살인데. 참 힘들어. 그래도 한국 군인들이 들어와서 실어다가 밥을 먹여 살려 이만큼 살았지. 허허.

-전쟁 중에는 그 상황을 모르겠네요?

모르지, 몰라. 피난 갔다 와서.

-치안대 이런 거 들어봤어요?

얘기만 들었어. 치안대 소리는.

-내무서는?

그 내무서도 얘기만 들었지.

-그때 경험은 안하고요?

예. 아이고 아이고 나는 아주 한참 해도. 어딘지 이름도 몰라. 거 다리골 건너서. 그렇게 날 불러가는 거야. 우리 큰 집 삼촌 그때 그 삼촌은 20살이고, 나는 14살이었지. 그래 삼촌이 댕기더니만 자꾸 총질을 뭐 이렇게 하니 놀래가지고. 그만 영아(嬰兒)가 됐어. 그래 어디 나가 죽었는지 몰라요. 피난 나갔다.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앉았어. 하도 이렇게 총질을 해서 혼이 빠져가지고. 그래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앉았더니 그냥 어디로 스스로 나갔더니. 내가 찾을 재간 이 있나 뭐. 그래 어디 나가 죽어서 찾지도 못하고 잊어먹고 말았어.

-그 삼촌이 누구예요?

우리 큰집삼촌. 우리 친 삼촌은 죽고. 부모도 돌아가서 죽고. 우리 큰집 삼촌. 그 우리 때문에 조사받으러 댕기다가. 그렇게. 나하고 꼭 둘을 불러가지고 가. 그래 나는 그래도 에이 죽지 않으면 살겠지 하고 눈깔을 똑바로 뜨고 대들었

---

71) 곁에도의 방언이다.

지. 동생들이 내가 죽으면 그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아주 모른다고만 내밀었어. 그러니 죽이진 않더라고. 거 뭐 안다고만 하면 금방 짝 죽여. 그러면 뒤가 있다고. 금방 짝 죽여.

- 그러면 조사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르지 뭐. 누군지. 그러고 와서 그러니.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렇게 차리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밥은 이래 보리밥을 해서 콩나물국에다 한 숟가락 놔서 주고. 그리고 조사하고.

- 조사할 때 뭘 물어요?

아 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느냐. 아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걸 물어봐. 뺏아서 와서 그랬느냐. 기억나느냐. 그런 걸 맨날 그런 거만 물어보니.

-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물어봐요?

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거기서 부자로 살았어요. 진짜 동개골에서는 부자로 살았는데. 그렇게 그 재산 압수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아휴 그러니 잘 살 필요도 없어. 거기선. 여기선 맨날 이렇게 먹어가며 잘살지만. 거긴 잘살아봤자 죽여 버려. 그래서 안 돼.

- 국군이 들어오기 전까진 여기서 살았잖아요.

살았죠. 그래 그걸 먹고 어른들 다 갖다 죽이고. 나를 그거 거 세 가마, 쯤쌀 한 가마 쌀 한 가마 주고 큰집으로 가래. 집도 다 뺏고. 그래서 큰 집에 가 들어앉았으니. 진짜 내가 피가 말짱해서 14살에 이런 거 저런 것을 참 모른다고 하지만 다 알지 뭐. 아휴, 그거 그렇게 먹고. 큰집도 어렵게 살아. 그래 우리가 맨날 쌀을 주고 그랬는데. 그렇고. 그거 같이 먹고 떨어지니. 산 기 뭐. 그러고 그 뭐 여름에 또 난리가 난거야. 여름에 5월 달에 감자 꽃 하얗게 피는 데 가라고 내쫓더라고. 그래서 나갔어요.

- 원주로 가라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 군인들 아군들이 들어와 그저 막 실어내더라고. 차에다 막 실어내더라고. 여기 아군들이 막 밀고 들어오며, 우리를 살려 내려고 실어 나르는 거지. 그래 이리도 못 나가고 저 운봉으로 그리로 해 돌아 나갔

어 우리는. 아주 무슨 군인들 차를 타고 나갔어. 저 귀래에 갔다 내려놓더라고. 저 원주에 흥업 갔다가 갱변에서 또 며칠째 잤어요. 그 흥업 개울에서 자다가 잤어요. 개울에서 아무 데서나 그냥 잤어요. 그래 사람이 많지 동네사람들 있으니. 그리고 자고 또 그 다음에 군인이 실어 나르더라고. 거기다 갔다 그렇게 포장을 쳐 놓은 데다가 갖다 놓더라고. 그렇게 살다 들어와 가지고. 그래도 이 양씨네 씨를 많이 퍼트렸어. 하하하. 그래서 내 생일날 이 방이 폭터져. 7남매나 모였더니, 이 애들 있지. 사우들 있지 하니. 아주 이 방이 폭터져 앓을 수가 없어.

- 그때 지방 빨갱이들은 다 도망갔겠네요?

들어가고 죽고 뭐. 들어갔지. 남으면 죽지 뭐. 그러니 다 들어갔지.

- 지방빨갱이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방빨갱이야 뭐 동네서 살다가 우리가 잘 사니까 그걸 뺏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랬겠지 뭐. 그러니 얼굴에다 뭘을 싸매고 와서 그랬지. 뭘 땅도 부치고 하던 사람들이지 뭐.

- 얼굴을 가리니까 누군지 모르겠네요?

모르지. 밤에 와서 그러니까. 아휴 총을 이렇게 해가지고 칼을 큰 걸 뽑아가지고 와서 휘두르는 게. 간이 떨어지지 뭐. 어린 게 뭐. 그래도 내가 참 억세 빠지다 그래 모두. 허허. 진짜 내가 억세 빠지고 독하고 그렇대.

- 미군들이 와서는 피해 없었어요?

미군들이 와서는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실어 나르더라고. 아휴, 아휴 그렇게 살았어.

- 그 뭐 다른 얘기들 있으면 좀 해주세요.

다른 얘기 뭐 있나. 저 아저씨(심병관)가 나보다 더 잘 알지. 아이고, 여기서 살던 사람들 다 힘들었어. 다 힘들었어. 살기가. 그때도 한 번은 미군 하나하고 한국군인지 뭐 둘이 와서 나더러 물어보더라고.

- 언제요?

한 삼년 넘었어.

- 유해발굴 하려고요?

그 이제 찾으려고. 그래 뭐 내가 묻는 걸 봐야 알려드리지. 그래서 못 알려드렸지.

- 피해 그런 건 못 봤어요?

못 봤어. 혼자서만 이렇게.

- 수복되고 나서는 바로 들어왔어요?

수복돼도 나는 저 인제 있다가 오래돼서 들어왔어요. 여기에. 들어가게 해야지. 그때도. 맘대로 못 들어와요. 증명을 내야 들어와. 그래서 인제 언니네 사랑에 왔으니 그러다가 하도 애들은 있고 굶어죽겠으니 어떡해. 군단까지 좇아갔어. 내가 아주. 군단장까지 좇아가서 살려달라고 북아쳤더니, 그래서 그러더니 그 보안대장한테 갖다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 올려 밟으라고 하더라고. 그래 내려 밟으면 안 된대. 올려 밟아야 된대. 하하하. 그래 보안대장에게 또 찾아가서 사정을 했더니. 가서 나 좀 살려 달라고. 애들은 서이나 되고 굶어죽겠다고. 땅 한쪽도 이렇게 찾아놓고 못 들어가니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증명을. 이렇게 교환할 적에. 그때 그 동네 사람들 여기서. 그래서 와서 먼저 들어오지 말고 끝판에 오래 날. 그래서 끝판에 가서 그렇다니까. 벌써 얼굴을 보더니 알던데 날. 그러면서 내 주더라고. 그것을 증명을.

- 그때 16살 짜리가요?

아니요. 그 땐 애들 낳았으니까 20살 때. 그래서 그걸 내줘서 그 다음엔 맘대로 땡기고 농사도하고 그랬어. 그래 하도 내가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 와서 증명 내줘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렇잖으면 못해요 내 좇았어. 그래서 내가 쌀을 두 말을 이고 찾아가서 주고 왔어. 그랬더니, 아이고 이걸 왜 가져왔냐고 그러더라고. 하도 고맙잖아. 그래서 애들을 옷도 시켜 먼 거 입혀가지고 데려갔는데 그 옷을 걸옷을 싸주던데 가서 애들 입혀라고. 그래 옷도 다 얻어 가지고 오고. 군대에서요. 그래 군단이 저 신남 거기 있었어요. 그래 거기매를 찾아가봤어요.

- 관대리요?



예, 관대리요. 아주 보초를 서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 어떻게 들어갔어요?

나 좀 나와 면회 좀 하자고 그랬지요. 나 안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여자가 나왔더라고. 남자도 또 좇아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면회를 했지.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순서를 올려 밟으래. 내려 밟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걸 위에서 자꾸만 내려오면 안 되니까. 올려 밟으면 해 드린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리로 들어왔지.

- 고생 많이 했네요?

아휴, 고생이나 마나 눈물이 쏟아져 시방도. 그러니 시방 애들이 잘 돼야 하는데. 글썄 우리 애가 아프고 농사를 빗을 지고 시방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정말.

- 말씀 고맙습니다.

예예. 그렇게 살았어.

- 감사합니다.

## 전쟁은 없어야



- 구술자: 심병관
- 구술자 나이: 80세(1933년생)
- 면담자: 이학주
- 면담주제: 6.25 한국전쟁 전후의 서화리 상황과 구술자의 삶.
- 면담일자: 2012년 11월 14일
- 면담장소: 서화면 서화2리 심병관 씨의 자택

## 〈면담 상황〉

서화리의 구술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옛 문헌을 뒤져서 서화리의 제보자를 찾았다. 그 중에 한 분이 심병관 씨였다.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해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서화리에 갔더니 마침 노인회관에 가 계셨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자택으로 가서 대담을 하였다.

심병관 씨는 말 수가 상당히 적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전쟁 당시 서화리에 있던 시간보다는 피난을 나가서 원주에 머문 기간이 더 길었다. 그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고 세세하게 구술하지는 않았다. 말을 많이 아낀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제보라는 면에서 구술을 풀어서 기록한다.

거실 탁자 위에는 6.25한국전쟁의 피해 상황을 적어놓은 메모지와 처세술 등이 있었다. 그러면서 전쟁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세술을 읽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말고, 더 가지려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하려하지도 말고, 내가 손해 보는 쪽으로 생각하라.”였다. 그리고 또 “만사종관(萬事從寬)이면 기복자후(其福自厚)니라.”라는 『명심보감』의 내용도 있었다. 곧, 온갖 일에 너그러우면 그 복이 스스로 두터워진다는 뜻이다. 아마도 한국전쟁을 겪고, 팔십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라 생각한다.

- 오늘은 11월14일 여기는 서화2리입니다.

- 성함이?

예, 심병관입니다.

- 심자, 병자, 관자, 언제 태어나셨어요?

1933년 12월20일생입니다.

- 예, 올해 연세가?

금년에 80이지요.

- 본관은 어디세요?

- 본관? 청송 심 씨.
-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여기 인공 때 중학교 졸업 맞고 인제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진학하려하는데 6.25가 났어요. 그래서 진학을 못하고.
- 그래서 중학교까지만 다니신 거예요?  
예, 예.
- 하시는 일은?  
하는 일은 저는 농사하지요.
-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되세요, 어르신?  
전 독신이에요.
- 혼자시군요.  
6.25때 혼자 왔어요. 가족도 다 잃고.
- 부모님들은 언제?  
부모님들은 6.25때 전염병에 다 사망했어요.
- 아, 6.25때 그러셨구나?  
그 전에 전염병으로 아주 몰살하다시피 했어요.
- 6.25날 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나이가 17살이나...됐어요.
- 일제시대 때 기억나시겠네요?  
네, 대충 기억나죠.
- 기억나시는 거 말씀 좀 해주세요.  
일정 때, 인제 강점기 그때 생활이 어려웠어요. 어렸을 때 그때 먹을게 없어 가지고 산에 가서 풀뿌리 나물 뜯어먹고, 춘궁기(春窮期)에는 보릿고개라고 그전엔 보릿고개가 있었죠.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뭐 너나할 것 없이 그때는 다 그랬어요.
- 그때 징용 끌려가고 그런 분 안 계세요?  
네, 없습니다.

- 전쟁 같은 건 어떻게, 대동아전쟁<sup>72)</sup> 있잖아요?

전쟁은 우리 어렸을 때라서 몰랐는데 부모님들이 인제 그 뭐 산에 가서 관솔을 캐다가 그거를 기름을 내서 뭐 비행기 기름을 쓴다고 공출하고 그런 적 있어요.

- 공출을 많이 했어요?

주로 여기는 그땐 여기 송기름, 관솔을 해서. 그 당시에 말은 뭐 비행기 기름으로 뭐 쓴다 했던 말도 있고,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 어르신은 안하고 부모님이?

네, 나야 어렸을 때니까 뭐 할 수 없죠.

- 부모님들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여기 그전에 일정 때 군청공무원도 하시고, 그 전에는 초등학교 교사도 하시고, 여기 인제 서화면의 면장님으로도 계셨고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한학에 능통하셨어요. 그래서 정년퇴임하시고 인제 서당을 차려 가지고 거기서 인제 후세들을 훈육시키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 워낙 학문을 잘하셨구나.

예예.

- 아버님은요?

아버지는 인제 농사하시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신 나이가 39세인가. 젊어서. 전쟁 통에 돌아갔으니까. 전염병에 돌아가셨어요.

- 전염병에. 전쟁 통이면 6.25때잖아요.

예, 6.25전쟁예요.

- 여기는 북한지역이었잖아요?

여기는 북한지역이었죠.

-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북한지역 때 통치한 것들.

글쎄 그 당시만 해도 내가 나이가 어려서 확실한 건 모르지만은요. 거기 6.25

---

72) 대동아전쟁은 태평양전쟁의 일본식 표현이다.

때는 거 지주들 다 몰아내고 인제 분배, 분배를 해서 거기서 수확 나는 걸 1할 5부인가? 그렇게 받아갔어요. 정부에서. 북한지역에서. 그런 게 좀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엔 뭐 이 텃밭에도 뭐 감자나 그 저 고추 같은 것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세요. 벼알 자체도 세서 거기서 2할5부라 그러면 100개라면 25개나? 그렇게 인제 공출을 받아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 인민군 시절 때?

그렇죠, 인민군 때.

- 그땐 조직들도 많았잖아요. 인민위원회 이런 것들?

그렇지요. 여 저녁마다 인제 민청회니 뭐 소년단회의니 여성회회의니 특정 모임을 다 가졌지요. 저녁마다 가졌어요.

- 민청은 뭐예요?

민청은 소년단 그러니까 지금 청년, 소년단 그렇죠. 그러니까 소년단 지나서 나이가 인제 좀 차면.

- 여성동맹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여성동맹은 여자들 모임 그걸 말하는 거지.

- 직업총동맹도 있었다면서요?

직업은 잘 모르겠는데.

- 농민농맹?

농사짓는 사람들.

- 소비조합이란 것도 있었어요?

소비조합이라고 그렇지 지금 말하면 면세점? 거기서 물건을 팔고.

- 어떤 걸 팔았어요?

각종 필수품 뭐 저, 여기서 파는 거 다 팔았죠.

- 근데 공동으로 뭘 했잖아요? 생산하고?

그렇죠. 공동으로 생산하고 거기서 나는 거를 2할 5부 인제 나라에 바치고 나머지 자기한테 나눠서 가지고.

- 지주들 토지 뺏은 과정이 몇 번 있었다면서요?

세 번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 기억하기로는 무조건 지주들 내 쫓았어요. 아무 것도 안주고. 그 사람들이 어디가, 여서 살 수 없으니까 저기 남쪽으로 나간 분들도 있고 어디 다른 데 간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지요.

- 그냥 내쫓았어요?

그럼요. 그냥 아무 것도 안 주고.

- 보통 1차 2차 했다면서요?

내가 보기에는 3차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어떻게 차이가 났어요. 처음 쫓을 때 하고?

마찬가지지요. 무조건 내쫓았어요.

- 땅은 어떻게 했어요?

땅은 소작농하던 사람들에 하고 나머지는 인제 뭐 거기서 또 분배하다시피 해서 나눠주고.

- 거기 노동당조직은 어떻게 됐어요?

노동당조직은 세포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뭐 거기 들어가는 것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남쪽에 가족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사상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만 들어가고.

- 그 사람들 어떤 활동을 했어요?

지금 뭐 난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글썄 뭐 자기네들이 좋다는 거 선전. 뭐 뇌에 박히도록 세뇌교육을 한 거죠. 거기서.

- 내무서란 것도 있었어요?

내무서. 그러니 여기 지금 보면 파출소, 경찰서. 그런 걸 거기서는 내무서라 그래요.

- 북한 경찰서네요?

네, 네. 경찰활동을 내무서라 그래요.

- 그 사람들이 민간인들한테 피해주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 소년단에는 안 들어가셨어요?

소년단에도 들어갔지요, 안 들어갈 수는 없지요. 나이가 되면.

- 거기서 뭘 했어요?

소년단에서 뭐 세뇌교육이죠, 뭐. 자기네가 정치가 좋다 남쪽은 못살고 뭐 거기  
지가 득실거린다. 인제 뭐 교육을 시키고.

- 기억나시는 건 없으세요. 사건이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글쎄 기억나는 게 있다면 인제 저 6.25전쟁 관계 되는 거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저기서 교육은 남쪽에서 먼저 침공을 했기 때문에 반격을 했다. 그렇게 인  
제 거기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피난을 인제 그러니까 국방군이 인제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인제 피난을 원주 갔습니다. 원주 가서 보니  
까 토요일 일요일 다 휴가 보내고 무슨 기력으로 북침했겠어요. 이걸 날조된  
거죠. 이거는 절대 난 북한에서 먼저 내려왔지. 여기서 남쪽에서 먼저 침공하  
는데 휴가 보내고 그렇게 했겠어요? 국군들 휴가 보내고. 이걸 절대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공했지 남쪽에서 북침한 게 아니다 하는 걸 그제서 전 알았습니  
다. 지금 현재도 북한주민들은 다 먼저 남쪽에서 침공했기 때문에 반격을 했  
다 하는데 그건 맞지를 않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 전쟁이 나기 전에 사셨잖아요, 어떤 징후 같은 게 있었나요?

징후 관계는 그때 전 어려서 잘 모르고 군인들이 소련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미가 있었어요. 어떻게? 소련군이 말 타고 들어오고 그런 기미가 있  
었어요.

- 말을 타고 들어왔어요?

예, 말도 타고.

- 차는 안타고?

차는 없었고.

- 소련군이 왔다가 계속 주둔해있었나요?

아니요, 잠깐 왔다가고 잠깐 왔다가고.

- 인민군은요?



인민군은 그 당시에 인민군들은 전방배치를 한 상태예요 여기선 갈 데가 없  
잖아요.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동해안으로 갔지. 여기는 뭐 없잖아요. 그러  
니까 이미 벌써 그 휴전선 몇 달까지 주둔을 시킨 거예요.

- 38선 밑이에요?

예, 38선까지.

-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긴 군인들은 그땐 못 봤어요?

- 그땐 조용했어요?

여기는 뭐 뭐 이북 측이잖아요.

- 그렇지요. 38선이 신남 이남이니까요?

예, 예.

- 그 전쟁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피난 갔죠.

- 바로요?

예.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지요. 저기로 피난 갔었지요.

- 어디로 가셨어요?

저기 우리 여기서 40리 북방 그 장승리란 곳에 가서 피난을 했지요.

- 장승리요?

예, 서화면 장승리요.

- 그러면 북쪽으로 피난을 가셨네요?

예, 북쪽으로 가야지요.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인민군세상인데. 남  
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거기서 뭐 뭐 나무뿌리도 뜯어먹고 연명하다가 그랬죠.

- 가족들 다 같이 가신 거예요?

같이 갔는데 거기서 전염병에 걸려서 다 사망되고 나 혼자만 남았죠.

- 그 전염병 얘기 좀 해주세요.

글쎄 그 당시에는 전염병 안 앓은 사람이 없어요. 다 앓았지. 그런데 그 당시에 듣기로는 그 화학전, 그 세균을 퍼뜨려 가지고 그런 병이 발생했다. 하여튼 그것만 앓으면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10이면 7,8명은 다 죽었어요.

- 그거 왜 화학전은 누가 벌였죠?

그거야 뭐 이쪽에서 뿌렸겠지요. 뭐 이북에서야 뿌릴 이유가 없잖아요.

- 미군에서 했어요?

글쎄 그건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 전염병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지요?

그렇지요 열병. 열병이라 그랬어요.

- 그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렇지요. 다 돌아가셨지요.

- 장승리에서? 모시고 오지도 못하셨겠네요.

그럼요.<sup>73)</sup>

- 장승리는 지금 남한지역인가요?

지금 장승리는 이북지역이에요.

- 부모님 유해는 그쪽에?

부모님들은 여기 인제 아버님은 여기서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여기서 돌아가시고 여기다 모셨어요. 할머니도 여기다 모시고요.

- 아버지 어머니 다 여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

- 장승리 가 있을 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와 가지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힘들었죠.

- 나이 어린데?

그럼요.

- 나중에는 원주로 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땐 어땀어요? 상황이?

---

73) 피난처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는 아래와 조금 다른 상황으로 구술된다. 그것은 부모님이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이곳 피난처까지 모시고 오지 못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된다.

- 원주 그러니까 여기 인제 북진 그러니까 남쪽에서 침범했기 때문에 글로 인제 군인들이 수송해서 원주 피난수용소 그리로.
- 군인들이 다시 와서?  
그렇지요. 북진.
- 그러면 군인들이 점령한 시절에 그럼 군인들이 피난시킨 거예요?  
그렇지요. 군인들 차로다 갖지요.
- 거기 가서는 얼마정도 있었어요?  
거기서 한 일 년 있었나?
- 전쟁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아직 안 끝나고. 일 년 있다가 인제 끝나고 여기로 들어왔지요.
- 어느 정도 끝나다가 1.4후퇴 있었잖아요?  
1.4후퇴. 1.4후퇴까지도 우리 거기 가있었어요, 원주에.
- 그러면 전쟁당시 상황은 어떤?  
그건 모르지요.
- 원주 피난 해가지고 1.4후퇴 후는?  
여기 인제 수복 된다 그래서 들어왔죠. 들어오니까 여기 서화리는 아직 미수복이고 여기 천도리까지만 지금 수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면사무소 면소재지가 여긴데 여기가 수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 천도리에 지금 저 면사무소가 위치가 돼있거든요?
- 원래는 여기였는데?  
네. 거기 있다가 여기가 수복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인제 처음으로 수복된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고향을 찾아 왔습니다.
- 들어오니까 어때요?  
뭐 황무지죠 뭐, 황무지. 허허허. 그럼요. 쭉대가 한 길씩 되고 뭐. 개간해서 농사짓고 그렇게 지냈지요.
- 그럼 천도리까지만, 못 들어가셨으면 천도리에서 사셨겠네요?

네. 천도리에서 살고 인제 고개계 거기서 인제. 그 출입영농<sup>74)</sup>. 그래서 증명을 발급받아 가지고 여기 증명을 제시하고 검문소를 통과하고 아침에 왔다가 저녁때 인제 나가고. 여기서 주거를 못하니까.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 인제 몇 년 후에 여기가 완전히 수복이 돼가지고 여기가 인제 정착이 된 거지요.

- 그럼 민통선이 천도리에 있었네요?

예, 이게 몇 군데 인제 옮겼습니다. 검문소도.

- 농사지을 때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고?

저녁에 가고 그랬지요.

- 한동안, 오랫동안 그랬어요?

한 2,3년 그렇게 했습니다.

- 그 때에 공민증도 발급했다면서요?

공민증이 아니고 영농출입증 발급했지요.

- 인민통치 때는 어땠어요? 인공 때는?

인공 땐 뭐 그런 구애 없이 그냥 농사지었지요.

- 그때도 뭐 증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증명이 있었지요.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 여기 뭐 민간인 집단 피해사건 같은 거 있었어요?

민간인 집단. 글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고요.

- 그 빨치산 활동도 있었나요?

글썄 빨치산은 여기서 크게 활동한 거 같지는 않은데요?

- 좌우익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그런 건?

예, 그런 건 없어요.

- 인민군 통치기 때문에?

예.

- 중공군도 왔다 갔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

74) 출입영농은 민통선을 두고 있는 지역에서는 많은 곳에서 행해졌다. 비표를 붙이고 출입증을 소지한 채로 아침에 농사를 위해 민통선 안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일정 시간이 되면 나왔다.

- 글쎄 잠깐 왔다갔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요 뭐.
- 미군은 안 들어왔어요?  
미군은 그러니까 여기 수복될 때 인제 전쟁 때 들어왔죠.
- 미군들은 와서 피해주고 한 것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 듣자니까 여자들 막 내놓으라 그랬다는데?  
글쎄 간혹 근데 제가 직접 목격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 여기 호림부대란 게 활동했다고 그러던데 들어보셨어요?  
호림부대는 그때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번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전방에 와서 인제 그때 뭐 인민군들하고 교전하고 그랬다는 말은 들었어요.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요.
-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요. 중학교 다닐 땐 어떤 교육을?  
그러니까. 세뇌교육이지요. 뭐. 북한은 자기네 나라를 잘살고, 여기는 거지가 남쪽엔 거지가 득실거리고 뭐 그런. 자기네가 이북이 살기 좋다는 세뇌교육을 받았지요.
- 뭐 단체는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 소년단처럼?  
소년단에 가입했지요.
- 중학교 때도요?  
네. 소년단에는 다 가입했지요.
- 가입할 때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었어요?  
하는 게 없죠. 뭐 의무적으로 다 가입이 되니까요.
- 구호도 외치고 그랬다면서요?  
글쎄 그런 기억이 잘 안나요.
- 나중에 군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치안대인가 조직되고 그랬죠?  
난 나이가 어려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 전쟁 중에 계속 나가있어서 그러신가 봐요? 피난살이는 어땠어요?  
아이고, 말도 아니지요 뭐. 피난살이야 뭐.

- 어떤 대요?  
아이고, 먹을 걸 제대로 먹겠어요. 배급도 준다는 게 뭐 제 양을 다 주나요.  
고생했지요.
- 그러면 수복해서 들어오고 나서는 옛날 토지들을 원주인들에게 다 줬나요?  
그렇지요. 원주인들에게 다 주고 이북에 들어간 사람들 인제 그 토지를 나눠  
줬어요. 농사를 짓게끔.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 이북에 들어간 사람들이 주인인 토지를.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농토가 없는 사람들한테.
- 국가에서 무상으로요?  
예. 무상으로 줬어요.
- 그럼 그분들 토지가 됐겠네요?  
아니, 왜냐면 그 지주들이다 후방에 다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다 찾았어요. 뭐 북에서 내쫓았으니까 남쪽으로 밖에 이렇게 나올 수 없잖아  
요. 그래 그 사람들 와서 다 찾았어요.
- 지주들이 이북으로 간 사람들 없죠?  
이북으로 간 사람들 없지요. 갈 수가 없지요.
- 쫓아내니까?  
그럼요. 이북에 갈 수는 없지요. 다들 남쪽이나 다른데 가야지.
- 갔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요?  
예, 다 찾았어요.
- 수복 후 들어오니까 여기 학교나 뭐 시설들 어땠어요?  
아휴 다 없지요. 흔적도 없지요 뭐.
- 어떻게 지내셨어요?  
남의 집 가서 움막에 가서 처음에 그렇게 살다가 집을 지었지요.
- 그 상황을 기억나시는 대로 좀 더?

천도리 있을 때는 저 그 군인들이 구호주택<sup>75)</sup>이라 해서 그렇게 지어줬어요. 거기서 생활 했어요. 여기에 들어와서도 인제 정부에서 집단적으로 주택을 지어줬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고. 여기 지금 현재 주택도 77년도에 여기가 새로 마을이 생겼거든요. 그래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받아가지고 여기 집단부락으로 됐지요.

- 특별히 뭐 염병사건 뭐, 미군들이 폭격하고 이런 것들, 폭격 같은 거 못 보셨어요? 폭격은 인제 맨 처음에 인제, 중학교 내가 인제 중학교 졸업하고 집에 있는데 비행기가 빙빙 돌더니 그땐 난 모르죠. 그땐 기총사격<sup>76)</sup>. 중학교를 기총사격을 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기총사격 한 거를. 탄피 큰 거 있잖아요. 그래 와보니까 인제 벽이 뚫리고 벽에 떨어지고, 그런 거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땐 모르지요 뭐. 당시엔 몰랐어요. 처음이니까. 나중에 보니까 벽도 뚫리고 지붕도 뚫려지고 그랬었어요.

- 미군이 폭격했다 그래요?

그렇지요. 미군들이 폭격을 한 거지요.

- 그거 말고 다른 거 보신 건?

다른 건 몰라요.

- 미군들이 불도 지르고 그랬다면서요?

글쎄요. 그 불 지른 건 모르겠는데요.

- 못 들어보셨어요?

네.

- 직접 보지도 못하시고?

네.

- 지금 말씀 안하신 것 중에서 6.25때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

75) 구호주택(救護住宅)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할 목적으로 집을 지어주는 것을 말한다.

76) 기총사격은 여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기총소사(機銃掃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곧, 항공기에서 땅 위의 표적을 비로 쏘아 내듯이 기관총으로 쏘는 것이다.

- 글쎄 뭐, 전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
- 저희들 같은 세대는 6,25후잖아요.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 전쟁 비참해요. 해서 앞으로는 그 6,25같은 참변은 없어야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지. 그건 승리해도 손해고 저도 손해고. 그 바람에 얼마나 지금 고통을 인제. ... 하여튼 앞으로 전쟁만은 없어야겠어요.<sup>77)</sup>
- 어르신 말씀 고맙습니다.

---

77) 대화의 "..."부분은 전쟁 후 피해에 대해서 탁자 위에 써 놓은 것을 읽은 것이다.





어르신들이 겪어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정무교



## 정무교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 휴학 중  
한림성심대학교 출강  
현 인제인문학당 학장

저서 : 『인제 사람들의 전통음식』

# 어르신들이 겪어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38도선에 있는 우리 인제는 과거에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뒤에 이념을 달리한 남과 북이 마주친 이곳에서는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긴박한 긴장이 주민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곧 터진 한국전쟁에서 공산군이 인제를 점령했고, 이어 다시 국군이 탈환을 했지만 실제로는 공산군이 점령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힘이 없는 주민들은 이 밭에 채이고 저 밭에 밟혔습니다. 주민들은 살기 위해 이 밭을 붙잡았고, 저 밭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세우기도 전에 타력에 의해 주어진 환경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목숨이 얼마나 죽었을까요?

지금 우리 인제에 계시는 70-80대 연배들은 젊은 시절에 이런 일을 겪은 분들입니다. 이들은 밝고 힘찬 미래를 꿈꾸며 삶을 준비해야 할 나이에 처절한 비극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몸에는 분단·전쟁·이념이라는 단어가 박혔고, 박힌 자리에서는 지금도 피가 납니다.

이번에 구술을 해주신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한국전쟁에서 부모님이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여든이 넘은 이 분은 이 말을 하며 목소리가 젖었고, 눈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공산당 면당위원을 했고,

거제도포로수용소에 있다가 돌아온 다른 한 분은 구술하는 내내 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누가 전쟁을 환영하겠습니까? 누가 동족에게 총을 겨누고 싶겠습니까? 전쟁을 겪은 세대는 몇 권력자들의 욕망과 오만에 의해 고통을 당한 희생자일 뿐입니다. 그때의 일을 두고 희생자들끼리 비난하거나 정죄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옥보이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험한 세월을 겪은 분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나 같은 젊은 세대는 이분들을 이해하고 보듬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이 이와 같은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역할을 한다면 그건 이 책을 기획한 인제군청 문화관광과 황언중 주사님과 재가한 이순선 군수님의 덕분입니다. 인제문화원 남덕우 원장님과 백창현 국장님의 조언과 일처리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울러 나보다 더 훌륭한 원고를 마련한 이학주 교수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을 겪은 우리 아버지와 구술을 해주신 조병수, 김인호 어르신 그리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어르신들이 겪어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르신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정무교

## 딱꼭총을 들고 싸웠지



- 구술자: 조병수
- 구술자 나이: 82세(1930년생)
- 면담자: 정무교
- 면담주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의 기린면과 구술자의 삶.
- 면담일자: 2012년 10월 13일, 15일
- 면담장소: 인제읍 상동리 조병수 씨 자택

## 〈면담상황〉

인제문화원에서 조병수 씨를 추천해서 전화로 방문날짜를 잡았다. 상동리의 주택가에 자리한 집은 깨끗한 양옥이었고, 실내도 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누런 햇살이 거실에 들어와 분위기가 좋았다. 조병수 씨는 아들 내외와 살았고, 부인이 병중이라 방에 누워 계시며 가끔 힘들어 하는 소리가 거실로 흘러 나왔다.

잠깐 인사를 드리고, 구술을 하는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렸다. 조병수 씨는 자신의 삶을 구술하고 싶은 의욕이 많았다. 곧바로 구술을 녹음하는데 방문한 날이 토요일이라 그런지 집에 있는 손녀와 찾아온 친구들이 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거실까지 크게 들렸다. 나중에 구술을 풀 때 애를 먹었다.

조병수 씨는 연세에 비해 매우 건강하셨고 거실이 울릴 정도로 목소리가 찌렁찌렁했다. 기억력도 좋으셔서 구술을 하기에 문제가 없었다. 구술은 두 시간씩 두 번 진행되었다. 구술을 하는 조병수 씨는 자신의 배역에 몰입한 배우처럼 때로는 흥분했고 때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력에서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포장해서 말했다가 스스로 그게 아니라고 정정해주기도 했다. 그러므로 조병수 씨의 구술에 상당한 신뢰가 갔다. 특히 조병수 씨의 구술은 일제강점기의 모습과 생활에서 강점이 있었다.

-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호적상 30년생이에요.

- 성함이?

조병수고.

-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기린이고 북1리에서 태어났어요.

- 30년생이시면 해방될 때 열다섯 정도이시네요. 가장 어릴 때 기린의 모습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집이 부자였다고 하는데 태어날 당시에는 무척 가난해서 남의 토지에서 남의 집에서 살 때 내가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서 대어

첫 살 어릴 때까지의 과정은 모르고, 할아버지가 한학자세요. 한문선생을 하  
 시고. 아버지는 아주 무식하시고. 한 일곱 살 때 한문서당에 들어갔어요. 이  
 윗동네에 한문선생이 있어서. 집에서 미리 할아버지에게 천자문을 배우다가  
 서당에 들어가니까 얼마 안 돼서 다 끝내더라고.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  
 는지, 천자문을 떼면 그 다음에 계몽편이나 그래도 쉬운 걸 해야 하는데, 그거  
 뭐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에 땅이 있는 거는 헛소리 필요가 없고, 명심보감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일곱 살에 명심보감을 배웠어요. 그거 뭐 반 정도도 못 배  
 웠는데 우리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강가에 가 물놀이를 좋아하고 고기사냥을  
 좋아하셔서 애들 데리고 날마다 강가에 나가 노니까 학부형들이 글은 안 가  
 르치고 물놀이만 한다고 쫓아버렸어. 그래서 반 정도 다니다가 말았고. 그다  
 음해에... 열 살 때에 또 시작을 해서 명심보감을 마저 배우고 거꾸로 동몽선  
 습을 배우고. 그때는 할아버지 사촌동생이 되는 분이 저 방동이라고 딴 동네  
 에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 와서 가르쳤어요. 이 맘 때예요. 근데 그 자제 분이  
 무슨 사건에 연루돼서 인제경찰서에 잡혀가는 바람에 또 해를 못 채우고. 그  
 다음해에 젊은 선생님이 열아홉 살인데 그 양반이 와서 마저 채웠어요. 그래  
 서 내 나이가 열두 살인가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가고 있다가 왜정 때는  
 중도입학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고 기초, 뭘 좀 아는 게 있으면 3학년이나 4학  
 년에 입학할 수 있거든. 42년도에 기린초등학교에 4학년에 입학했어요.  
 45년도에 졸업을 하고 8월에 해방이 됐지.

- 가족배경이 어떻게 되세요?

당시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고, 어머니와 아버지 계시고, 육이오 전에  
 는 육남매에 내가 맏이예요. 남동생 넷에 여동생 하나가 있어 동생이 다섯이  
 나 됐었고. 나는 8.15 해방이 되자마자 조혼을 했어요. 할머니가 해방 되던  
 해에 일흔 셋이셨는데 연세가. 할머니 소원이 손주며느리에게 밥 한 그릇 얻  
 어 먹어보고 죽겠다고 빨리 장가들라고 재촉을 하는 바람에 일찍 장가를 갔  
 어요. 참 원대로 손주며느리가 들어오고 12월 달에 한 달 있다가 십이월 달  
 에 돌아가셨어요.



- 아 그러세요. 소원을 푸셨네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땅이 많이 있으셨다고, 부자 시라고요?

아냐. 남의 땅에서 소작을 지셨어요. 일제 말엽에

- 아, 그럼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아버님은 농사지시면, 장사 소장사도 하고 약초장사도 하다가 별 장사를 다 했어요. 그러다가 농사철이 되면 농사를 지시고, 남의 소작을 붙이고 남의 집에서 살았지만 생활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활약이 좀 크시니까는. 그렇게 남의 토지를 붙였어도 어렵지는 않았어요.

- 소작할 때 얘기를 해주세요. 그쪽 주민의 땅을 붙이셨겠죠?

우리가 붙이던 땅 지주가, 이 양반이 열아홉에 혼자 된 소녀 과부로 늙어서, 언제 과부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내 나이 열두 살 땐가 이 양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가 붙이던 땅에 산이 있어요. 거기에 장사지낸 걸 가서 보고 그랬는데. 밭이 한 오육천 평 논이 한 천여 평 이렇게 됐어요. 꽤 컸어요. 천수답이 돼서 모를 제때 심은 때가 별로 없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소작료를 아주 싸게 줬어 아주. 아버지가 약초장사를 다녔는데, 지주가 홍천 삼포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갔다 와서는 얼마를 주고 왔다는 말을 하셨어요. 아주 너그럽게 해서 소작료를 싸게 붙이다가... 해방이 됐죠. 그걸 붙이는데 일제시대에... 공출이 있어요 공출. 내가 알기로는 논이 온전한 논이 아니라 때에 심지도 못하는 천수답이 돼서 가을이면 공출을, 벼를, 내가 기억하기에는 벼를 여섯 가마, 일곱 가마 정도씩 공출을 했거든. 잡곡도 콩, 옥수수, 팥 이런 것도 다섯 가마 여섯 가마 이렇게 했어요. 우리 살던 데서 면소 재지까지 가자면 한 오 킬로가 넘어요. 그걸 전부 지게로 저 날랐어요. 전부 저 날랐어요. 양곡도 공출을 하지만 그때 안 하는 게 없었어요. 개도 잡아서 꺾데기 벗겨서 공출하고, 돼지도 잡아서 꺾데기 벗겨서 공출하고. 또 산에서 싸리나무 있잖아? 싸리나무 꺾데기도 벗겨서 공출하고.

- 싸리나무 꺾데기를 뭐에 쓰죠?

직물원료로 쓴다는데. 칩 꺾데기도. 피나무 꺾데기도 공출하고, 촌에서는 이

걸 걸 껌데기는 버리고 속껌데기를 말려서 찌서 파서 소고빼 같은 거 바 같은 거 만들고, 빨래줄도 만드는 데 이것도 공출하고. 또 송진을, 생소나무를 이렇게 되돌려 파서는 밑에다가, 그때는 강통도 귀했어요. 맥주병 사 홉들이 병을 가운데에 실로 감아서 기름을 칠하고 불을 붙이면 툭 치면 반이 떨어져요. 밑에 거를 소나무에 달고, 위에 거는 주둥이가 있잖아. 달아놓으면 한 곳에 고이게 돼요. 그럴 초롱에 담아서 공출을 하고. 관솔을 해서 그노무걸 가마에 이렇게 담아서 얹어놓고 끓이면 뜨거우니까 송진이 나오는데, 나중에는 양원리 고개가 있는데 지금의 기린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그곳에 공장을 지었어요. 일제가 관솔에서 기름을 뽑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 기름을 무슨 연료로 쓰인다고 하더라고.

- 그때가 언제 인가요? 공장 만든 때가?

그때가... 이차대전 막 나고 그러니까 소화 1942-43년 그때지.

-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었나요?

그게 뭐 공장이라야 돌담을 쌓고 흙으로 이렇게 해서 기둥을 세워서 꼭대기만 덩고 길게 만든 곳인데. 여기서 송진을 내다가 해방이 됐는데.

- 관솔을 주민들에게 다 걸어서 기름을 짠 곳이네요?

그렇지. 주민들이 산에서 관솔을 해서 받치면 여기에서 기름을 짰지. 돈을 받는 게 아냐. 전부 그냥 주는 거지.

- 돈 받는 게 아니군요?

그럼. 또 지금 3군단 사령부 앞에, 산머루 있잖아? 산머루술도 공출을 해. 그 걸 삶아서 그 물을 가져가. 그건 뭐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삶아서 건져서 짜서 건대기를 산더미처럼 쌓고는.

- 그때 경제형편을 말씀하셨는데, 조 선생님 댁은 살만 하셨다고요?

우리는 그래도 살만했지. 그 동네에서는. 지금의 궁동 그 아래 골짜기 안인데, 논이 많아서 논농사를 짓는데 논농사 지는 사람이 전부 소작이었어요. 탁 낙현이라고 서리에 사는데 그 사람이 뭘 해서 돈을 벌었는지 동네 논이 대개 그 양반 논이었어요.

- 탁 씨네요?

그렇지. 그 집 논을 붙였어요. 소작을 해도 논농사를 하는 사람은 쌀밥을 먹고, 어려운 사람은 죽 썬 먹고.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은 많지는 않았어요. 굶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고. 어려운 사람은 배급을 식량배급을 줘요. 우리도 소작이니까 대상이 돼서 배급을 타다 먹어봤지. 대계 공출을 가난한 사람은 아니고 다 했어요.

- 공출로 다 가져가고 배급을 주는 건가요?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수확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계 공출은 아주 가난한 사람은 아니고는 다 했어요.

- 배급도 줬다는 말씀이시네요?

배급은 어려운 사람에게 하고.

- 배급으로 뭘 주나요?

뭘 배급으로 쌀도 주고 콩도 주고 팥도 주고 옥수수도 주고 심지어는 콩기름을 짜고 남은 콩깻묵도 주고 그랬지. 그 당시 생활은,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참 그제... 뭐라고 할까. 몰라서 그랬지. 그때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일본놈이 다 됐어. 학교에서 한국말 하다가 걸리면 주변선생에게 걸리면 그 주변일지에 올라가서 저녁 때 남아서 변소청소하고. 개들은 일본말을 국어라고 해. 조선말을 '조생고'라고 해서 조선어라고 하지.

- '생고'가 무슨 말인가요?

조선어. 조생근데 조자를 빼고 약칭으로 생고라고 하지.

- 일제 때에 기린에 일본 사람은 얼마나 있었나요?

일제 때에 일본 사람은 그렇게 없었어요. 가와카미 고토라고 국민학교 선생이, 일본 재향군인, 총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 있었고. 그리고 마츠모토 구토라고 주재소 부장, 지금 말하면 지서, 파출소지. 두 사람 밖에 없었어요.

- 그 사람 가족들은요?

가족들은... 같이 살았겠지. 몇 명인지는 모르지. 기린에는 두 사람이라. 인제 읍에는 꽤 많았겠지.

- 그러면 기린에서는 일제 아래 산다는 걸 크게 못 느꼈겠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둘이지만 관청이나 학교 선생은 모두 일본 사람이다 시피 됐으니까. 학생들도 일본 사람이 다 됐다니까. 학교에 가면 아침마다 조회를 해. 아침에 죽 서서 제일 먼저 '궁성요배'라는 걸 해.

- 궁성요배?

응 궁성요배. 일본 천황이 있는 곳에다 멀리서 절을 한다는 뜻이야. 사십오도 각도로 허리를 숙여서. 일본이 저쪽이잖아. 하면서 '최고로 높게 경배한다'는 일본말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말로는 묵념이지만 개들 말로 묵도를 해. '대동아전쟁을 완수하게 위해서 필승을 위한 묵념을 올린다' 그걸 아침마다 하는 거야. 그때 쇠물안골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작은 학교지만 아침마다 군인들이 열병식이 있잖아. 그 열병식을 해. 배낭을 다 짊어지고 목총을 짊어서 어깨총하고. 일본이 그렇게 가르쳤어.

- 쇠물안골 학교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됐나요?

그때 한 백 명도 안 됐을 거야. 아마.

- 기린초등학교는요?

거기는 한 사오백 명 됐을 거야.

- 굉장히 많았네요. 일제 때에 소작인과 지주가 나누는 비율은?

오십대 오십으로 나뉘었어요. 반반씩. 소작도 반 나누는 게 있고, 아주 잘라서 여긴 다 먹어라 하는 것도 있었고.

- 기린에서 일본 사람이 땅을 가진 것은 없었나요?

그런 모르겠어요.

- 그러면 우리 사람들끼리 소작을 주고 붙이고 했네요?

근데 면서기도 일본 사람이 다 했어. 한 번은 우리 아버지와 친한 친구가, 그 양반도 소작을 붙이는 분인데, 우리보다 무척 가난하게 사는 분이야. 그 분이 현리에서 배급을 타서 짊어지고 오다가 감자창고가 있는 길에서 쉬고 있었어요. 내가 같이 있었어. 거기에 탁낙현(지주)의 아들이 면에 다녔어. 면서기였는데 올라오면서, 그때는 면서기도 군청에 걸어다녔어요, "뉘냐?"고 한 거에

요. 아 배급 타서 간다고. 그러니까 이노무 새끼가 하는 얘기가 “공출을 얼마나 했냐?”고 물어. 이 양반은 원래 없으니까 공출도 못하거든. “아, 저는 농사도 얼마 안 되고 없어서 공출을 못했습니다”라고 한 거야. 면서기는 젊은 놈이니 나이 차이가 아버지뻘인데 하는 얘기가 “공출도 못하고 배급이나 타 먹으면 나라에 손해만 끼치는 거지. 한 가마니 공출하고 두 가마니 배급 타먹는 사람은 다 뭐하는 인간들이야!” 그것도 반말로. 내 나이가 어렸지만 참... 아주 때려주고 싶더라고. 그 양반은 말도 못하고 당했지. 면서기가 한국 사람이 면서도 그런단 말이야.

- 면서기의 위세가 대단했네요.

그때는 뭐... 면서기라고 하면 간섭을 안 하는 데가 없어. 장날에 술 먹고 비틀거리고 돌아다니면 쫓방망이 때리는 건 보통이고.

- 면서기가요?

면서기가. 일본의 식민지가 영원히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 적에 독립투사들은 상해에서 투쟁을 하고 있었어. 항일투쟁을. 그걸 모르고 우리는 그저 일본놈이 다 돼가지고 가르치는 게 그거니까 일본에 충성하고 이렇게 살았지. 제일 억울한 게,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온다니까. 가르치는 게 그거니까. 충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가 교육이 아주 낙후된 곳이야. 지금 생각하면 전국에서 최고로 낙후된 곳이 여기가 아닌가.

- 라디오나 신문이 없었나요?

없지요. 라디오 거 책에서나 들었지. 라디오 보지도 못했고.

- 신문도?

신문은... 그때 볼 나이도 아니고, 농촌에서 신문에 동네에 신문이 없고. 소재 지나 나가야 신문이 있었지.

- 그때 다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라디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육이오 때도 라디오가 없었어요. 라디오가 있었으면 방송을 듣고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지. 여긴 그런 거 없었어.

- 일제 때 기린에서 한국인들의 정신의 지주라든지 끌어줄 만한 분이 없었나요?

그거 기억 안 나요. 일본 놈 등 대고 권세 부리던 놈들은 생각이 나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어. 우리 할아버지들이 제사 때나 이렇게 모여 앉으면은 의병난 리 얘기하시고... 일본은 반드시 패망한다고. 언젠가도 망한다고 망한다고 할 아버지들은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고지 들리지 않고... 뭐라고 할까. 나쁘게 말하면 국가에 반역 나라에 반역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망한다고 하니까 ‘이 양반들이 큰일 날 소리 하네’ 했지.

- 태어나 학교 가서 배운 게 그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학교에서 배운 게 그런 거니까. 일본의 초대천왕과 ‘아마테라스’라고 천주대신을, 이거를 각 가정에 줘요. 황태신궁이라고 해요. 이걸 벽에 걸어놓고 아침마다 절을 하는 거야.

- 하나는 초대천황이고 하나는 일본인의 신이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절을 하는 거야. 이렇게 6년 동안 가르치면 그렇게 안 되겠어? 지금 북한 애들이 사상이 투철한 게, 지금은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김일성 장군 김정일 장군 가르치니 그렇게 되지. 그런 식이지.

- 할아버지나 어른들이 뒤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 거 없어... 저 예를 들면 경상도나 뭐 학자들이 많이 사는 곳은 뭐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는 원래 촌이고 배운 사람이 없고. 할아버지들은 모이면 일본이 망한다 망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애들끼리 일본말로 떠들면 할아버지들이 소리를 질러. “이노무 새끼들! 듣기 싫다” 하시며 소리를 질러. 꾸중들을 많이 했지. “듣기 싫다”고.

- 기린의 물산, 기린은 뭘 하며 살았나요?

밭에 옥수수, 조, 팥, 콩 그러지 뭐. 그 외에는 없고. 어디에 가서 공장이 있다. 고기 잡을 때가 있나 뭐.

- 화전은 많이 있었나요?

화전은 많이 했지. 화전을 하다가 아주 깊은 산에서 들키지 않고 화전을 하다가 들키면 벌금 물고.

- 일본 사람들 기세가 등등하니까 화전을 하는 사람은 고생을 했겠네요?

그렇지.

- 기린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걸로 자급자족을 했겠네요?

그렇지. 그때는 어디서 원조물자가 하나와요. 어디에 가서 사올 수가 있어. 기린의 곡식이 양양으로는 더러 넘어갔어요. 양양에 왜정 때 철광석 광산이 있었거든. 철광에서 고기 짊어지고 기린에 와서 곡식으로 바꿔가고. 어떤 사람은 돈을 가져와 사 가는데, 외지 반출을 못해 양곡은. 곡식반출이 안 되는 데 그러다가 들키면 혼이 나지. 밤에 산길로 짊어지고 가지. 양양으로는 더러 넘어가.

- 초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배우셨나요?

초등학교 때, 1-3학년 때는 국어, 산수, '수신'이라고 해서 '도덕'이지. 공작이라고 해서 손으로 뭐 뭐 지푸라기로 뭐 만들고. 음악도 있고. 4학년이 되면 이과라고 해서 과학이지. 지리, 역사도 있고. 국사는 일본역사지. 그런 거고. 우리 교육에 국민교육헌장을 외우잖아? 우리가 배웠던 '수신'이란 책 첫 머리에 '측어'라고 나와요. '측'은 왕을 얘기하는 거고. 천황이 얘기한 거지. 유신 때 국민교육헌장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때. 내 국민교육헌장을 없앴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인데. 그걸 잘 만들었거든. 일본 놈들은 측어네 그걸 지금도 거반 외웠지. 국민교육헌장을 깊이 들어가면 측어지(일본말로 외우신다). 내용을 보면 '만년 동안 하나로 내려오는 천황인데, 역조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너희 신민은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부부간에 화합하고 내 몸을 낮추고... 이런 뜻이거든. 그리고 진흥을 계발하고.. 자손들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잘 살라'는 내용이야. 잘 된 글인데 단지 '너희들 신민'이라는 글이 군국주의니까 안 좋지.

- 수신이라는 과목에서 배우셨다고요?

그렇지. 이걸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책 첫 머리에 나와요.

-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중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있었나요?

그때는 중학교가 기린에도 인제에도 흥천에도 없었어요. 흥천중학교를 1947

년에 우리가 성금을 거둬서 흥천중학교를 세웠어. 그 전에 중학교 가려면 서울이나 춘천으로 가야해. 기린에서 아마 중학교 간 사람이 불과 몇 될 거야.

- 있기는 있나요?

있겠지. 전형산 같은 사람이 갔지. 방우석이 같은 사람은 우리보다 한 살 더 먹었으니까 학교 못 갔고. 그 뒤에 육이오 후에 어떻게 했는지 공군 소장으로 예편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1945년 팔일오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는 그 전에 태극기를 못 봤거든.

- 태극기를 못보셨어요?

못봤지. 해방되기 전에는.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감춰둔 걸 꺼내서 보고 그려서 싸리가지에 이렇게 달아서 혼자 들고 나와서 흔들었지. 만세를 부르고.

- 그날이 팔월 십오일이었나요?

우리는 팔월 십오일에 몰랐지. 그 다음날 십육일에 해방이 된지 알았어. 팔월 십오일이 음력 칠월칠석이에요. 그 다음날에 소문이 확 돌아서 뛰쳐나와서 만세를 불렀지. 우리가 만세를 부르니까, 아까 일본사람 둘이 있었다고 했잖아? 북한에 있던 일본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일본으로 갔다는데, 우리는 참 곱게 보냈어. 우차에다가, 소가 끄는 달구지에 가마니로 묶었는데 쌀인지 벼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댓개 신고 총도 신고, 무장도 안 시키고 총을 짐에 짊어져서 신고 지나가는데, 식구들과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 내가 서서 봤어.

- 이북에 있던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 다음해에 우리가 역골로 이사를 했어요. 같은 북리인데 공동유원지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올라가다가 뭐 지어 놓고, 그쪽이야. 거기에 살았는데 그때가 여름이야. 일본놈들이, 한 칠십 명이 무리를 지어서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신도 못 신고 옷도 다 찢어지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 함경돈지 어딘지. 한 70명이 걸어 내려오더라고. 진다리라고 현리 들어가는 입구. 지금 주유소 앞에 역골에서 나오는 개울에 다리가 있어. 그 다리 밑에 집결을 해서 밥을 얻어 먹고 살면서 죽은 사람도 몇 있고. 암만 우리가 압제를 받긴 했지만 인간적으로 불쌍한 생각도 들더라고. 그때 김형도라는 사람이, 육이오 나고 경찰을 했



는데 일본 여자가 죽자 그 애를 지가 데려다가 키운다고 데려갔어요. 육이오  
가 나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 불쌍해서 키운 거지.

- 여자 안가요?

남자 애지. 북한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며 쫓겨 갔어.

- 일제 때에 재산이 있어서 유세를 부리던 한국인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생각 안 나요. 저 방동...방동 1리 2리가 있는데.. 나도 어릴 때  
들은 얘기라 확실한 건 몰라요. 방동약수가 가다가 지금 초등학교가 있는데, 공  
병대대가 있는.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 양반이 인물도 잘나고 글을 쓰  
면 필체도 좋고 그래요. 방동 1리에 살면서 2리에 구장을 했어요. 난 들은 얘  
기지,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확실히 모르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지으면서  
보급대를 풀어서 집을 지었다. 집이 기와로 아주 크게 잘 지었어요. 3군단이  
수몰이 되면서 이동해서 들어갈 적에 군부대 주둔지로 보상 받아서 집이 헐  
렸지만은 잘 지은 집이에요. 이 양반이 부자고. 말하자면 세도를 부린 거지.

- 지주들이 재산이 많으니까 세도 부리기는 좋을 텐데요?

기린에는 그렇게 세도를 부리고 땅을 많이 가진 자주들은 없었어. 아까 얘기  
한 탁낙현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 많은 건 아니고. 옛날 기린면장  
을 하던 이기형 씨라고 그 양반은 산은 많았는데 논이나 소작을 주던 거는 기  
억이 안 나고. 목상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상남에 장덕수라고 그 양반이 재  
산도 있고, 집도 잘 짓고, 전쟁 후에 짓고, 이 양반은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호  
해주고. 인망을 얻었다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 해방이 되  
고 삼팔선이 생겨요. 미국이 원자폭탄을 일주일만 빨리 때렸으면 삼팔선이 못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본에 항복을 받거  
든. 그러면 소련군이 한국에 들어올 시간이 없다는 얘기가야. 소련군이 독일에  
게 먼저 항복을 받고, 북한이 가까우니까, 두만강 저쪽에 관동군이 있었잖아.  
소련이 독일에 항복을 받고 바로 관동군을 쳐들어갔거든. 미국보다 소련이  
먼저 한국에 들어온 거지. 그래서 삼팔선이 생긴 거지. 일주일 내지 십 일만  
빨리 원자탄을 때렸으면 삼팔선이 안 생기지. 이걸 어디 신문에서 본 건데 맞

는 얘기더라고. 그래서 삼팔선이 생겼는데... 삼팔경비를 처음에는 한청원들이 몽둥이 들고 나와서, 넘어온다고 지키잖아요.

- 한국청년단이요?

처음에는 청년단 명칭도 없이 하다가 '호국청년단'으로 하다가, 그 뒤에 '한국청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지. 그때 삼팔선을 지키려니까 병력이 있어야 되잖아. 누가 맡아야 돼. 국방경비대는 원주에서 뽑아서 훈련을 시켰는데, 극소수고. 경찰을 모집해서 경찰관들이 삼팔선에 내려와서 삼팔선을 지키는데, 한 동네에 나와야 네댓명이고 동네 청년들이 몽둥이 들고 같이 지키는 거지. 그렇게 몇 해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1948년에 건국이 되잖아. 북한은, 애들은 벌써 김일성이가 임시 인민위원장이 돼서 46년도에 벌써 법률을 공포를 해. 토지개혁법령, 산업국유화법령, 남녀평등권법령 등을 공포해 버려. 그래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데 개들은 무상몰수 무상분배거든. 있는 사람들의 토지를 몽땅 빼고 토지뿐만 아니라 집도 다 빼었지. 몸뚱이만 나가. 손가락 하나도 못 가져가. 미리 몰수를 당하는 걸 안 사람은 몰수를 당하기 전에 슬금슬금 더러 빼들려 놓고 뭐라도 집에서 가져나오는데, 난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당한 사람은 그냥 몰수를 당해. 우리 집이 삼팔선 근처잖아. 자고 일어나 나가보면 삼팔선을 넘어온 사람들이 개울가에다가 밥하느라고 불을 놓고 밥 해먹고 그랬지. 토질몰수 당하고 피난 온 사람들이.

- 저희 집도 이북이 고향이거든요. 토지를 몰수당했어요.

어딘데?

- 황해도 장연군이예요. 역골 넘어 쪽에 있는, 아는 분들도 넘어왔나요?

있죠. 그런 사람도 넘어온 사람이 많아. 같이 초등학교 다닌 사람들이. 부자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평민들은 거기서 그대로 살고, 그 가운데 넘어온 사람도 있고. 이북정치가 싫으니까.

- 반대로 이쪽에서 땅이 없는 남쪽 사람들이 무상분배니까 북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나요?

에이 없어. 넘어간다고 덮어놓고 주나. 주로 소작붙이는 사람들에게 주고 아

니면 그 밑에 머슴 사는 사람에게 주고 아니면 동네에서 제일 못사는 사람에게 주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소식을 들으면 나도 넘어가자.

하하. 그런 건 없어. 단 하나, 경비대에 갔다가 도망을 와서는 휴전이 되고 보니까 속초 대포 물치라는 데 거기서 사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경비대에서 도망을 왔거든. 그 식구가 몽땅 없어졌거든. 월북했을 거다. 했는데 거기에 살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국방경비대가 육군으로 전환되면서는 삼팔선 경계를 국군이 나오고 경찰들은 철수를 했지. 저 아래 지방으로 경찰은 출동경찰로 다 갔지. 1948년 한 10월 달에 국군이 처음으로 삼팔선에 나왔어. 그런데도 역골에 2대 분대가 나왔어. 저 평밭에서 운니덕까지 거리가 얼마데 무슨 수로 2개 분대가 삼팔선을 지켜. 그 병력으로 뭘 지켜. 그런데 인민군 애들은 왜 그렇게 밤에만 기어 나오는지. 뭐 거의 날마다 넘어왔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 가고 총도 내버리고 가고. 이러면서도 자꾸 나오더라고.

-뭘 하려고 넘어오나요?

모르지. 발각이 되면 냅다 쏘니까 넘어가고. 재들은 간첩들을 이쪽에 엄청 많이 보냈어요. 사람을 포섭하라고. 내가 아는 분도 더러 이제 나왔어. 개들은 그때부터 그런 공작을 했고.

-아는 분도 만났어요?

만났고. 그래서 자기네 정치가 좋다는 거지. 노동자 농민의 나라라고. 노동자가 제일이고, 없는 사람 살게 만들어주고, 부자는, 지주 자본가는 때려잡아야 한다는 거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야. 무조건 때려잡아가지고.

-공작을 하는 게 간첩을 만드는 거와 데려가려고 하는 건가요?

데려가려고도 하고 자기네 사람 만들려고 그러지. 선전하려고.

-내가 아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그런 말을 한 적 있나요?

그렇지.

-넘어간 사람도 있나요?

내가 알기론 없어요.

- 일제 때 소작쟁의는 없었나요? 지주와 소작인들 간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반목?

그런 건 없었어요. 크게 많이 가진 사람이 없었으니. 촌이다 보니까.

- 일제 때에 좌익사상 가진 사람이 와서 뭐...

일제 때는 좌익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아까 말했지만 독립운동, 항일운동 하면서도 그 속에서 좌우익의 싸이 트더라고. 일정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나중에 책에서나 알았지. 일제 때는 몰랐어요. 라디오나 신문이 없으니. 소문으로 마적단이 어디 출몰해서 동네를 털고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들었지. 그게 지금 생각하면 빨치산, 김일성부대를 말하는 건 가봐. 김일성군대는 신묘한 재주가 있다고 이랬거든. 그래서 김일성이 나와서 보니까 그 김일성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 새파란 젊은이야. 왜정 때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

- 일제 때 기린에 독립운동가나 항일운동가는 없었나요?

그런 거 몰라요. 의병난리 얘기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도 경험했더라고.... 그게 이제 항일투쟁이었었는데 그때 포수들이 동원돼서 의병으로 싸웠다고 해요. 일본 사람이 둘 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그맘 때는 헌병까지도 여기에 들어왔나 봐요. 들어와서 의병과 싸웠다고 했어요. 헌병이 정국을 안정시켜 놓고 철수를 하고.

- 포수들을 앞세워서 싸움을 벌였다 말씀이시죠?

그렇지.

- 기린에서 종교는?

그런 거 몰라요. 교회도 절도 없었어요. 백백교니 보천교니 하는 말은 들었어요. 백백교인가 보천교인가 거기에 다니다가 한 사람 붙잡혀서 징역 갔던 사람, 여기에 살다가 춘천에 나가 사는 박 씨라는 사람이 있어. 예수교니 천주교니 이런 건 들어보지도 못했어.

- 절도 없었나요?

중은 다녔는데... 기린에 절이... 절이 없었고. 3군단이 들어온 뒤에 절이 들어왔지. 그리고는 ..... 예배당을 본 것이 내가 포로가 돼서 끌려갈 적에 북한에 순간 근처에서 들어가 자는데 이게 예배당이라. 북한에서 헌법상으로는 종교

의 자유가 있지만 아주 박해가 심하잖아. 그 집을 손질하지 않아서 비가 다 세더라고. 비가 막 세는데 마룻바닥에서 들어가서 지는데, 그때 예배당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

- 일제 때에 인제로 나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 해방되어 만세 부르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생각하니까는 알 것도 같고 그런데, 해방이 되니까 날마다 벽보가 나와 붙는데, 그때는 처음엔 국호를 '동진공화국'이라고 하더라고. 못들어 봤어요?

- 처음 듣는데요.

처음에는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다가 그 이튿 날 어디를 갔다 오니까 동진공화국이라고 동진공화군만세를 부르더라고. 주석에 김구 육군대신 김일성, 조소앙, 김규식, 조만식 뭐 뭐 무슨 대신 쪽 붙더라고. 며칠 지나면 떼 게 또 붙어. 그게 좌우가 대립이 돼서 서로 갖다 붙인 거지. 우리가 갈피를 잡을 수 있나. 나중에 책이나 보면서 싸운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알았지. 우리는 일본 놈이 다 돼가고.

- 1945년 뒤의 기린의 모습을 말해주세요.

기린의 모습은 호국청년이라고 아까 말했지? 그 호국청년을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시키는 사람 두 명씩을 면에 집결을 시켜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배워와서 동네 청년을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는 제식훈련을 전부 왜정 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치는 게 전부 미식으로 가르치는 거지. 그때 역골이 한 칠십 가구 되는데 아랫역골 웃역골 이렇게 갈리는데, 교관이 따로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그게 국군이 창설되고 나서구나... 국군이 지나다가 보면은 훈련하는 게 같잖으니까 쫓아 들어와서 가르치고. 그때 삼팔선 근무하면서는 애들이 저녁마다 넘어와서 통탕대고 전투를 하고. 그때 고재삼이라는 사람이 6사단 정보원이라고 그랬는데. 사단정보처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비전투원이고. 이 사람들은 임무가 지방빨갱이들 잡아들이는 거야. 잡아다가 두드려 패고. 어떤 날은

밤에 와서 뼈라를 뿌려요.

- 북쪽에서요?

응. 북쪽에서. 넘어와서 뿌렸는지, 뼈라사건이 터지면 동네 사람들을 엮어놓고 몽둥이로 치네.

- 정보원들이요?

그럼. 특히 이북서 넘어온 사람. 삼팔선 밑이니까 넘어와 살면서 북쪽으로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거든. 뼈라사건이 터지면 그런 사람을 들고 패고. 애매하게도 많이 맞았어요. 고재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그놈은 총도 안 가지고 단도만 요만한 거, 학생복 입고 모자 쓰고 뒷주머니에 칼을 넣고 혼자 다녀. 49년 2월 달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는데 그 이튿 날 한청원들을 동원시키더라고. 어디로 가냐면 하답이라는 데 그 길이 차단됐거든. 그 차단된 길을 한청원들을 동원시켜서 연결을 시키는 거야. 왜냐면 북진, 쳐들어간다는 거야. 그래 그 길을 연결시키고 4월 달에 북진을 한다고 1개 중대가 지금 초등학교 앞에 경건장이라고 옛날 누에고치 공판장인데 그제 거기에 1개 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1개 중대가 주둔한 데를 1개 대대가 들어온 거야. 그게 춘천에는 표 소령 여긴 강 소령 그 얘기 못들어 봤나? 2개 대대가 6사단에서 동시에 월북을 했잖아.<sup>1)</sup>

- 월북을 했어요?

음. 쳐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북한하고 연락을 해서 며칠 몇 시에 연락을 해서 들어갔지. 1개 대대가 자고서는 새벽에 떠났단디가. 떠나서 행군을 시켜서 들어왔는데 대대가. 우린 그때까지 몰랐잖아요. 낮에 밖에 가서 콩을 심을 때야. 콩을 심는데 반장과 청년단장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걸어 치고 빨리 모이라는 거야. 가보니까 역골 거기에 제무시를 들이 댔어요. 차가 단일로가 돼서 겨우 빠져나가는데 빨리 타래. 다 타니까 현리로 내려가. 학교 운동장에 찍약 그때 우리가 자동차 두 대도 한 군데서 못 봤거든. 학교운동장에 한 삼십

---

1) 강 소령은 강태무 소령을 말하고, 표 소령은 표무원 소령이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김인호 씨가 증언했다.

여대가 섰고 군인들이 뻑뻑한데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썬그라스를 낀 장군을 어떤 사람이 잡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아나와서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악수를 하고, 이상하다. 얘길 들어보니까 그날 새벽에 강 소령이 일대대대를 끌고서는 월북을 해서 노루목까지 들어왔다. 행군을 해서 들어와서는 강 소령이 권총을 뽑아서 몇 방을 쏘니까 사방에서 인민군들이 포위를 하더라. 내가 들어왔다는 신호지. 포위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붙잡혀서 차에 실려 가고 그랬는데 거기 뛰어나온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장교한테 눈물을 흘린 사람이 거기서 빠져 나온 사람이야. 아까 얘기한 고재삼이 당차다고 한 사람, 이 사람이 붙잡혀서 인민군 차에 탔어요. 자꾸 뒤로 묶어 놓고 무장해제 시켜서. 옆에 사람은 이렇게 하나까 남의 것을 풀어줄 수 있잖아. 칼이 있으니까 꺼내서 끊어라. 끊으니까 칼을 들고선 차 꼭대기에 탄 인민군 둘을 찌르고 차에서 뛰어내렸어. 뛰니 되나. 거기서 사살을 당했지. 거기서 나온 사람이 역골에 나와서 삼팔 근무를 하는데 같이 근무를 하고, 그래서 강 소령이 월북을 하고 2개 대대가 월북을 했잖아.

- 강 소령이 월북을 했으니 난리가 났겠네요?

난리가 났지.

- 왜정 때 주민들의 생활상을 말씀해 주세요.

1941년 11월 8일에 일본천황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잖아요? 국기 달고 행사를 하고 이랬었는데 전쟁이 발발 된 뒤로는 물자가 귀해져. 그 전에 우리가 어릴 때 돈을 들고 장에 나가면 촌에서도 살 게 있었거든. 그런데 전쟁이 난 뒤로부터는 점점 점점 물자가 귀해지더니 모든 생활품이 전부 배급제야. 고무신도 배급으로 나오는데 한 번에 두 켤레 세 켤레. 광목도 통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광목은 예전에 한 통이라고 마로 사십 마고 자로는 칠십 자고. 그때 광목 한 통이면 쌀 한두 가마 가나 그랬어. 마로 끊어서 세 마에서 네 마 정도 나오고. 면으로는 비단 같은 거 나오고 그래.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빨래미누가 나오고, 어떨 때는 고무신이 나오고. 그러면 반회를 붙여서 제비를 뽑아요.

- 반회를 붙여서요?

반회를 붙여서. 그래서 타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아까 공출애길 했죠? 빠진 게, 삼도 많이 했는데 삼도 공출을 하고.

- 삼도 많이 했나요?

그렇죠. 목화도. 삼이 힘들어요. 가늘게 짜가지고 끝을 짜서 이어서 비벼서 실을 만들어서 돌려 감아서 타래를 만들지. 잣물에 삶아서 하룻밤 불을 뜨끈뜨끈 때서 과묵고는 가마니로 덮어서 이긴다고 해요. 폭 익어. 그럼 강물에 가져가서 빨아서 널어서 말려서 그 실을 도로 풀어. 나른다고 갖다 걸고 갖다 걸고 하는 일이야. 일이 아주 많고 힘들어.

- 남자들이 짜나요?

짜는 건 여자들이 하지. 남자들은 안 짜고. 우리 어머니가 다 했지.

- 인제에서도 했나요?

그럼, 기린은 물론이고. 삼베가 여름옷이 돼. 그 다음에 목화, 산촌박물관에 있는데 씨를 넣고 돌리면 씨가 까지면서 목화가 나오지. 그 다음에 양잠이라고 누에고치. 냄비에 물을 끓여서 젓가락으로 저으면 실이 나와. 그러면 옛날 군용냄비로 짜서 잡아 다니면 실이 돼.

비단이지요?

명주지. 국내에서는 최고 비단이지. 그것도 여유가 있으면 이런 옷감 짜는 건 못하고, 어려운 사람은 겨울에도 삼베옷을 입어.

- 무척 좋겠네요?

명주옷이이면 아주 좋은 옷이지. 물자가 귀하니까 배급, 심지어는 소금까지도 배급하고, 석유도 배급이고.

- 배급하는 건 주민들의 농산물을 가져가니까 주는 건가요?

배급을 주는 건 국민을 살리려고 주는 거지. 다 가져가니까 주는 거지. 심어지는 아편까지 재배를 해서 가져갔어.

- 그 사람들은 아편을 뭐에 쓰나요?

뭐에 쓰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중국이나 영국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같아.



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봄이면 주민에게 재배하라고 지도원이 나와서 아주 제일 좋은 밭을 재서 끊어줘요. 여기에 하라고.

- 집집마다 아편을 했겠네요?

그럼, 집집마다 했지. 백 평당 너 냥종인가 그렇게 책임량이 있어요. 무게로. 그걸 진을 내면 진을 펼쳐서 햇볕에 몇 칠을 말리면 이게 엷처럼 되거든. 그럼 뭉쳐서 덩어리를 만드는데 옛날 성냥갑 하나에 한 냥종이야. 잘 만들면 정량이 더 나와. 그래서 야매로 팔고. 양양으로 넘어가서 원산으로 가서 만주로 건너가는 밀매가 있었어. 야매로.

- 야매로 하는 사람이 꽤 있었겠네요?

꽤 있었어. 듣는 말로는 양양에서 아편을 사서 뱃속에 넣고 산에 모양으로 해서 배를 타고 갔다는 말이 있어요.

- 돈이 된다는 말이에요...공출이 그렇게 많았고...

군사훈련은, 초등학교 육학년 졸업을 맡으면 '청훈'이라고 군사훈련을 3년을 해요. 학교에 비는 날에 하는 가봐. 1년차 2년차 3년 차로 해서 삼년 동안 군사훈련을 받아.

- 초등학교 졸업생에 한해서요?

그렇지

- 어떤 훈련을 받나요?

목총가지고 총검술을 받아. 주로 제식훈련이고.

- 유사시에 필요하면 학생들을 군에 보내서 써먹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그리고 학교 안 다닌 사람은 징병연령 직전 우리 나이로 21살에 징병이 되니까, 19살 정도가 되면 뽑아서 일주일에 한 번인지 학교운동장에서 '청훈'과 같은 훈련을 시켜.

- 목총 들고 제식훈련이요?

그렇지, 그러다가 징병연령이 되면 영장 받아서 군대에 가. 그게 대동아전쟁이라고, 제들이 말하는, 징병제도가 생겨서 시작을 하니까 2년 준비단계를 하잖아? 종전 2년 전인가부터 징병이 시작이 됐거든. 많이 가지는 않았지.

- 동네 분들 가운데 징병 간 분들이 있나요?

있죠. 보국대라는 게 있고, 징용이라는 게 있고. 징용은 징병연령이 지난 사람들을 징용이라고 해서 광산으로 무슨 공장으로 기업 같은데 데려가고. 잘 간 사람들은 노임을 더러 받기도 한다는데... 보국대라는 건... 함경도까지 가더라고.

- 동네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지요?

동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000씨라고 그 양반이 목상을 크게 했는데. 옛날에 산관을 하면은 나무를 생긴 대로 그냥 잔가지로 이렇게 버서 꺾대기를 깎아서 '코를 뚫는다'고 맨 앞에 구멍을 뚫어요. 거기에 고리줄을 걸고 사람이 끌기도 하고, 소가 끌기도 하는데, 강가에까지 내다 놓으면 강가에 비가 와서 물이 늘면 '적심한다'고 해서 나무를 물에 띄워요. 함강정까지 나온단 말이야.

- 적심이요?

음 적심. 함강정에서 때를 매서 서울 앞까지 뗏목으로 가. 그 적심하는 거를 보국대를 풀어서 적심을 해. 그 사람들이 보국대를 풀어서 적심을 하면은 돈을, 국가에 얼마를 들여 놓는지, 원. 공짜로 해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 제도는 모르는데 보국대를 풀어서 적심을 했어. 아마 돈을 들여놓았겠지.

- 동네에서 징용이나 보국대로 먼데 갔다가 돌아온 분들의 말을 들은 적 있으세요?

들은 게 아니라 직접 같이 살았죠. 보국대로 일본 북해도까지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 어, 그분의 북해도에서 살던 말을 들어보셨어요?

북해도에 광산에 있다 왔다고 하는데 온 거 보니까, 팔일오 해방이 되고 겨울 철에 왔는데 옷이 아주 전부 이만큼 내려오는 오만데 안에 털이 들어 있고. 그런 걸 입고 왔더라고.

- 형뻐 되는 분이였겠네요?

아니지. 아버지뻐 되는 분이.

- 얘기 좀 들으셨어요?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육이오 전에 돌아가셨지. 얼마 살지도

못했어. 징병 갔다 온 사람들은 제주도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관동군으로 갔다가 목단강에 있다가 온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 다 돌아가셨겠지요?

아직 살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기린에 한 사람. 경찰관도 하다가 지금 나이가...그러니까 45년에 21살이었으니까 지금 92세네. 손영준이라고.

- 어디 사시는데요?

기린 방동에.

- 이 분은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만주 목단강에. 이분과 같이 갔다 온 분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

- 징용을 간 거죠?

아니 징병.

- 최근에 이분을 만나보셨나요?

아니. 몇 해 됐어요.

-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직 살아계셔. 소식은 들었어요. 나도 방동에 살던 사람이니까. 경찰관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 징병도 가고 징용도 가고 보국대도 하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기장이 끌려가니 가족들 생활이 말이 아니었겠어요?

기장이 끌려가니까 농사를 짓는데 폐농을 하다시피 해서 묵밭이 되었어요. 우리가 역골로 이사를 갔다고 했잖아요. 이사 간 해가 46년 봄에 이사를 올라갔는데, 소작농을 지으면서도 과히 어렵지 않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어렵게 살던 거기에 비하면, 굶주린 사람보다는 조금 낫게 살았다는 뜻이지, 부유하게 살았다는 뜻은 아니고. 거기서 소작농사를 지으면서 팔일오 해방을 맞아서 장가를 일찍 가고, 우리 할머니가 손주며느리를 보고 그 이듬해 장질 부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금방 장사를 못 지내고, 그 이듬해 2월 달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소작을 붙이던 주인이 과분데, 그 양반 장조카네가 글로 들어오기로 돼 있어. 상속을 받

은 모양이야. 그때는 딸에게 상속권이 없고, 출가외인이라고. 장조카가 오게 되니까 땅을 내놓아야 된다고 해서 땅을 산 것이 우리가 역골에 땅을 샀는데. 사흘갈이라면 3천 평인데 그 땅이 보국대에 갔다 온 사람의 것이야. 북해도에 갔다 온 사람. 그리고 5천 평, 평밭은 손영준 씨 거야. 그 8천 평을 산 거야.

- 누가 샀는데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그걸 사서 이사를 갔단 말이야. 이사를 가는데 그때만 해도 인심이 좋아서 그 동네로 이사를 들어온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몽땅 동원이 돼서 지게를 지고 저다 주거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은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면 안 저다 주고. 들어오는 사람은 저다 주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삿짐을 다 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 친구 분이 우차를 끄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우차 아시죠?

- 네 달구지.

맞아요. 소달구지. 그 차를 불러서 그 달구지에 곡식 가마니를 일곱인가 여덟을 싣고 음력 2월 초 하룬데 그걸 싣고 올라갔어. 아 동네 사람들이 내다보더니 부자 들어온다고, 새 부자 들어온다고. 팔일오 해방이 되던 해가 또 아주 흉년이 들었거든. 아주 흉년이 들어가지고 역골에 가보니까. 칙을 파다가, 칙뿌리를 파다가 두드려서 물에 빨아서 그 물을 가라 안치면 녹말이 가라 안잖아요. 그 누무걸 해먹느라고 집집마다 칙을 두드리고 빨아서 건져 내버린 깡대기, 꼭 수세미처럼 생겼는데 그게 이렇게 쪼터미처럼 쌓였어. 집집마다 이렇게.

-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46년 봄이죠.

- 해방 다음해요?

해방 다음해. 아 그 이튼 날부터 사람들이 자루를 들고 쫓아 들어오는데 내거 가지고도 못 먹겠어요. 굶어죽겠다고 같이 먹고 살자고. 어떤 사람은 콩씨가 없다고 한 포기에 세 알 네 알 넣을 거 두 알 세 알 썩만 넣고 한 알씩만 달래. 내가 참 거기 가서 숫하게 애 먹었어요. 남들 다 그러는데, 죽겠다고 하는데,

며칠 나물만 먹었다는데. 같이 칩을 파먹고. 이리다가 그 땅이 징병 가고 보급대에 간 사람의 땅을 샀더니 그 땅이 묵은 땅이라 마찬가지야. 풀씨가 한 번에 다 나오는 게 아니야. 몇 해를 나와.

- 풀이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풀씨가.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땅이 뭐 원래, 풀이 나오고 돼야 말이지. 우리 식구가 많았지요. 열 식구가... 에... 그러다가 이제 모 심은 철이 돌아와서 모를 심는데 그거 회의를 해서, 일꾼들 밥해 먹을 쌀들이 모두 없으니까 아침밥은 먹던 굶던 집에서 자기가 해결하고 나오고, 점심 한 끼만 콩죽을 쑤어 주게요. 이렇게 하고 모를 돌아가며 심는데 우리가 그때 논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포병사령부 거기맨데 한 집이가 논 천 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양반도 너너지 못해. 그런데 그 돈이, 형편이 어려워서 삼백 평을 떼서 팔았는데 그 삼백 평을 우리가 샀거든. 그래서 맨 나중에는 우리가 논을 심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또 인심이 좋았어요. 우리 모 심는 날들은 옛날 그대로 “나와서 모 심다가 아침밥 잡숫고 점심 잡숫고 그러라고. 밥 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겐 논 판 그 집도 함께 심는데 열 마지기란 말이야. 그 집까지 포함을 해서 쌀을 짊어지고 가서 아침밥을 해 먹이고... 모를 심는데. 자 그 집은 점심해 먹인다고 밥해 먹인다고 소문이 나니까는 식구가 있는 데는 다 오는 거야.

- 그렇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럼. 우리도 밥을 해 먹이면 '무척 많이 올 거다' 했지. 푸짐하게 밥을 해서 실컷 먹이고, 그런 일이 다 있었어요.

- 쌀은 어떻게 가지고 계셨어요? 다들 가난하고 없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감춰 뒤야지.

- 쌀을 모으신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진 거지. 마락이라는 데 살 때 농사를 쳐서 가져간 거지. 가져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확 갠져서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먹을 건 남겨둬야지.

- 할머니께서 장질부사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때 전염병이 많이 돌았나요.

많이 돌았죠.

- 또 어떤 병이 들었나요?

그때 뭐 뭐 호열자, 콜레라 났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콜레라 앓는 사람을 보거나 알아보지는 않았고... 그때 말라리아. 말라리아라는 거는 영양부족으로 걸리는... 지금은 말라리아가 없잖아? 잘 먹으니까. 그땐 대개 영양이 모자라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하여튼... 열에 일곱은 걸려.

- 돌아가시기도 하나요?

그건 죽지는 않아. 장질부사는 많이 죽죠.

- 장질부사로 많이 죽으셨어요?

많이 죽었어요.

- 장질부사는 어느 계절에 도나요?

그건 계절이 없어요. 여름에도 오고 겨울에도 오고. 내가 장질부사 세 번을 앓아봤어요. 그게 아주 기운이 쪽 빠지고 사람 아주 맥이 쪽 빠져요.

-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 없어요. 그게 땀을 내야 돼요. 땀을. 치료라야 한약 지어다 먹으면 뭐 해 열산이지 뭐. 치료는 없고 앓다가 죽는 건 죽고 사는 건 살고.

- 허약한 노인들이나 아이들은 죽겠네요?

그렇죠. 땀을 못 내면 죽는데요. 염병에 땀을 못 내면 죽는데요. 그래서 다 죽어요. 땀을 낸다고 폭 덮어 놓고. 그런데 이상하게 한 집에 하나씩은 남겨 놓는데.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온 집안이 다 걸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걸렸어. 그 다음해에 역골로 이사를 와서는 또 한 번 걸렸어. 그 전에는 학교 다닐 적에 여름인가 한 번 더 걸리고. 세 번이나 걸렸어.

- 동네에 시름시름 앓는 사람이 많겠네요?

그거 걸렸다 하면 동네가 다.

38선이 가로막히니까 소련군은 관동군을 치고 이제 만주로 해서 함경도로 해서 평양으로 해서 내려오니까 육로로 내려오니까 빠르잖아. 미국은 하와이에서 여기 오려면 굉장히 멀고 그러니까 38선이 가로막히자마자 소련군이 들어왔다고 여기. 들어와서 양양에 이제... 우리 부근에서는 제일 먼저 들어왔

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부터 원통으로 넘어와서 장수터 중담 상담... 그  
게 이제 8월 15일 해방되고 8월 말 경에 장수터에 소련놈들이 벌써 들어왔어  
요. 들어와서는, 이놈들이 월경을 해. 넘어와서는 도둑질을 하러. 삼팔선 이  
남으로 넘어와서. 삼팔선이 가로막히니까... 누가 갖다 붙였는지 보지는 못  
했는데 큰 종이에다가 '차 지고는 38도선 이남 미군점령지대입니다' 이렇게  
쓰고 밑에다가 영문자로, 똑같은 글이겠지. 이걸 38선 밑에 마지막집에 벽에  
쭉 붙여놨어.

- 남한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집이겠네요?

그렇지.

- 미군들이 갖다 붙인 건가요?

그렇지. 그런데 그때는 미군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걸 갖다 붙인 걸 보면 어  
서 시켜서, 남한 관에서 갖다 붙인 건가. 미군이 들어오기두 전이거든. 갖다  
붙인 건. 소련군이 남쪽에 넘어오지 말아야 되잖아? 원칙적으로. 이놈들이 개  
들은 차는 없어 순 걸어다니거든. 숲을 달아서 너풀너풀 거리는데, 넘어와 가  
지고는 기린 양조장에, 주재소 자리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때 주재소는 아직  
경찰관들 안 들어오고 비어있을 때니까 왜놈들이 설치한 전화기를 떼고. 양  
조장의 우차를 뺏어서 술독을 싣고 붙잡아가고, 행패야

- 사람도 잡아갔나요?

개들은 사람은 안 잡아가. 닭 붙잡아 가고, 벌통을, 개들은 벌이 시커멓게 달  
라붙어도 툭툭하면 말더라고. 벌통을 바지 속에 넣어 짊어지고 가고 이 지랄  
을 하더라고. 아주 못됐어요. 그러다가 미군은 10월 달이 돼서 들어왔을 거야.  
처음 들어온 게 지프차에 통역관을 태워서 네 명이 타고 들어왔더라고. 소련  
군은 수백 명인데, 미군은 네 사람이야. 소련군이 들어와 행패를 부른 그런 얘  
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자술서를, 미군 지프차가 내려오니까 여기 있던 놈  
들이 원대리로 다 쫓겨가는 거야.

- 누가 쫓겨가요?

소련군이. 소련군이 그렇게 행패를 부렸어요.

- 소련군을 직접 보셨어요.

봤죠.

- 무섭지 않으셨어요.

아 처음에는 무섭더라고. 그때 할머니 하고 이제 목화, 우리 할아버지 육촌동생 되는 분의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집이가 목화를, 동네에서 목화를 많이 했으니깐 구해 주시겠다, 내 결혼식을 하려고 그게 부족하니까 할머니 하고 둘이 나오는데 장수터 못 미쳐 하답에 몇 놈이 돌아다니더라고. 장수터 내려오니깐 버글버글 하는데 겁나더라고.

- 설악산 가는 장수터 말씀하세요?

아니 원대리 입구에 있어요. 래프팅 출발하는데. 지금은 장수터라고 하지 않고 원대리라고 하더라고.

- 옛날에는 장수터라고 했어요?

그럼. 장수터라고 했지.

- 소련군의 행패에 대해 더 말씀해 주세요. 여자들에게 행패를 부리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처음에 소문에 듣기로는 여자들을 강탈하고 소문이 나더라고. 우리가 보지는 못했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도로를, 뭐라고 하나 가을이던은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철이 돌아오면 부락별로 담당구역이 있어서 도로정비를 해요. 장마에 파여간데, 풀 나오면 깎고. 정비를 하는데. 팔일오해방이 되던 해니까 만세를 부르고 누가 시키지도 않으니까 늦었어. 이 맘때도 더 됐나봐. 궁둥을 내려와서 기린 도로작업을 하고 막 끝나고서는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가려는데 골짜구 안에서 따발총 소리가 나더라고. 야 소련놈 새끼들이 넘어와서 행패를 부리는구나. 하고 있는데 상룡이라고 우리 구촌아저씨별 되는 분인데 이 분이 뛰어내려오더라고. 어떻게 된거냐면 방방아 있잖아요? 디딜방아 옛날에는 촌에서 전부 디딜방아로 쪼어서 먹구.

- 발방아라고 하나요?

음. 발방아. 여기서도 발로 쪼는다고 발방아라고 해요. 쪼는데 이 놈덜이 세 명인가 와서는 슬슬 들어오더니 아무 소리 않고, 말이야 통하지 않으니까 필



요도 없지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자루를 슬그머니 잡아다녀서 가져가더래.

- 쌀자루를요?

빈자루를. 벼를 쏘아놓고 남은 빈자루를. 빈자루를 가져가더래. 여자들이 무서운데 소문이 그렇게 나니까 빈자루를 가져가니까 그냥 내버려뒀지. 그 앞 집에 가더니 닭은 붙잡아서 자루에 매고는 고개 넘어가 삼팔선이거든. 중담, 우리가 살던 학교에 주둔하고 있는 놈들. 그래... 넘어가는 길 어떻게. 우리 상룡이 그 아저씨가 마침 어디를 갔다 오다가 그걸 봤어요. 그래 쫓아가서 욕을 했대. 이놈의 새끼들 왜 도둑질을 해가냐고. 들은 체도 안하고 성큼성큼 가더래. 그래서 팔뚝질을 했는데 그게 욕인 줄은 알았나봐. 따발총을 따르르르 쏘고.

- 소련군들이 행패를 얼마나 했나요?

얼마 안 잤어요. 미군이 들어온 다음에는 못 넘어 왔으니까. 아까 주재소에서 전화기 떼어가고, 양조장에서 술독 싣고 갔다고 했잖아? 그놈들이 내려오다가 궁둥이라고 지나가면 명진농장 아시나?

- 알죠.

그 명진농장 조금 지나 내려와서 집이 몇 집 있는데. 거기에 박 씨가 귀가 좀 먹었어. 이 놈들이 내려오더니만 우차에 술독을 싣고 전화기를 엮어서 쫓아 들어가더니 “아버지 아버지” 하더래. 왜 그래 하니까 “골골 닭 골골 닭” 닭 달라고. 마당에 닭. 그때는 집집마다 몇 마리씩 키웠거든. 집에서 병아리 까서 키웠어. “골골 닭” 닭 달라고. 안 된다고 자꾸 떠미니까 따발총을 들이대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쓸 테면 썩라” 그러니까 픽 웃으면서 총을 내려놓더래. 그 옆집이 그 양반 동생네 집인데 그 아들네가 장가 간 지가 얼마 안 되고 어른들도 살고 다 같이 살고. 들어가니까 벌통이 있거든. 방으로 두 놈이 들어가더니 농문을 열고 농속에서 뭘 잡아다녀서 끄집어 내, 겨우살이 빨아가지고 다듬이질해서 착착 넣었다가 겨울이 돌아오면은 숨을 넣어서 입잖아. 바지 같은 거... 바지깍테기를 찾아서 나오더니 벌통을 거기에 넣어서 가져가더래.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간. 그걸 우차에다가 싣고.

- 남쪽에는 지킬만한 치안대가 없었나요?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무법천지.

- 북한군은 안 내려오고 소련군만 내려왔나요?

그때 북한군도 군대 없었고. 팔일오 해방 직후니까. 미군이 들어온 다음에는 괜찮았지. 미군은 들어와서는 주둔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부대가 어딘지는 몰라도 가끔 들어와 가지고 차 세워 놓고는 텐트 조그만 거 치고 그 안에 들어앉아서 며칠 있다가 가고 그러더라고. 동네 애들은 초코렛트를 얻어먹으려고 동네 애들이 몰려들고,

- 몇 명이나

두서너 명. 지프차 한 대 네 사람. 이삼일 있다가 가고. 또 오고

- 그럴만한 병력이 없었나보네요.

어쩐지는 몰라도. 미군이 들어오지 않았어.

- 그렇게 해방 오년 정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육이오 날 때까지 미군들이 큰 부대가 안 들어왔어. 그리고 그 미소공동위원회<sup>2)</sup>라는 게 46년도 걸 아마. 서울에서 했잖아요. 양군 철수하기로 해가지고 철수를 47년에 했나? 이 이후에 철수를 해도 소련군은 금방 나오고, 미군은 멀으니까 전쟁이 나면 여기 오자면 시일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자들이 철수를 주장하잖아. 철수했는데 육이오 때 들어가 보니까... 몇 놈이 땡기는 건 있더라고.

- 해방되고 나서 그 뒤에 북쪽에서 내려와서 교육하는 건 없었나요?

내가 군대물자 지게로 저다주고 집에 와서 올었다고 했죠? 보안서에. 그런 뒤 며칠 지났나? 십여 일 지났나? 이렇게 됐는데 모이라고 하더라고. 먼저 이장 하던 집이, 장학봉이라고 면에 다니다가 나와서 북1리 이장을 했는데. 그 집

---

2)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3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년에 걸쳐 2차까지 회의를 열었지만 미소공동위원회는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났다. 조병수 씨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남북간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는 안을 다뤘다고 진술했지만 사실 이 위원회에서 철수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으로 모이래.

- 젊은이들만 모이래요?

다. 다 모이래

- 그때가 언제죠?

육이오 나고 50년에.

나가니까 정치공작대라고 있는데 왔는데. 어디서 온 놈들인지는 몰라. 남자는 하나고 여자는 한 넷인가? 왔는데 보니까 38식 일본총 38식 장총, 공작대원이라는 게 하얀 쓰봉, 샤쓰에다가 장총을 메고. 여자는 뭐 아코디언도 있고 뭐 악기가 있더라고. 나가서 마당에 명석을 죽 깔아 놓고는 거기에 앉으라고 하고는 뒷마루에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뭐 인사를 하는데 기억은 다 안 나고. 회의를 하는데 “김일성 장군 노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까” 하더니 김일성 장군 노래를 아코디언 반주에 맞춰서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개들은 그 다음 날에 가보니까는 모든 행사를 김일성 장군 노래에서부터 시작을 해. 애국가를 안 부르고. 김일성 장군 노래 스탈린 대원수 노래 모택동 원수 노래 세 곡을 부르고 시작을 해요.

- 노래 가사 기억나세요?

기억나지.

- 한 번 좀 해주실래요?

노래를?

- 예. 가사만.

가사만! 장백산 즐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 위에 역역히 비취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거룩한 김일성 장군.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 스탈린은요?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 ... 빛나오는 새 역사에 밝은 앞길이 열려졌다. 위대할사 노래마다 높이 올려 찬양하는 해방의 은인 우리의 벗. 스탈린 대원수. 천추만대 길이 빛날 스탈린 대원수. 클레물린 멀리 향해 만세를 외친다. 인류

태양 그대에게 영예를 드린다.

- 모택동은요?

동방에 태양 솟아 중국에 탄생했네 모택동. 그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싸우는 인민의 대 구성. 이견 이렇게 짧아.

- 그런 교육이 전쟁 전에는 없었어요?

전쟁 전에는 넘어올 수 있나.

- 슬쩍 와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들이 노래를 불러 놓고는 인민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하더라고. 애들이 원래 그래 막후에서 다 만들어 놓고 나와서 찬성만 받으면 돼. 다 짜냈더라고,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 싫던 좋던 좋아할 사람이야 누가 있을까만 따라가야지. “지금부터 인민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추천해 주시오” 이러면 자기네가 각본을 만들어 냈으니까 손을 들고 “동네 이장을 하던 장학봉 씨가 어떻냐” 하니까, “장학봉 씨를 추천하셨는데 찬성하면 박수를 환영해 주십시오” 하니까 다 박수를 치는 거지. 민청위원장 뽑는다고, 그 다음에 농민동맹위원장, 그 다음에 여성동맹위원장.

- 그렇게 뽑고 나서 무슨 활동을 하나요?

그게 뽑아만 났지 활동을 한 건 없어요. 그리고는 가더니 조용한데 민청의 위원장은 아니라도 뭘 하나 썼어. 선전부장 조직부장 뭘 하나 맡았었는데 내 친구도 뭘 하나 맡고 위원장이란 건 이복서 나온 강산민이라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맡고. 며칠이 있으니까 현리에서 민청간부를 함숙교육을 한다고.

- 그때가 50년?

50년. 전쟁 나고 직후에. 내려가니까 학교 교실로 오라고 하더라고. 교실에 떡 들어가 있으니까 강사로 떡 들어온 놈이 아는 놈이야. 송중건이라고. 아는 놈이더라고. 나 중담 학교 4학년 때 거길 다니다가 귀둔초등학교 거길 나왔는데 아니 강사로 떡 나와 썼는데, 아이구야. 그거 5년 동안에 입을 얼마나 까냈는지 그 새끼들. 교육을 그렇게 철저하게 해요. 그렇게 말 잘하더라고.

- 5년 동안 못 보셨다고요?

못 봤지. 뭘 가르치냐면 김일성 장군 약전이라고... 김일성 장군 투쟁사지 투쟁사. 김일성 장군 평안남도 대동군 만경대에서 출생을 해서 뭘 뭘 삼일운동을 김일성의 아버지가 주동을 했다고 그래 야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막 갖다 붙이는 군요?

막 갖다 붙여. 삼일운동을 하고 이러다가 일제와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중국으로 망명을 하는데 김일성이가 어른들 따라 들어가서 길림 용문중학 6년 중퇴라고 가르치더라고. 그리고는 김일성이가 원래 들어올 때 소련군 소좌 계급장을 달고 여길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린 보진 않았지만은. 애들 가르치는데 그 얘긴 없고 빨치산 투쟁만 얘길 하더라고. 몇 시간 떠드는 데 다 기억을 하겠냐고. 오전에는 그거 하고 오후에는 일류사회발전사를 가르쳐. 오랫동안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분리돼서 처음엔 뜨거워서 생물이 살 수가 없었는데 식물이 살 수가 없었는데 오랜 세월 식어서 썩고 고이고 하면서 아메바 같은 세균이 요놈이 차츰 발달이 돼서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이 돼서 나중에는 유인원이라는 사람 밑 단계가 생겨서 발달이 돼서 인간이 돼서 원시사회부터, 이 지랄을 하더라고. 원시사회 봉건사회 자본주의사회 민주주의 사회주의사회 공산주의사회 무정부사회까지 이딴 소리를 떠들더라고.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는데 어디에 가서 교육을 단단히 받은 거야. 그렇게 이제 하루 교육을 받고는 그때 그 지금 기린 시내 들어가면 장흥이던가? 여인숙이 있었는데 그게... 저기 상담 양조장 하다가 월남을 해 나간 집이야. 육이오 전쟁 전에 38선 막히면서 바로 월남을 했지. 그 집에서 합숙을 시킨다고 들어가래. 그런데 그 먼저, 그날 아침에 교육을 가서 먼 민청 사무실에 가니까 민청위원장이란 게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여인숙집 주인 김경옥이라고 북한에서 삼팔선에서 이북이 싫다고 월남한 놈인데 그 놈이 민청위원장이 됐더라고. 그리고 선전부장이 조을준이라고 국방경비대 시절에 국방경비대 갔다가 특무상사까지 육이오 전에 만기제대한 놈이거든. 이게 감투를 썼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가들한테 연설하는 거. 그걸 배울라고 그거 연습하느라고 지랄들을 하더라고, 이 노무 새끼들이. 야, 그노무 새끼들.

- 조을준이라고요?

응 조을준. 결국 죽었어요... 그걸 보고 이러곤 학교로 가져해서 받았단 말이야. 받고선 자고 선 내일 또 한다고 자라고 하더라고. 듣기도 싫고 '이 새끼들에게 교육을 이렇게 받다가 진짜 빨갱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가자. 둘이 도망을 가버렸어.

- 누구와요?

김용대라고 지금은 춘천에 나가 사는데 친구야. 와 버렸어. 그렇게 하다가... 보채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농사를 짓던 거 여전히 짓고 이 맘때 팔월 추석 못 미쳐서 의용군을 가라고 영장이 나오더라고. 그때 영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지는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역골에서 열두 살마이 영장을 받았어. 그래서 모여서 공모를 했어요. 이거를 안 나가고 집에서 없으면은 식구들을 못살게 할 테고. 나가면은 가다가 뛰면 되는데 끝까지 붙잡혀 가는 놈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집안식구가 고통을 좀 받더라도 아예 나가지 말자. 그리고는 산으로 들어가 버렸어.

- 혼자요?

열 두 명이. 산으로 들어갔지. 상남에서는 지방청년이 일어나서 반대투쟁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기린면 창고에 있던 곡식을 저 널려고 인부를 동원시켜서 상남고개 넘어가는 걸 하남 청년들이 잠복하고 있다가 뺏어서 창고에 다시 쌓고 지고 가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 라디오도 없고 뉴스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 풍문에 어떻게 들어온 사람이 보고 듣고 얘기한 거 나오면 퍼져나가서 소문만 들릴 뿐이지 아무도 들은 게 없거든. 어떻게 싸우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때 애들이 후퇴를 시작은 했어. 후퇴를 시작을 하면 그때가 추석 무렵이니까 음력 9월 15일 경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천상륙작전 할 적에 애들이 후퇴를 시작하는 게 직감이 가더라 말이야.

- 그때도 숨어 계실 때예요?

그렇지. 그때도 산속에 있었지. 그 소리를 듣고 까짓거 전망에 다 나갔을 텐데 몽둥이 들고 나가 우리도 싸우자. 몽둥이 하나씩 해 들고선 재들이 나오면 팬

다. 그래서 그렇게 며칠... 그러니까 추석은 지났어. 아, 추석 바로 전 날이야. 산에 들어가 며칠 있다 보니까는 증조할머니가 추석 최고 8월 18일 날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를 지내고 아침에 일찍 좀 나가보려고 우리 뒷산이 나지막한 데 거기 올라가니까는 역골에 단일로 자동차 하나 겨우 다닐 길인데 그 길로 뽀뽀하게 올라오는 거야. 후퇴하는 선발대. 솔밭에 엮어져서 저게 얼마나 가나 보니까는 끝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도 또 그렇고 그 이튿 날 자고 일어나도 또 그렇고, 한 15일 동안은 그렇게 들어갔어요.

-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나요?

역골로 해서 삼팔선으로 넘어가는 거지. 역골서 고개 하나 넘어가면 삼팔선 이니까.

- 그 길로 가면 어디로 가나요?

귀둔으로 넘어가서 이 길로 나오던지 아니면 한계령 쪽으로 가던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가는 길은 모르는데 9.28에 서울수복이 되니까는 그때가 수복 전이란 말이야. 손 대볼 수가 없구 15일 쯤 들어가더니 그 뒤로는 소수로 중대 정도 차츰차츰 줄더라고. 그때부터는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 때는 공산주의자는 무조건 다 때려죽여야 되는 줄 알았거든. 하남서는 벌써 전투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역골서 일어난 것이 개울에서 엠원 총을 한 자루 주었어. 실탄도 꽤 많더라고. 그거 한 자루 거야. 숨어 있다가 몇 놈씩 가면 총을 쏘면 다 총을 두고 뛰더라고. 그래서 총을 하나씩 매고 매고 한 게 12명이 다 땀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남하고 진동 방동 이런 데는 벌써 백여 명이 되고...

- 기린천년결사대조?

그렇지. 상당히 많더라고. 나중에는 삼백 명 이상이 됐다고. 이렇게 되니까 9.28 수복이 되고 막 북침을 하니까 함포사격을 하고 동해안으로 보병이 올라가고 서부전선은 저쪽으로 해서 경인선으로 해서 평양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 동해에서 함포사격을 했어요?

했지. 유엔군이. 맥아더가 인천상륙작전을 하면서 썼지.

- 퇴각하는 인민군을 향해서 동해에서 쏘다는 거지요?

그렇지

- 어디로 포가 떨어졌나요?

그런 모르지. 말만 들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서쪽으로는 함경북도 청진까지 들어갔잖아?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애들이 들어갈 때는 가운데 밖에 없는 거지. 퇴로가 막히는 거지. 그렇게 될 적에 우리 결사대는 산발적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 합치자. 그래서 먼 전체가 합쳐서 각 부락을 여기 몇 중대 여기 몇 중대...

- 그럼 조 선생님이 기린청년결사대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합쳐서 대장을 홍인철이 맡고 부대장을 그 양반이 경찰을 나왔나 방위 중원대 장사하던 양반인데 그 양반이 부대장을 맡고 중대장은 지금 합강 3리 김종근이라고. 이 분은 1중대장이었어. 그래서 합병을 해서 우리 역골은 7중대라고 인원이 12명밖에 안 되니까 약하다고 방동에서 5명을 파견해줘서 17명이 역골을 지켰지. 그 다음에는 넘어 갔던 놈들이 먹을 거 떨어지면 식량 탈취하려고 넘어오는 거야. 전투를 하고 이리다가 신태길 씨라고 왜정 때 부면장을 했는데 6사단 수색대가 들어와 있을 적에 그 수색대들과 자꾸 접촉을 해서 우리는 수색대 첩자라고 했어. 그 양반이 총도 잘 쏘고 아주 걸음을 느실하게 걸으면서는 정보통에 밝아요. 그래서 이 양반을 서화로 들여보냈잖아. 그때 우리 7중대장이 손옥성 씨라고 육이오 전에 한청 북1리 단장이었는데 그 분이 신태길 씨를 서화방면으로 들여보냈어요. 가서 얼마나 있는지 적정을 좀 보고 하라. 들어가더니 이틀 만에 나오더라고. 지금 서화지방에 인민군이 1개 군단병력이 집결해 있는데 퇴로가 막혀서 더 들어가지 못하고 먹을 건 떨어지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린으로 내치는 수밖에 없다. 뛰어나오는 데 그 다음엔 신나게 싸우다가 아주 야코가 팍 죽었어. 군단병력이 나온단니까. 철통같이 지키려고 했는데 원래 숫자가 안 되잖아? 그래서 식전에 내 뛰어서 방동으로 넘어서 방태산을 줄기를 타고 하남 가면은 지금은 공



병여단 자리에 갔어요.

- 그때 실제로 1개 군단이 내려왔어요.

1개 군단인지 얼마인지를 몰라도 하여간 내려왔지. 우리가 흥천가지 후퇴를 했으니까. 하남 거기에 가선 한... 일주일 거기서 고지근무하고 방어한다고 하다가 새벽에 또 들고 내 뛰기 시작한 게 상남고개에 올라가니까 고지에서 또 내 쏘더라고. 그래서 고지에 올라가서 대항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재들이 먼저 고지를 점령을 했으니까 또 들고 뛰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아홉사리 고개 넘어 내촌까지 갔잖아. 내촌 청방이 기린청방이 수고했다고 총을 줌 주면 자기네가 해보겠다고. 가만 생각을 하니까 총을 들고 어디로 도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총을 쫓다가 저것들이 싸우다가 총을 내버리고 가면 어떻게. 누가 주도를 했는지 내촌청방과 우리를 일렬로 세우고는 총을 주라고 하더라고. 이름도 적지 않고 얼굴만 보는 거야. 아홉사리 고개를 지킨다고. 그 쪽 지역을 잘 아니까. 편안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더라고. 한청 단장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쉬라고 숲으로 안내를 하는데 아홉사리 밑에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자라고 하더라고. “이 새끼 이게 빨갱이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자” 무기까지 다 청방들 빌려주고 빈손인데 우리에게 죽으라는 거지. “아 잘 못 생각했습니다. 갑시다.” 그 밑에 내려와서 내촌창고를 채 못 진 곳인데 거기에서 한 군데 들어가 자면은 보초 설 사람 총 한정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한 정은 남겨 놔는데 한 명씩 보초를 서고 자는데 새벽녘이 되니까는 부적 부적 피란민들이 내려와. “어떻게 됐어요?” “또 틀렸다”고. “또 밀린다”고. 먼저 내려가라고 해서. 조금 있다가 상남에 사시는 고모부가 내려오시더라고. “가자 가자.” 총을 찾아야 내려가지. 조금 내려가니까 큰 솔밭이 있는데 거기서 총을 빌려준 사람들이 후퇴를 하면 거기서 총을 받아가려고 지키는데 와서 총이 여기 있다고 다 찾았어. 내촌 시내를 빠져 나가려고 하는데 산에서 시커먼 뱃놈 나오면서는 무장군인들이 먼저 빠져나가면 어떻하냐고, 피란민을 먼저 피란을 시켜야지 도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끝이듣고는 도로 들어갔다. 양 쪽에서 사격을 하더라고. 속은 거지, 그래서 못 견디겠어서.. 저 뭐라고 그래.

가을이면 추워지면 나무로 다릿발 세워서 술가지 갖다가... 다리 하나 가지고 건너가나? 그때가 음력으로 10월 20일 경이 됐을 거예요. 물을 건너가고. 그래서 철정 못 미쳐서 지금은 102병원에서 조금 올라가면 질매재 고개가 있어요. 거기까지 후퇴를 해서 거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홍천청방에서 차 두 대를, 아마 미군 제미시가 아니라 일산차일 거야. 화물찬데 차 두 대에 복장도, 우리야 전부 인민군복 뺏어 입고, 아니면 전부 사복이고 학생복이고 그랬지. 어디서 옷을 얻어 입었나. 총을 한 자루 얻었나. 실탄 보급을 받았나. 내 옷 입고 내 밥 먹고 적군의 무기를 뺏어서 싸웠는데 홍천청방은 들어가 보니까 옷도 다 입고 무기도 전부 엠원으로 짝 뺏더라고. 그리고는 차 뒤에 그게 무슨 폰지 몰라. 길이는 얼마 안 되는데 직사포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끌고 내촌 쪽으로 거기에 들이대고선 몇 발 쏘더라고. 그게 저지가 되더라고. 그래서 개들은 더 이상 못나오고 우리는 내려와서 동네에서 주둔을 하고, 집집마다 몇 명씩 주둔을 하고 부인회에서 나와서 밥을 해주고 돼지를 잡아 회식을 다 시켜 주더라고. 거기에서... 약 한 달 정도를 세월을 보냈어. 이쪽 그 102병원 뒤 높은 산 고지에 올라서 보초를 서며 한 달 동안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가 그때 한 삼백 명 추산이 되잖아? 나이를 서른 살로 제한을 하던가. 서른 살 미만은 청년방위대, 서른 살 이상은 향토방위대. 그래서 홍인철 대장은 나이가 많거든. 그래서 홍인철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데리고 향토방위대로 갈리고, 부대장은 청년방위대로 갈리고. 그리고 나니까 청방이 오륙 십 명 밖에 안 돼. 그랬는데 전형산 씨라고 들어봤나? 자유당 때 국회의원도 했지. 그 양반이 그때 어느 경찰에 있었는데 인제지구전투사령관이란 명칭을 띠고, 그건 뒤고 기린으로 출발을 해서 진격을 하는 거야. 여기 두촌면 괴석이라는 곳이 있어. 넘으니까 전형산 씨가 여나무 명을 데리고 홍천지구인제사령관이라는 명칭을 띠고 거길 들어왔더라고. 거기서 합해서 자고 또 이틀 밤을 잤는지, 그때 내가 미군놈 군화를 신었는데 앞이 뺏머리 모양으로 나오잖아. 눈이 왔는데 올라가면 쪽 미끄러지고. 딱꼭총을 매고 그때 내촌에서 상남지서 직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우리가 후퇴를 하기 전에 경찰관들은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다가 같이

후퇴를 했는데 상남지서원들을 상남지서장 인솔하에 선발대로 먼저 들여보내고 우리는 자포대 그 골짜기로 올라서 왔단 말이야. 이들 만인가 사흘 만인가 상남으로 들어왔는데 텅 비었어. 아무도 없어. 우리가 먼저 주둔을 하고 전형산 씨도 들어오고 청방도 들어오고. 그제사 상남지서장이 대원들을 인솔하고 주력부대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뒤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전형산이가, 상남지서장하고 학교도 같이 다녔어. 이 세끼 총살감이라고. “적군이 없어서 그렇게 선발대로 들여보냈더니 이제 들어오면 우리가 맘 놓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별별 떨지. 계급으로 하면 전형산 씨는 경감일 거야. 야는 경사야. 총살 시킨다고. 청방대장도 형산이하고 친구야. 아나가서 참자고 뜯어말려서 살아났지 까닥했으면 죽었을 거야. 거기서 하루를 자고서는 그 이튿날 하남으로 내려왔어요. 아직도 기린 덕다리에는 적군이 많이 있다고 그래. 거기 내려와서 자고 진격해 내려올 참인데 그날 밤에... 참 그제 구세주가 생긴 거지. 9사단 28연대 2대대가 거길 들어왔더라고. 들어와서 같이 자고 밤에 선발대를 청방에서 뽑더라고. 들어갈 사람. 그때 내가 딱꼭총을 가지고 있었어. 딱꼭총 실탄이 제일 많아. 실탄을 구하기가 용이해.

- 딱꼭총이 뭐죠?

한 발씩 쏘는 거지. 연발이 안 되고, 소련장총이지. 드르륵 하면 따발이는 되는데 이걸 실탄이 귀하잖아. 이런 총으로는 선발대나 돌격대에 못 들어가지. 현역군 몇과 같이 들어갔어. 아침에 덕다리에 들어와 보니까 논바닥에 여기 저기 시체가 널렸더라고. 인민군 시체가. 그게 거기 들어온 게 기억이 나는데 동지날이야. 동지가 12월 22일 아니야. 그래서 현리에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점심은 부인회에서 다 나와서 해주고. 먹고 나니까 우리 청방들을 뭐 5명씩 6명씩 일대 소대에다 붙이는 거야. 지방사람이라고 지리를 잘 안다고. 한 30명 나왔나. 그때 28연대 5중대 1소대 소대장이 임 소위라고 했어. 5중대가 양지 말로 건너가고 5중대 1소대는 우리 청방하고 합세를 하고 이 길로 나온 거지. 임 소위가 오만 분의 일 지도를 내놓고는 그때 작전지시를 한 놈이 빨갱이야. 지금 생각하면. 거무석이라고 해, 앞에는 깎아지른 곳이고 뒤도 험하잖아. 지

도를 내놓고 여기가 목적지라는 거야. 작전지시를 그렇게 하는 놈이 어디에 있나. 거기가 어디라고 거길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가는데 서리에 있다가 우리가 이리로 내려오니깐 인민군 놈들이 서리 양지말에 있다가 뒷산으로 뛰더라고. 사격을 하고 집 있는 데 들어가니까는 쫓아 나와서 아 여기 빨치산 놈들이 와 있었는데 반공분자 죽이고 가야 된다고 들어오더라. 그때 우리가 총질을 하니까 도망한 거래.

- 빨치산이에요 인민군이예요?

빨치산이지. 진짜 빨치산은 아니지. 왜정 때 항일운동 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는데 .육이오 때 빨치산이라는 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부역을 하고 감투를 쓰고 있다가 후퇴하니까 쫓아 들어간 거야. 그걸 빨치산이라고 해. 그새 끼들이 못된 짓을 하는 거지. 이놈들이 갖다가 또 나온 거지. 도로 나와서 사람 죽이고. 거기서 또 행군을 해서 하담으로 내려왔어. 내려와서 거기서 어두운 밤인데 전투를 했지. 거긴 병력이 못 올라가겠더라고. 오늘 저녁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작전을 다시 세우자 해서 거기서 잤어요. 그 이튿날 임소위가 지도를 내놓고는 지시 받은 데 거무석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다섯 명이 차출이 됐어. 척후병으로. 날 앞에 서서 다락구미로 내려오니깐 내 앞에 가던 사람이 주저앉아 앉아. 총에 맞은 거야. 뒤에다가 소대장에게 연락을 하니까 그 소대장이 손짓을 해서 오던 길로 후퇴를 하는 거야. 올라와서는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애들이 올라오기를 바라는데 올라오면은 쏘려고. 잠복을 하고 엎드려있는데 이놈들이 원대리로 건너가 버린 거야. 개들은 우릴 못봤지. 그래서 놔두고 우리는 출발을 해서 하추리로 내려온 거야. 내려오니깐 지금은 다리가 있지만 그 길이 내려가서 올라오고 이렇게 됐어. 하추리 개울 저쪽으로 논밭이 있는데 부대가 주둔했으면 틀림없이 거기에 보초가 서 있을 거 같더라고. 기어가서 올라가 확인을 하니까 없어. 그래서 도로 내려가서 올라가니까 하추리 건너간 첫 집의 변소 사이에서 간격이 좁은데 거기서 총이 불쑥 나오더라고. 드르륵. 개네 암호가 106인데 106하니까 총이 내려가. 총을 거두더라고. 그래서 내가 총을 쏜 거 아냐. 한참 사격을 하고는 들

어가 보니까 이놈들이 밥을 저녁을 먹으려고 한 거야. 방안에 이영을 엮어서 죽 늘어놨는데 거기 들어가선 육박전에 개머리관으로 치고 그랬어요. 전투가 다 끝나고서는 길로 내려와 보니까는 풀을 베어서 짚더미처럼 쌓아 놓았는데 자루 같은 게 시커먼게 보이더라고. 쿡쿡 찌르니까 물렁해. “이 새끼 손 들어” 하니까 손을 번쩍 드는데 아주 덩치가 큰 놈이야. 포로로 잡았어. 총도 상당히 많이 건지고. 반뎡크 보라고 포열이 2미터 이상 되는 게 있더라고. 그 놈을 잡아서 물어보니까 거기가 대대본부로 썼대. 거기서 철수를 했어야 돼. 더 내려간 거야. 길 밑에 오목한 데가 있는데 집이 하나 있어. 들어가 보니까 부엌에서 불에 타고 그래. 솔을 열어보니까 닭은 삶다가 내뺐더라고. 그래서 배도 고프고 건져서 뜯어 먹으며 보초를 켜는데 눈이 약간 왔는데 고무신 여자 발자국이 강가로 나갔어. 발자국을 따라 조금 나가니까 논배미에 짚을 싸 놔는데 짚 속에 들어갔더라고. 손들고 나오라고. 공포를 쏘니까 집 주인이더라고. 너의 집에 얼마나 있었어. 한 삼십 명 있었다고 해. 붙들고 생포한 놈 하나하고 방에 들어가니까 방에 벼들이 있더라고. 벼 찌는 거. 그 안에 들어가서 닭 먹구 거기서 밥을 새웠어. 새벽에 자꾸 앞에서 따발총을 쏘고. 이놈들이 분산이 됐다가 우리와 싸우러 온 거야. 이렇게 보니까 누가 오더라고. 누구냐고 큰소리도 못 지르지. 누구냐니까 밥 지러 왔다고. 하답에서 밥을 해서 주먹밥을 한 청원 둘이. 받아서 들어가서 먹고. 그때가 새벽 한 다섯 시, 우리 부상자도 하나 없이 전투를 잘 치렀는데 실탄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소대장이 나를 부르더니 연락을 가서 실탄하고 병력지원을 좀 받아서 들어와야겠다고. 데리고 들어오라고. 얼마나 반갑나. 한청원 다섯 명하고 밥 지고 온 둘하고 나온 거지. 다리를 건너서 오는데 앞에 새카맣게 나타난 거지. 알고 보니까 우리가 내려올 적에 원대리로 간 놈들이 돌아오는 거더라고. 그래서 돌려 뛰니까 같이 갈던 사람들이 내려 뛰는 거야. 발각이 되니까 어떻게. 내려 뛰면 죽는다 나를 따라오라고 나는 산으로 뛰었지. 근데 밥 지고 온 분이 40이 넘는 늙은 분이야. 그때까지 지계를 짚어지고 따라온 거야. 지계를 내버리라고. 내버리고 산을. 고지가 능선이 죽죽 이렇게 내려오잖아. 얼마나 날이 흰하게 됐는데 이

쪽 다락구미 보이더라고. 거길 내려오니까는 어떤 바지저고리 입은 놈이 총을 지고 강을 건너가. 부르니까는 만나서 셋이서, 들어오니까 네 사람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하답을, 강 저쪽 건너서 더드미 고개에서 시키면 게 한패가 내려오더라고. 우리 부대가 날이 새니까 내려오는 놈이로구나 했는데 우리부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락구미 내려오잖아. 인민군이야. 심겁지. 혼자 거기에 몇 발 쏘네. 거기서 몇 발 쏘 봤자. 중대장한테 그러니까 가라고 해. 그때 양지말에 가니까, 참 내가 육이오를 험하게 겪었지. 그때 우리 육촌동생 되는 분이, 소련군이 별통 짊어지고 갔다는, 한문훈장을 했어요. 이 양반이 거기서 나오더라고. “아이구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저예요.” “병수냐?” 그렇다고. 아 붙들고 우는 거예요. “너 집의 소식 들었니?” 못 들었다고. “너 어머니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정신을 못차리겠어요. 멍하니 섰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가기도 그렇고. 일단 가서 상황을 알려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소대가 지금 포위가 돼서 앞에는 절벽이고 앞산에는 절대 못 올라가고. 실탄이 다 떨어졌으니까 실탄과 병력을 다만 얼마라도 일개소대라도. 병력은 다 나가고 없다 이기야. 실탄은 많지 않지만 실탄은 가져가라고. 실탄을 갖고 중대본부로 오니까 거기 나오다가 도망가고 안 왔던 사람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은 왔고 한 사람은 안 왔더라고. 그 사람은 죽었어. 한 사람은 죽었어. 와서 아이고 난 죽겠다고. 해가 다 갔어. 실탄 가져왔으니까 저 사람들 인솔해서 부대로 가라고. 보내고 줌 있으니까 얼마 못가서 실탄이고 뭐고 다 집어 내버리고 왔더라고. 그래 중대에 보고를 또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시 중대로 또 돌아왔지. 벌써 알고 있더라고. 벌써 탈출을 해서 중대본부에 두 명이 와 있더라고. 그래서 일개소대가 들어갔었는데 거의 전멸하고 몇 사람 못 살았어. 도로 내려와서 자는데 “중대장님 중대장님” 소리가 나. 아는 목소리더라고. 반가워서 쫓아나가서 들어오라고. “나는 이제 총살감이야.” 죽을려면 자기 혼자 죽지 자살한다는 거야. “부하 다 죽이고 나는 총살감이라고.” 쏜다고. 그걸 뜯어 말리고. 중대본부 가다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됐다고. 그 빨

치산이... 모르지 내, 짐작에 내가 청방이니까 청방가족이라고 총살을 당했다고. 그때 내 동생이 다섯이 있었어요. 집사람이 있고. 여섯 식군데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집에 가 봐야겠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혼자 총을 지고 올라와서는 역골로 들어가니까 군인들이 불을 해놓고 보초를 서는데 전형수라고, 그때까지 그 사람이 말짱했지. 그 사람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걸 알고. 어디에 가냐고 집에 소식을 듣고 가는 거라고 빨리 가보슈. 갔어. 가니까 피란 갔다가 문은 다 뜯어지고 여섯 식구가 죽 둘러앉아서 방안에 불을 쬐고 있더라고. 들어가서 붙잡고 통곡을 하고 북아치다가 저녁을... 해 먹고. 총을 지고 자려니까 못 자겠는거야. 그 꼭대기에 육이오 때 소대가 주둔하고 있던 병커가 있어요. 땅을 파서 바닥에 온돌을 놓고 병커가 있는데 거기서 한청원들이 보초를 섰는데 거긴 7중대가 있는데 7중대본부가 거긴데 날이 새면 보고를 해야 돼. 보초 선 델 나갔잖아. 거기서 무사히 날을 세웠어. 몇 사람이 이제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고. 나도 집으로 밥 먹으러 가고. 거기서 우리집에서 7중대까지 거리가 한 1킬로 5백 정도 그 밖에 안돼. 밥을 먹고 앉아 있는데 내려갔던 사람이 김대순이라고 개도 중담 삼팔선 이북에서 월남한 아인데 “병수 형님 큰일 났어요. 7중대 본부에 인민군이 가득해요.” 밤에 후퇴를 한 거야. 우리가 들어갔다가, 거무석에 인민군이 있었지. 임시위 부대가 그렇게 되니까 역골로 내밀고 그러니까 밤새에 국군이 또 후퇴를 한 거지. 참 또 살아야 된다고 모이다 보니까 사람이 7-8명 모였어요. 보따리를 싸고 쌀을 싸고 이불을 넣어서 짊어지고 앞산을 넘어서 방동으로 넘어야 한다고 앞산을 기어 올라갔어요. 가서 쉬면서 생각을 하니깐 ‘내가 무슨 애국자라고 아버지 어머니 다 잃고 못가겠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어떤 사람은 지 어머니하고 마누라가 죽었어요. 까짓거 이제 식구하고 같이 있다가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고. 모두 안 간다고 도로 내려온 거야. 그래도 피란을 해야지. 왜정 때 일본놈들이 금을 캔 금광굴이 있어요. 우리가 흥천에 나가 있을 때 그 굴에 피란 간 사람이 있어요. 굴 안에 물도 있고 좋다고 그래. 크지도 않고, 짝 짊어지고 거기에 들어간 거야. 안에 들어가니까 훈훈한

게,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육이오 전에 숲을 군 숲가마가 있어. 숲을 피워놓으니까 좋더라고. 밥을 해먹으며 한 일주일 됐나. 무슨 소식을 들어야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식구들이 연락을 해줄 수도 없고. 일단은 그게 갑갑하더라고. 도로 나가자. 나와서 우리집 꼭대기에 상당히 친한 형님 동생으로 지내는데 집으로 안 가고 거기로 갔어요. 집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나무를 패려고 하는데 얼은 게 그게 패지나. 나무나 패주고 가야겠다. 내려가서 패는데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나. 보니까 명주바지 저고리에 전용수가 딱꼭총을 매고 “안 나갔네.” 내무서원이 됐더라고. 한 십여일 보름동안 밖에 안 됐는데. 저 집이 내무서야. 나보고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그래. 지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우리 내무서에서는 절대 과거를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죄를 안 두고 관대하니까 사실을 자백하고 나오면 우리와 함께 손잡고 할 수 있으니 하라고. 그러냐고. 그럼 내일 내려가겠다고 달래서 보냈어요. 거기 가면 죽는 거지 뭐. 안 되겠더라고. 도망을 또 했어요. 마락이라고 거길 넘어왔어요.



## 면당위원이 뭐라고

- 구술자: 김인호(가명)
- 구술자 나이: 87세(1926년생)
- 면담자: 정무교
- 면담주제: 한국전쟁 전후의 북면과 구술자의 삶.
- 면담일자: 2012년 11월 10일,14일
- 면담장소: 인제군 북면 김인호 씨 자택

### 〈면담상황〉

김인호 씨 자택을 찾아 처음 만났을 때 김인호 씨는 방문자에 대해 의심하며 불안한 심리를 보였다. 자신이 구술하는 내용이 어디에 쓰일지를 물었다. 나의 대답을 들은 김인호 씨는 그래도 자신의 삶을 말하는 것을 꺼림칙해 했다. 자신의 삶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커 보였다. 나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말을 해주셔야 후세들이 교훈을 삼는다는 취지의 말로 설득을 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는 눈치여서 나는 구술자의 실명을 쓰지 않고 가명으로 책을 내겠다고 했다. 그 말이 통했는지는 몰라도 김인호 씨는 자신의 삶을 실마리를 잡고 풀기 시작했다(그래서 ‘김인호’는 가명이다).

김인호 씨의 목소리는 탁하고 발음도 불분명할 때가 있었지만 기억력은 좋아 지

금까지 여러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고, 정황도 분명했다. 하지만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흡연을 여전히 하셔서 구술을 하는 중에 가끔 밖으로 나가셔서 흡연을 했다.

구술을 하시면서는 그때의 일이 떠오르시는지 인상을 자주 쓰셨다. 가끔은 웃기도 하시며 질문에 대답을 하셨다. 구술을 하시다가는 자신이 한 말에 갑자기 겁이 나시는지 간간히 ‘왜 자꾸 묻느냐?’거나 ‘어디다 쓸 거냐?’는 말을 하셨다.

김인호 씨는 공산당에서 면 위원을 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공산당 활동을 구술하는데 힘겨워 했고, 그런 만큼 김인호 씨의 구술은 가치가 있다.

구술의 뒷부분은 김인호 씨가 거제포로수용소에 갔다가 돌아오는 내용으로 마무리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듣고 싶은 내용과 거리가 있어서 뺐다. 그리고 김인호 씨가 거제포로수용소에 있다가 나온 부분에 이어서 뒤로 돌아가 한국전쟁 당시가 회상된다. 이것은 첫 번 녹취를 할 때 미진한 부분을 두 번째 녹취에서 다시 질문해서 받아냈기에 생긴 것이다.

-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7세요.

- 그런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약으로 살아요. 43년도에, 온 지 3년 만에 해방이 됐으니까, 용대리에 왔어요. 속초에서 태어났어요. 그 학교 졸업 말고... 아버님이 나를 47세에 낳거든. 나를 처음으로 봐서 나를 노인자제라고 했어. 아버님이 구한문 학자야. 아무데 가도 그냥 선생님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그 시절에, 한계리 민예단지를 재내라고 해요. ‘재내’라는 이름이 원래는 와천이야. 기와 와자, 내 천자. 우리 말로 재내야.

- 예전에 기와 만드는 곳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한계초등학교 앞에서 기와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 사는 장용진 씨라고 우리 아버님과 친군데 그 동네서 이장을 했어요. 원래 아버님과 동문수학한 사람이라 우리 사정을 알고는, 친구 자체만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리 나오라고 해서 내가 나온 거예요.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일정

때 그 분 덕을 많이 봤어요. 일정 때는 영서와 영동의 문화가 천지차이였어요. 영동은 높고 영서는 낮았어요. 저쪽은 강릉까지 기차길이 났으니까. 왜 놈들이 많이 발전시켜 놔지. 그 시절에 문화수준 차이가 많았어요. 영서는 전부 바지저고리 입었지만 저쪽은 양복을 입었어요. 이장은 고을 원 세나가졌어요. 날 빼갔다고요.

- 영동이 물산이 풍부했나봅니다?

물산이 풍부하고 원래 생활력이 강하지요. 엄한데 가면 다 기와집이죠.

- 태어난 년도가 언제시지요?

태어난 때가 1926년이지. 43년에는 18살에 용대리로 가족 모두가 아주 이사 왔어요. 나를 살릴려고 우리 아버님이. 지금 학생들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이상한 말을 하는데 북침이나 남침이나 떠드는데, 지금 보면 아주 답답해서. 육이오 사흘 전에 인민군이 집결하는 걸 봤거든.

- 전쟁이 나던 1950년에 25살이셨으니까 다 기억이 나시겠어요?

맞지요.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6.25사변이 북침이나 남침이나 논할 때 분명 이건 북침이에요....내가 애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북에서 거..... 47년돈가 48년돈가 그때에 나를 먼 대위원으로 추천을 하더라고요. 재내에 있다가 용대리로 이사왔어요. 남교리 이장이 "해방이 됐으니 이제는 아래 웃동네에 아이들 한 40명 되니 글을 가르쳐 달라" 우리 아버님께 그래서 남교리로 간 거예요. 서당일 차려놨는데 한 2-3개월 댜서는 동네 사람들이 당을 조직하더라고. 그때는 공산당, 신민당이렸어요. 지식인층은 신민당에 들어가고 그 외에는 공산당에 전부 입당시키고 그랬어요. 그때에 인제군당위원장이 김학만이라고 고성사람이에요. 남면면당위원장이 심상범이고.

- 그게 공산당에?

그럼요. 북면면당위원장이 박철이라고 천도리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다 월북했어요. 그래서 개들이 지방자치제라고 해서는 먼 위원을 선출하더라고. 먼 위원에 나를 추천하더라고요. 나를 어서 선거하고 하니 월학리 송학동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신병교육대가 사천리야. 송학동과 사천리를 합쳐서 송사리

라고 했어요. 송사리 제11호 선거구로 했어요. 그때는 면 대위원을 지방자치 제라고 명목상 했는데 날 추천해서 면 대위원으로 당선됐거든. 면 대위원으로 당선되면, 나 솔직하게 얘기해요. 공산당에 입당해야 하잖아요.

- 아직 입당이 안 된 거예요?

아직이지. 날 공산당에 입당시키더라고요. 면 대위원 측에서 면장이 나왔어요. 면장이 누군고 하니 심상태라고 송학동 사람이예요. 그 사람이 면장이 되고 우리 평위원들이 있었는데 거 육이오 사변 나기 직전에 사흘 전서부터 간성서 인민군이 넘어오는데.. 야! 세상 난... 그때 싸이카부대, 세 바퀴짜리 오토바이가 있어요. 운전석 뒤에는 병사가 따발총 딱 걸고 옆에 배 같은 데에는 병사가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고. 그 싸이카 부대가 수도 없이 넘어오는데 뭐 뭐 그냥 풀로다 다 위장을 하고 넘어오는데 한도 없이 넘어와요. 그게 어디까지 온고 하니, 어두리(어두원리)까지 와서 딱 스톱이야. 그 위로 한계리, 용대리, 간성까지 인민군이 꼭 찼어.

- 진부령으로 넘어왔나보죠?

진부령으로 넘어오죠. 노새부대도 있고 말부대도 있고, 말도 많이 타고 왔어.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탱크가 넘어오는데 어두리에 딱 스톱을 하고 간성까지 꼭 찼어.

- 그걸 직접 보셨어요?

아 내가 봤으니까 하는 말이지! 남침이나 북침이나 하도 말이 많은데 내가 증언자니까 말하는 거예요. 원통 내려왔다가 저녁에 우리집에 들어가 보니까 인민군이 뭐 뭐. 그때는 우리 부엌이 상당히 넓었어요. 부엌 그 옆에는 마구가 있어서 소를 길렀어요. 이 지역은 워낙 춥기 때문에. 부엌의 대문도 큰 나무를 지고 그냥 지나다녔거든. 그 부엌에 인민군이 썩카맷게 깔려 있더라고. 그때 우리가 그 전 해에 이영을 못해서 봄에 하려고 마당에 쪽 냈는데 이영을 전부 부엌에 깔고, 마당도 넓었는데 이영을 마당에 깔고는 전부 새카맷게 누워있는 거야. 모포 하나 덮고는.,

- 그게 육이오 3일 전이란 말씀이세요?

3일 전이지. 그런데 25일 새벽에 나오니까 인민군이 하나도 없어. 엮어 놓은 이영을 전부 묶어서 마당에 갖다 놓고. 부엌과 마당을 깨끗이 청소하고는 떠났더라고.

- 새벽에 일찍 떠났단 말씀이세요?

새벽인지 언젠지 모르지만 떠났더라고. 어두원리서부터 25일 새벽부터 밀고 내려간 거야. 관대리 삼팔선에서 여기까지 하면 한 7-8키로 될 거예요. 그걸 박차고 나간 거야. 그걸 내가 봤어요. 목격한 사람이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오 사변을 겪는데 9.28수복을 했잖아요? 인천상륙작전 해서는. 아군이 그 다음에는 북진하는데 삼팔선 원통으로 해서 간성까지 주력부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정용진 씨라고. 정재학은 인제에서 약국을 했어요. 그 사람은 약대를 나왔는데 정용진이 삼촌이야. 정재학이 아버지는 정영우라고. 남교리 밀 동네에 정자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옛날 단일로로 가면 단일로 끝에 첫 동네야. 거기서 정용진이 형 정영우가 살았는데 정영우가 리 서기를 봤어요. 그때에 용대리 인민위원장이 강윤식이야..... 그 밑에서 리 서기를 본 거지. 정용진이란 사람은 옛날 인제에 인홍상회를 운영했어요. 정용진이 거기서 만형수와 같이 살면서 장사를 했지. 그러면서 정재학을 대학까지 가르쳤어요. 이래서 정용진은 그때 비당원이야. 당원이 아니야. 정용진이 주관이 돼서 한청을 조직했거든. 대한청년단. 그래서 치안대를 조직한 거야. 그래서 날... 끌어들인 거야 글로.

- 할아버님은 면 위원을 하셨잖아요?

했지. 재들 헌법상에는 인민이 추천해서 인민이 선거한 지방위원은 군대를 면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를 안 간 거예요. 그 덕도 봤죠. 이런 사람인데 정용진 씨에게 “내가 어떻게 한청에 가입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보장한다”그러는 거야.

- 정용진 씨가요?

그럼. 잘 알거든, 우리 아버님이 학자지. 결국은 날 이용해서 부러먹으려고 그런 거지. 사실 신분상으로는 좋지 않았지. 특히 자들은 학자들을 팔세 했

어. 그래서 날 끌어들었어. 처음에는 대한청년단 완장을 여기(팔)에 차고 다니다가 패잔병들이 지금의 생수공장 뒤로 지나가잖아. 글로 해서 고개만 하나 넘으면 서흥리로 빠지거든요. 백담사로 빠지고 전부. 패잔병들이 있는데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완장을 허리에 차고 우와기를 내리고 다녔지.

- 공당산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패주하거나 넘어가지 않았나요?

난 안 넘어갔어요.

- 국군이 들어오면 위험한데 왜 안 넘어가셨어요?

다른 공산당원은 다 북으로 넘어갔는데 난 안 넘어갔어. 우리 아버님이 한학자라 정감록을 많이 숭상하는 양반이예요. 동네 이장이 정감록 서적을 가져와 해석해 달라고 하면 아버님은 항상 “남으로 나가야 산다”고 해석을 해주셨어. 십승지가 있는데 십승지는 사람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곳 ‘십승지’라고 하는데 ‘십승지가 남에 있지 북에는 없다’는 거예요. 북자 붙은 데는 십이년적굴이라, 북자 붙은 데에는 살지 마라는 거예요. 그 해석을 많이 들어서 북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 그래서 안 가셨군요?

그럼요. 그 해석을 많이 들었거든요.

- 북한군이 넘어가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한 공산당원들은 다 넘어갔겠네요?

나 빼고 공산당 활동한 사람은 다 넘어갔어요. 아무튼 패잔병 때문에 치안대 활동을 못했어요. 개들에게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때는 법이고 뭐고 없어요. 이제 내가 별 얘기를 다하네... 머머 아무케나 무슨 상관이었겠어. 90이 다 돼 가는데.

- 그런 말씀을 남겨주셔야 후세 사람들이 교훈을 받습니다.

그 얘기 다 하려면 기기 막혀... 그계 정용진이가 저 형을, 목적은 저 형을 살리기 위해서 치안대를 조직한 거야.

- 형이 무슨 일을 했는데요?

리 서기를 봤다고! 그 전에 동네에 총회를 붙인 게요. 총회라고 해야 군대를 피해서 전부 이 골짜 저 골짜 산골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서 정용진

이 “우리가 지금 이 조직을 추진한 것은 ‘솔직히 얘기해요.’ 대한민국을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인민공화국을 반대해서도 안 되고 다만 지방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다. 젊은 우리가 나서서 이 활동 못하게 되면 누가 지방 사람을 보호해 주겠느냐. 우리 목적은 지방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협조해 달라”고 이리 된 기야. 그런데 공산당에 의해 세뇌가 철두철미하게 된 사람들은 그게 절대 안 먹혀들어가.

-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치안대를 적으로 봤거든. 적으로 간주하고 닥치면 잡아 죽이는 기야. 그때는 청년들이 구성을 해서 안전을 지키는 단체인 재들은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본고 하니 환영문을 내세웠거든. 솔가지를 꺾어다가 태극기를 쫓고 국군환영문을 세운 거예요. 동네 이장 반장까지 다 선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인민군 패잔병들이 서화로 해서 가전리로 해서 장승리, 이포리까지 꼭 들어왔어. 전방에 들어가면 가전리라고 있어요. 가전리에서 우리 아군이지만 그 위로 가면 장승리야. 그 다음 마지막에 이포리, 이포리가 인제군 끝이야...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나?

- 총회 열어서 정용진 씨가 치안대 조직한 얘기 하시는 중이에요.

그게... 인제군에서 근무하는 이북의 공화국의 기관들 말이에요. 우체국 뭐뭐 인민위원회 경찰서 각 기관들이 완전무장을 하고 서화로 들어간 거야.

- 국군이 물려오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완전무장을 하고 서화에 다 집결한 기야. 거기에서 첩보가 들어온 거야. 우리한테로. 오늘 습격나간다. 그래서 정용진 씨 하고, 그 동네에 정남운이라고 있어요. 김윤식이 이 세 사람이 주동인데, 이 세 사람은 정용진 씨 집 앞 강 건너로 건너가고 단일로 산기슭을 타고 원통으로 빠져나가고, 나는 거기 합류를 못하고 산골짜기에 숨었지요. 숨어 있다가는 재들이 이 원통까지 그때 자치해방을 시켰어요. 자치해방은, 그때 전부 아군들이 지나만 갔지 매일 주둔하는 군인은 없었어요. 썩 비워놔어. 주력부대가 지나만 갔지 썩 비워놔어. 그래서 맥을 쓸 수 있어?

- 치안대는 총이 없었나요?

치안대는 총도 없고, 총이 있으면 치안대는 다 죽었지. 안 그래요? 원통이 습격을 받으니까 쫓겨서 인제로 가고 인제에서 습격을 받으니까 관대리, 옛날 관대리는, 옛날 3군단 자리데 물이 차서 잘 모를 기야. 그때 남면소재진데. 그래서 패잔병들이 자치해방을 시킨 거야.

- 그러면 아군에게 잘해준 사람들은 또 곤란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때까지 재들이 나를 긴가민가 했어. 원통을 내려오는데 그때 왜 내려온고 하니 북에 가라고 하더라고.

- 할아버님에게요?

예. 리 인민위원장인 강윤식이 나에게 군대를 가라고 하더라고.

- 자치해방이 되고 만나셨어요?

예.

- 의심을 한 건가요? 강윤식 씨가 할아버님을?

그 전에 잘 몰랐거든. 내가 치안대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개들은 몰랐거든. 면당 선전부장을 하던 이재선이라고, 박철이가 그때 아군 총에 맞아 병원에 가고, 이재선이 발령을 받아 왔거든, 이재선이 나를 추천한 사람이야. 나를 잘 알죠.....군대를 가라고 해서 원통을 내려오는데 그 전에 있던 일인데 웬 여자가 긴 단발머리를 하고 까만 코트를 하고는 책보따리를 끼고는 칼빈 총을 거꾸로 미고 얼굴이, 거기서 만났어요.

- 그때가 언젠가요?

육이오 전쟁 때지. 개들은 부락 당 위원장을 세포위원장이라고 해요. 세포위원장이 권동주인데 권동주 씨가 딱 들어와. 이 여자가 거기 딱 앉아 있어. 정복자야. 정복자는 서흥리 앞골에 사는 여자야. 똑똑하고 예뻐요. 거기 정 씨들이 많은데 거기 꽤야. 그 자리에서 나에게 꼬치꼬치 질문을 하는데, 내가 치안대원인지 아닌지 풍문에 듣고는 나에게 질문을 들이대는 거야. 나에게 질문을 들이대는데 내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니까, 정복자가 나에게 “당신 변호사 몇 년 동안 했소?” 그러더라고, 개들은 당증을 조상할아버보다 더 귀하게



모셔요. 당증집을 해서 목걸이를 해서 품 안에 넣고 다녀요. 당증을 내놓으라는 기야. 그래서 안 내놓으려고, 그거 내놓으면 마지막이거든. 피하다가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고는 내 쫓지요. 내 주고는, 그날 총회가 11시를 훨씬 넘어서 나 때문에 연 거예요. 토론이, 말이 나오는데, 출당을 해야 한다고 그러다가 출당된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공산당에 대한 깊이를 잘 몰라서 내 이야기 하는데 탈당은 내가 싫어서 탈당하는 거고, 출당은 당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이 출당이에요. 그때 정복자가 사람들은 여럿이 모아 놓고 총회를 할 때 마지막에 정복자가 총론을 짓는데 세상 나 그때 그런 육은 처음 먹어봤어. “너 같은 놈은 그때 우리 영예로운 빨치산한테 얻어 걸렸으면은 가슴에 총 열두 발도 더 쏘고 남았어”라고 결론을 짓더라고. 그래서 군대 가라는 데 안 갈 수가 있어? 면 위원은 군대면젠데 군대 가라 이기야. 그래서 열일곱 살 열여덟 살 먹은 미성년자들과 같이 내려오는데 사거리에 오니까 웬 젊은 청년들 길 옆에 마루에 앉았다가 나오면서 “용대리 박일서 동무가 누구야?” 나라고 하니깐 면당위원장이 오란다고 해. 갔지. 가니까 면당위원장이 이런 방에 앉은뱅이 책상에 앉고 옆에 권총을 옆에 놓고 쉬고 있더라고. 위원장이 내게, 부락에서 내려온 젊은이 가운데 똥똥한 사람 몇 사람을 추려달라는 기야. 왜냐고 하니깐 빨치산에 편입시키려고 한다는 기야. 그날 내려온 사람들 중에 한쪽은 인민군에 가고 한 쪽은 빨치산에 가는 기야. 똑똑한 놈들은 몇 사람 빨치산으로 추려달라는 기야. 그래서 명단을 제시하니까 신체검사를 하는 곳, 지금의 복지회관 자리에 와서 보니까 벌써 인민군으로 보내려고 벌써 신체검사를 다 하고 편입이 된 기야. 나도 군대에 간다고 하니깐 “동무는 안돼!” 전방에 나가 싸우려고 한다니까, “동무는 안돼.” 그래, 왜 그러느냐고 하니깐, “동무는 전방에서 싸우는 것보다 지방에서 싸우는 게 백 배 효과가 있어.” 면당위원장이 나 출당 받은 거 모르는 기야. 군당에서 직접 와서 나를 군대에 보낸 거거든. 그때 전화가 없으니까. 면당위원장이 모르는 기야. 난 민청의 회의를 해도 내가 전부 작성해 주고, 세포회의를 해도 내가 전부 작성을 했거든. 원래 능동했기 때문에 그때 회의록 깨끗이 작성한다고 개들에게 칭찬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북으로 피란을 가라고 하더라고. 그 겨울 그러니까 북진을 하고 1.4후퇴 때 나왔다가 다시 북으로 피란을 갔거든. 그 전에 내가 병이 들었어요. 서화로 넘어가기 전에 전부 쌀 몇 말씩 해서 매는데 열이 나고 골이 아파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남교 골짜기에 들어가 있었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움터골이라고 그곳에 비행기 폭격을 피해서 부락민들 몇 십 채가 피란을 했어. 나는 사지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울타리 안에서 갈대를 베어다가 깔고 한테서 잤어. 거기서 또 서화로 넘어가라고 하는데 싹 넘어가고 나는 병이 든 바람에 못 갔거든. 움막에서 그냥, 남다 떠난 움막에 들어 누워 있는데 입과 코에서 피를 얼마나 쏟았는지 한복 앞이 소가죽 같았어요. 피가 하도 말라서. 일주일 만인가, 무장자위대가 서화에서 나왔더라고. 나 때문에 나온 기야. 완전무장을 하고 나왔더라고. 움터골까지. 나에게 “들어갈래냐? 안 들어갈래냐?” 물어. “아 들어가야죠. 죽어도 들어가야죠.” 내가 그랬지, 그래서 산 거야. 못 간다고 했으면 싹 죽었지. 걱정하고 나온 기야. 그때 자위대 하던 사람들 이름을 대라면 다 댈 수 있어. 그 아들도 지금이 동네 살고 있어. 내 그 애긴 안 하겠어. 그래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뒷산만 넘어가면 서흥리 탱크부대가 나오는 기야.

-몸이 아프신 데도 따라가시는 거예요?

예. 그때는 몸이 좀 나아서 떨 만하더라고. 정신이 좀 나더라고. 거기서 한 오백 육백 미터 될까,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이튿 날 설피골이라고, 서흥리 탱크부대 있는 골짜긴데 거기서 하룻밤 자고. 사흘 만에 가전리에 들어간 기야. 가전리에 피란민들이 뭉뚱 얼마나 많은지 남쪽에서 들어오는 피란민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설피골에서 하룻밤 잘 적에도 밤에 누가 방문을 획 열고는 여기 젊은 사람 있냐고 물어. 나는 방 안 구석에 드러누워 있었거든. 문 앞에는 노인들이 있다가 여기 젊은 사람 없다고 한 거야. 후레쉬로 획 비춰보고는 가는 기야. 그게 아군 수색부대야.

-국군이요?

그렇지. 개들이 그걸 알고는 비상이 나서 난리를 쳤지. 근데 거기서도 보니

까 남로당 뭐 뭐 빨치산? 그 여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더라고. 산으로 몇 개월 걸려 머루 다래 따 먹으며 왔다고 하더라고. 내가 직접 들었어. 젊은 여자들인데, 지리산 빨치산 그 부대들인데. 그래서 가전리에서 하룻밤 자고 그이튿날 걸어서 이포리에 들어간 기야. 이포리가 목적인데. 민가집에 들어가 있는데 방을 내놓으래. 방이 없어서 인민군 치료할 방이 없다고. 그게 밤이야. 회양 땅으로 넘어가래. 그곳 속새골로 가래. 회양 땅에 넘어가면 속새골로 가래. 지들도 다 그곳으로 간다는 기야. 밤새도록 고개를 세 갠가 네 개를 넘었나. 인제에서 회양으로 가려면 고개가 있어요. 그래서 속새골에 나가니까 아거기가 국도가 확 뚫렸는데 원산서 회양으로 해서 양구로 나오는 국도야. 국도를 올라가니까 빈 너와집이 있어. 방에 들어가니까 인민군들이 있어. 거기서 자고. 빨치산도 있고.

- 빨치산과 얘기를 나누셨어요?

방이 달라서 듣기만 한 기야. 한 달 먹을 양식을 우리 다섯 식구가 쌀 두 말을 가지고 달 반을 있었나.

- 식구와 같이 가신 거예요?

네 다 같이 갔어요. 아버님, 내 남동생과 나와 아내. 같이 갔으니 살아나왔지나 혼자면 못 살아. 인제군 사람은 나 하나 넘어간 기야. 인제군 사람은 볼 수가 없어. 피란을 온 사람들은 흥천, 원주 이런데서 온 기야. 속새골은 본 주민들은 지집 다 버리고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지. 비행기 폭격 때문에. 우리는 나의 집 차지하고 있고. 참.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있다가 나오는데 나오다가 장승리에 와서 하도 추워서 애기 젖도 먹이고 앉아서 쉬었다가 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빈집에 들어가니까 피란민들이 방바닥에 불을 해서 쪼고 있는 기야. 에미를 젖을 먹이는데 난데없이 벼락치는 소리가 나잖아. 아군 비행기가 폭격을 시작한 기야. 국도변으로 나오니까 인민군 추력들이 몇 십덴지 몇 백덴지 라이트를 끄고 나가더라고. 공중에는 조명탄이 몇 군데 환하고. 인민군 추력들이 빠지고 빠지고. 군도변에 그 흙 파 놓은데, 배수로를 타고. 세상 그런 날리는 그냥, 차들이 그냥 빠지지 까닥하면 차에 죽어요. 쫓겨서 가전리까

지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에 서흥리 설피골에서 내려오면 용대에서 내려오면 첫 터널, 거기가 말말이에요. 거기에 딱 오니까 인민군이 “아바이 담배 없소?” 그래요 함경도 애들은 민간인을 아바이라고 해요. “담배 있죠.” “담배 있음 파소.” 내가 산골에 피란하는 데에서 담배 몇 줄을 산 게 있거든. 몇 줄이 짚으로 묶어서 한 발 그걸 한 두릅이라고 해요. “파소.” 애들이 소위 정치보위부 애들이야. 육이오 때 개들은 아주 세보지도 않은 빠닥빠닥한 돈을 세더라고.

- 그 돈이 통용이 되나요?

이북에서는 통용이 되지요. 그래서 농사도 뭐 비행기 폭격 때문에 뭐 뭐 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그때 아군 비행기도 무자비해. 민간인은 하얀옷을 입었는데 막 하더라고. 우리 이장 내 뒤에 사과밭이 있는데 그 밭머리에 돌담이 있어요. 거기서 숨어 있는데 비행기가 날개를 펴고 지나가면서 딱 쳐보다보니깐 빨간불이 나오는데 기관총이 돌무더기에 떨어지더라고. 돌무더기 때문에 살은 거야.

- 아군 비행기란 말씀이세요?

아군 비행기죠. 순전히 아군 비행기야.

- 다시 농사를 지셨군요?

농사를 지러 왔다가 그 지경을 당했는데. 또 피란을 가래. 북으로. 그때 병이 어지간히 낫을 때니까 쌀 좀 챙기고 가다가 고개 밑에 와서는 딴 데로 빠지고 말았죠. 고개를 넘으면 북으로 넘어가는 건데 안 넘고 셋길로 빠진 거야. 거기서 피란처가, 서주해 씨라고 그 양반이 봐둔 바우굴이 있어요. 암굴이지. 자연적으로 생긴 천연 굴이지. 거길 밤에 찾아가는데 밤에 찾더라고. 거기에 가서 있는데 저녁에 자는데 짹짹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김종호 어머니가 “여보게 피해 피해.” 일어나서 밭을 내려다 보니까 아주 후레쉬 빛이 번쩍번쩍 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 국군이예요?

국군이예요. 서화 인민군하고 붙으려고.

- 굴은 위치가 어디인데요?

남교리. 황철굴 그 안에 있어요. 거길 튀어나와서 고개 하나 넘어서 보니까 그 밑에서 다가다가닥 아군이 수 없이 올라오는데. 아침에 날이 환하자마자 보니까 바우굴 앞에 새카맣게 있잖아. 군인들이 바우굴 앞에 물을 먹느라고. 그래서 살은 기예요. 산골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몇 달을 이발을 못해서 머리가 자란 거야. 이가 많아서 이 잡는 게 일이야. 감지도 못하고. 이가 버글 버글하고 머리가 머리가 아니죠. 흘랑 깎았지. 흘랑 깎고서 나오다가 미행씨 아이씨에게 걸려서.

- 그게 뭔가요?

한국경찰들이 미군 씨아이씨(CIC)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게 미행씨아이씨야.

- 미행씨아이씨에게 걸렸단 말이에요?

나오다가 인제에서 걸렸죠. 함강리에서. 거기 미행씨아이씨 본부가 있었어요. 씨아이씨 책임자가 누군고 하니 인제경찰서 수사과에 있던 안 뭐신데, 안 씨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덩치가 좋아. 밥을 앓아서 세 그릇씩 먹고. 그 사람이 책임자인데 아니라는 기야. 나이도 있고 한데 인민군 있다가 사복하고 나오는 거 아냐. 머리를 흘랑 깎았으니까 일단. 거제도포로수용소에 보낸 거 아냐. 거기에 가서 3년 딱 있었어요. 내 댄에는 극동사령부에 맥아더 장군 있을 때에 거기에 탄원서를 띄우려다가 말았는데 억울한 점을, 억울한 거 아니요 나는. 인민군도 아닌데 총도 못 맨 놈이 인민군포로수용소가 말이 돼요. 인민군포로수용소에 가니까 60-70 노인네가 무슨 인민군이요? 그런 사람들이 포로수용소에 들어왔더라고. 그게 한 둘이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 양놈들이 7.27정전협정이 성사되기까지는 재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거든. 그때 아군과 미군 포로를 몇 대 일 그랬거든. 그래서 막 잡아들인 기야. 그래서 양놈들이 그 포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막 잡아들인 기야. 나는 할 수 없이 잣다고 하지만 60-70대 노인들이 뭐이 포로에 해당되냐 이기야. 여자들도 탁치는 대로 잡아서 많았대구. 나는 다행히도 포로수용소 94여단, 몇 십개 여단이 있는데 1개 여단이 대개 7천명 8천명 됐어요. 우리 94에는 포로 숫자가 한 6

천 명 있었을 기야. 다행히도 여단장이 빨갱이가 아니야. 거제도에서 좌우익 투쟁사를 보면 말할 것도 없고. 인민군 작전참모를 하던 이상조? 이상조일 기야. 인민군으로 전부 귀환시킨 게 전부 그 놈이 작전한 거 아냐. 전부 인민군을 만들어서 전부 복송시키려고. 심지어는 빨갱이수용소에서 우익청년들을 죽여서 똥통에 집어넣고 그 똥을 해변가에 전부 모아놔어요. 마산에서 똥배가 와서 실어가. 마산에서 채소를 한다고 하더구만. 딴 수용소에서는 폭동이 나고 잡아 죽이고 했지만 우리 수용소에서는 아주 신사적으로 북으로 갈 사람 남으로 갈 사람. 남으로 남을 사람은 이쪽, 북으로 들어갈 사람은 정문을 빠져서 차 타고 나가고. 하나 희생자 없이 맞는 사람 없이 깨끗이 헤어졌어. 재수가 있으려니까.

-북한은 해방이 되고 용대리를 어떻게 통치했나요?

공산당 조직할 적에 공산당과 동시에 신민당도 내세웠다고. 공산당에 가입한 사람들은 무산계급, 신민당에 가입한 사람들은 유산계급에 지식층, 내가 아는 것은 그렇게 알아요. 신민당은 소위 말뿐이지 허수아비나 한가지야. 안 그래요? 공산당 치하에서는 공산당이 첫째지. 그 외에는 다른 당이 존재할 수 없고. 원산에 강원도 도청이 있었는데, 그 도청이 일정 때는 춘천에 있었고. 춘천이기 때문에, 춘천은 삼팔 이남이기 때문에 도청을 임시로 철원에 앉혔죠. 철원은 삼팔 이북이니까. 원산이 원래 함경남도예요.

-강원도가 아니군요?

삼팔선이 그어지면서 삼팔선이 적으니까 원산을 편입시킨 거지. 그래서 5개 군이지. 통천군, 회양군, 평강군, 금화군, 이천군. 여기 사람들은 “강원도에 이천군이 어디 있느냐?” 이기야. 아주 답답해. 함경남도 원산을 강원도로 편입시켜서 원산 위가 운천군이지. 운천군까지 강원도로 들어갔을 거야. 원산으로 도청이 옮겨졌는데 그때는 공산당 조직할 때는 말한 그대로고, 신민당과 공산당. 조만식 선생이 평양에 계실 때는 민주당이 있었는데 조만식 선생이 당수라고 내가 알아요. 개들이, 말뿐이지 허수아비나 한가지예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공산당 제1당에서. 여기 인제군에서도 개들이 통치할 때에는 어떡

준이라고 고기 어 씨인데 한계리 구 원통에 살았는데 지금의 예술인촌을 구 원통이라고 해요. 어덕준이가 인제군수로 있고, 재들은 군수라고 안 하고 군 인민위원장이라고 해요. 군인민위원장이 군수 격인데 군수라고 해서 자기 주관대로 못하고 군당위원장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지. 모든 행정을. 개들이 토 지개혁을 46년부터 시작해서 47년에 끝났어요.

- 토지개혁을 어떻게 했나요?

지주들 토지를 몰수해 가지고. 몇 천 평 되는 사람의 땅을 몰수해서 일반 주민 들에게 몇 평씩 나눠줬지요.

- 필요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땅을 뺏어서 나눠준 건가요?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아마 6천 평 이상은 몰수를 했지. 일차 축출에는 토지가 제일 많은 사람을 축출했는데, 그때는 공산당이 그 지주들의 집과 땅을 몽땅 압수를 하고 탄 데로 가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은 배웅도 해주고, 잘 가라고. 이차 몰수당한 분들은, 47년도까지 이차 몰수당한 분들은, 남교 윗동네를 서낭골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십이선녀탕 입구 동네예요. 거기 이문선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부산 사람인데 일정 때 일군 헌병통역관으로 들어왔다가 거기 눌러 앉은 분이예요. 그분 축출할 적에는 아주 공산당원들이 들어가서 강제로 몽둥이로 때려서 축출했어요. 아주 무자비하게. 그 때 우리 아버님이 그때 영동을 가셨다가는 미시령으로 안 넘어오고 무남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령을 셋령이라고 해요. 진부령과 미시령 사이에 셋령이 있어요. 셋령을 넘으면 마장터가 나와요. 마장터에서 용대리로 쪽 빠지거든요. 그 셋령으로 아버님이 넘어오시다가 셋령을 넘어가는 이문선 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문선 씨가 꼴을 맞아가지고 피가 났는지 봉대로 싸맷더라고요. 이문선 씨 부인이 김춘엽이라는 분인데 일차 때 축출당한 이장하던 분의 누님인데 이 부인이 우리 아버님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세상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차 축출에는 무자비하게 구타해서 내보내고. 일차에는 신사적으로 내보냈는데. 일차 몰수 이차 몰수 전부 분배가 됐잖아요. 농민 가구당 한 오백 평 육백 평 이렇게 분배가 돌아갔거든요. 받은 몰라

요. 자기 붙이는 데로 돌아갔는데.

특히나 그 48년도부터... 그냥 청년 남녀를 훈련을 시키는데...

- 어떤 훈련을 시키나요?

군사훈련. 원산 위에 운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운천에서 북쪽으로 가서는, 운천역에서 청진까지 가는 철도가 있고 한쪽으로는 신안리로 가는데, 신안리에 북한야영훈련소라고 있어요. 야영훈련소에는 교관이 전부 팔로군이에요. 중국군이지만 조선인도 있어요. 팔로군에는 원래가 중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어느 사람이나 지원을 하면 팔로군이 되는 거예요. 소련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훈련받은 교관들이 나와서, 야영훈련소 교관들인데 거기 딱 한 달 교육이야. 밤에는 사상교육 받고 낮에는 군사교육 받고. 여기서 한 달 교육 받은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교관이 되는 거예요. 인제군이면 인제군에, 북면이면 북면, 구 원통이라면, 거기서 간 사람도 있고 용대리에서 간 사람도 있고, 각 지역에서 다 왔어요.

- 할아버지도 다녀오셨어요?

나도 받았어요. 군사교육과 사상교육을 받았어요. 재들은 불세비키 공산당 당사가 책 두께가 이만해요(손으로). 그걸 내놓고, 막스가 지하에 들어가 숨어 연구하던 거. 그 교육 받는 거예요. 소련공산당 창건 교육을 받는 거예요.

- 교육 받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분위기 머 개들 일색이지요.

- 뽐혀 가신 거예요?

차출돼 갔지요.

- 지역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았겠네요?

그건 몰라요.

- 이 지역에서는 몇 분이나 받았나요?

내가 2차로 들어갔어요. 각 군에서 다 왔거든. 금화군, 화천군, 철원군, 회양군 다 왔어요.

- 강원도는 거기에서 만나보죠?



강원도...뿐만 아니죠 뭐. 다른 지역도 다 받겠죠 뭐.

- 인제에서는 몇 분이나 갔나요?

인제에서는 나까지 두 사람만 알아요. 아니 세 사람이로구나. 정남운이라고 그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이 3차로 갔구나.

- 3차까지 있었나요?

아니 계속 있었는데 나는 갔다 온 것만 알아요. 몇 차까지 있는지는 몰라요.

- 공산당 교육 받을 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거 없으세요?

개들이 나쁜 얘기는 안 하거든. 공산당 탄생이 막스 레닌이 고생해서 혁명으로 된 거 소련이 아니요? 그다음에 스탈린이 통치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스탈린을 재들이 민족의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육이오 때는 김일성을 조선민족의 태양이라고 추켜세웠다더구만. 그때는 스탈린을 우리 민족의 태양이라고 했어요. 그 스탈린 찬양가가 아주 기가 막혀요. 전부 그런 교육이에요.

- 노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다 알았는데. 그거 알아 뭐해요?

- 재밌잖아요?

아 우리민족 태양 스탈린 대원수. 이진 알아요.

- 교육 받고 내려오셔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남녀 청장년들을 모아놓고 집단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고, 훈련소에서. 집단훈련 하는 데.

- 인제에 훈련소가 있었겠네요?

훈련소는 축출당해 나간 그 집, 아까 이문선 씨 집이 우물 정자 집인데 집이 컸었어요. 거기서 이 집을 본부로 정하고 그 주변에서 훈련을 했죠. 훈련을 하는데 거기서도 인민군 현역 군인들이 하나씩 배치돼 있어요. 현역 군인들이. 인제군 경찰서장이, 그때는 내무서장이라고 했거든. 내무서장이 대대장이거든. 행정을 경찰이 관할해.

- 인민군은 없었나요?

인민군은 삼팔선을 지켰죠. 인민군이 아니라 38경비대라고 했어. 38경비대는 파란 경장에 파란 줄이고, 인민군은 벌건 줄에 벌건 경장이고. 38경비대 총책임이 최현이라고 있어요. 최현이가 그때 관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아주 관무식하다는구만. 최현이도 팔로군 출신이기 때문에 전장 마당에서도 선봉대로 나서서, 육이오 때는 권총을 차고 다니다가 전투가 있자 권총을 연락병에게 맡기고 장총을 뺏아서 쏘다는 사람이 아니오. 그렇게 무지무지한 사람이예요. 그때 인제에 가서 내가 하룻밤 여관에서 자는데 우리 옆에 방에 최현이가 하룻밤 자게 됐어요. 밤새도록 소변도 보려 못나가고, 보초 때문에. 밤새도록 최현이 보초 서느라고 방에. 인민군 현역들이 와 있는데 부대대장 직급을 줘서 훈련 독려를 하는 기야. 부대대장은 거기서 교육 받은 사람들. 거기 조국보위후원회라고 하는데(웃음) 조국보위후원회라고 들어봤어요? 그 범위가 커요.

- 회원들이 누군데요?

청장년이죠. 조국보위후원회는 명칭이고 실제 이 명칭 하에 이 단체에서 지시를 내려요.

- 어떤 활동을 하나요?

훈련을 주관하고.

- 회장은 누군가요?

회장은 인제경찰서장이예요. 인제경찰서장이 대대장이고 그 밑에 부대대장들이 전부 나가서 독려를 하는 거예요. 훈련 받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자기 쌀을 가져가서 해 먹어야 해요. 근데 나는 독려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훈련을 독려해야 하거든. 한 번도 안 나갔어. 조금도 거짓말이 아니예요.

- 왜 안 나가셨어요? 교관훈련까지 받으셨는데.

난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 내가 면 위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소. 내가 면 위원은 재들 헌법상에 군대를 안 간다고 했잖소. 그때는 노동당 회의라는 게 저녁마

다 회의예요. 회의를 안 하면 공산당 사상을 주입시키느라고 교육도 하고. 청년들은 청년동맹이라는 게 있거든. 또 여자들은 여성동맹이라고 있어요. 청년동맹은 청년동맹끼리 하고 여자들은 여자들이끼리 회의를 해요.

- 밤마다?

밤마다. 회의가 없으면 강습이나 교육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순분자 간첩 색출한다고 동네마다 경비초소를 세워놓는데 원통이라 하면은 우선 저거 강 건너가는 길, 또 셋길로 올라오는 구길, 면사무소 길, 말거리 그 밑에 넘어가는 길 등 길 난 데는 다 보초를 세워서 경비를 서야 해요. 청년들이.

- 총들고요?

아니, 그냥.

그리고 용대에서 원통까지 원통에서 인제까지 보초를 쏘는데, 용대리 남교에서 원통까지 오자면 정자문이 있는데 거기 한 군데 있지, 그리고 단일로 생수 공장 위로 한 1킬로미터 올라가서 큰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 쉬고, 한계리 구 원통 거기 와서 쉬고, 그 다음에 관벌이라는 쉬고, 그 다음에 거두리 위 동네, 그 다음에 어두원리, 그 다음에 원통인데. 요만한 종이에 써서 용대 보초가 정자문에 전달하고, 정자문 보초가 생수공장에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문을 전달하는 거예요(웃음). 그때 젊은 사람들이 다 군대 가고 없잖아요. 농촌에. 그러니까 구만리 같은 동네는 공산당이 판을 치고 들어와도 거기는 잘 휩쓸리지 않는 동네예요.

- 왜요?

공산당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뭐.

- 그래도 부자들은 땅을 뺏겼을 거 아니에요?

땅 많은 부자라야 동네마다 있는 거 아니고 한 개 리에 두서너 집 되죠. 잘 돼야 두서너 집되죠. 그래서 나는 개들한테 한 번 혼난 적이 있어요. 개들은 동네를 세포라고 해요. 세포회의 있지, 청년동맹회의 있지, 여성동맹회의 있지. 그 회의 때마다 내가 회의록을 다 작성해 줘야 해요. 회의록을 내가 전부 작성해야 돼요. 토론을 하면 토론 요지가 뭐가 제목을 뽑아서 그 사람 말한 걸 써

넣어야 돼. 그걸 하다보니까 나갈 새가 없더라고. 나도 농사를 짓는데, 여자들 이 회의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못해서 날더러 해달라는데 내가 바쁘다고, 김매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김을 매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한 여름에 이 여자들을 밭에 엮어트려 놓고 나는 회의록을 작성했다니까(웃음). 그래서 못 나갔는데, 현역 인민군이 동네 사랑방에 날 부르더니만, 야 그때 나는 세상... 4년 5년 동안을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고 그 인민군이 나에게, 공산당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기야. 한 번도 안 나갔거든. 그때 옥을 먹은 생각을 하면... 아주 뭉뚱 사상적으로 끼는데... 훈련은 그렇게 했어요. 삼팔선에서 사건이 났다고 해서. 하룻밤에는 밤에 비상소집을 해. 삼팔선 원대리에 사건이 났다고 가라는 기야. 지금 원대리 막국수집 그 동네야. 그 민가집이 있었는데 아군과 인민군과 격전이 붙어서. 이건 육이오 사변 적 얘기에요. 민가집에 불이 났거든. 안 탄 집에는 들어가서 콩, 조 등 곡식을 한 명이 너 말 달 말 씹 지고 왔어요. 그 전에 내가 47년돈가 48년 돈가 강태무라는 대대장이 일개 대대를 끌고 월북한 적이 있었거든. 표무원은 춘천서.<sup>3)</sup> 표무원이 춘천에 있었던 모양이야. 춘천에서 양구로 북으로 들어갔지. 그런데 사전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던 모양이야. 내무성, 이쪽은 내무부지. 재들은 내무성이라고 해요. 내무성에서 악단이 내려왔지. 환영을 해주느라고.

- 어디에서요?

인제 남북리 초등학교 자리에서.

- 남초등학교 그 자리에서 환영을 했어요? 대대가 들어왔나요?

일개대대가 들어왔지. 표무원은 육이오 때 부대를 끌고 춘천으로 나갔대요. 표무원은 육이오 때 인민군을 끌고 춘천으로 내려갔는데 춘천시민들이 환영해 주었다잖아. 환영할 때는 하얀 쌀밥을 해주고, 사전에 다 연락이 돼 있었대요.

- 환영하는 거 직접 보셨나요?

3) 강 소령과 표 소령이 월북한 사건을 조병수 씨도 증언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두 사람이 월북한 사건은 그 당시 이 지역에 널리 퍼졌음을 알 수 있고, 상당한 얘깃거리였던 것 같다.

말로 들었어요. 강태무가 들어올 때 중대장 아래는 몰랐고 그 이상은 알았대  
요. 어떠한 물체가 나타나도 먼저 쏘지 말라고 명령이 있었대. 텐 앞에 척후병  
이 있잖아요. 강태무가 들어올 때도 안개가 많이 끼었대요. 고사리를 딱 잡아  
드는데 양쪽에 인민군이 잠복하고 있는데 척후를 해보니까 인민군이 고지  
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쏘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양쪽에서 집중사격을  
해서 엄청나게 죽었대요. 가서 봤더니 아주 돌무덤이 줄줄이 있어. 몇 명이나  
죽었는지는 몰라요. 많이 죽었어.

- 일제 때 친일한 사람들 처단은 어떻게 했나요?

처단은 이문한 씨 축출한 거 그 이상은 몰라요. 따로 처단한 건 없어요.

- 친일한 사람들도 있겠네요?

친일한 기야 이장한 집이나 일본군 헌병 통역관도 친일이 아니요? 그래도 우  
리 인데선 따로 처단한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람을 때려서 내쫓았지.

- 땅을 뺏어서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좋아했겠네요?

좋아했지요. 좋아하나마나죠. 첫 해는, 공출이라고 하지 않고 현물세라고 해  
요. 현물세를 국가에 바치는데, 세금 매기는 방식을 어떻게 하나면, 논이 천  
평이라면 거기에서 잘 되고 못 된 중간지점을 택해요. 한 평을 딱 끊어서 몇  
되가 나왔나를 보고 전체를 산출해서 내라고 하지요. 첫 해에는 현물세가 얼  
마 안 돼요. 직접 보지는 못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삼팔선 격전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평안남도 용천벌에 이주를 시켰대요. 여기가 해변간데 벌이 철원벌  
이나 전라도 김제평야 같은 정돈가 봐요. 그런데 전부 갈대숲 잡초지래요. 개  
간이 안 된 지역이에요. 조수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지역이라는구만. 여  
기를 일정 때 일본놈들이 개밭을 하느라고. 평토작업을 다 해놨는데 물이 있  
어야지. 그래서 압록강 수풍댐을 끌어왔다는구만. 수풍댐은, 지금은 아무것  
도 아니지만 일제 때는 동양에서 제일 큰 댐이라고 했어요. 일본사람들이 만  
들어서 거기서 나온 전기로 만주 일대를 전부 그 전기로 켜대요. 일정 때만 해  
도 신의주에서 안동을 건너가는데 안동 밑에 압록강의 폭이 넓어요. 몇 십리  
되는데. 거기에 위화도가 있어요. 이성계가 회군한 곳이지요. 압록강 두만강 지

- 쪽까지 다 한국영토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 거기가 보셨어요?  
한 번 돈 적 있어요.
- 언제 가 보셨어요?  
일정 때지. 아무튼 용천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처음 2-3년 동안은 잘 안 되고 3년부터는 벼가 돼서 엄청난 소출이 나서 현물세를 내고서도 집집이 미싱 한 대씩 들여놓고. 웬만한 사람은 라디오도 들여놓고 그랬다더구만. 그때만 해도 여기 주민들 생활이 한 개 리에 한 오륙십 호 산다면 한 집에 미싱이 있을까 말까 해요. 아주 귀하고 비싼 물건이거든. 근데 그 시절에 다 구입을 했다는 기야.
- 공산치하에서는 현물세만 냈나요?  
현물세죠.
- 현물세가 적기 때문에 살만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타두'도 있어요. 기타두가 뭔지 나도 모르는데 이 이름으로 곡식을 가져가요.
- 비싸지 않았나요?  
비쌌어요.
- 현물세는 비싸지는 않았는데 기타두는 비쌌나요?  
현물세는 첫해에는 비싸지 않았는데 점점 비싸졌지요.
- 세금이 비싸면 주민들이 원성이 있지 않나요?  
재들은 원성을 할 수 없어요.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사는 곳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감시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감시하고, 신랑이 자기 애인을 감시하고 애인이 신랑을 감시하고 그런 시절이었어.
- 말 잘 못하면 신고하나요?  
예.
- 자아비판 시키고 재판도 하나요?  
그럼요.

- 정말 중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감옥에 가야죠.

- 할아버님도 고발당해 본 적 있으세요?

고발은 안 당해 봤어요. 내가 출당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공산당 치하에서 출당은 그쪽 세계에서는 제일 하빠리 인간 외의 취급을 당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농사를 하면 전답을 다 몰수당해요.

- 출당되면은요?

네. 농민증을 회수해 가니까. 공민증 외에 농민증이 있어요.

- 농민을 대접하는 차원에서 농민증을 주나요?

그렇죠. 전답을 몰수당하면 농사를 못 짓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 지역에서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나를 최종결정을 인제군당에서 출당을 결정했는데 그때 어덕준이 인제군수인데 김학만 인제군당위원장이 못 오고. 어덕준이가 대리로 전당대회를 하러 왔어. 어두원리 안에 가면 지금 125공병대대 있는데 그 앞에 민가가 다 그때 폭격을 맞아서 집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서 전당대회를 주관하는데 어덕준이가 나를 아주 딱해 하더라고. 왜냐하면 어덕준이가 우리 아버님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 어덕준의 장인이 장용진 씨라고 일정 때 재네에서 이장을 했다고. 내가 그 덕을 봤다고 했잖아? 그 장용진 씨의 만사위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잘 알아. 군수 되기 전에 우리 집에 드나들면서 우리 아버님에게 “선생님, 선생님” 했거든. 잘 아니까 어덕준이 입장이 곤란해서... 당중 다 회수하고 출당이 결정이 됐지요. 군당에서 결정이 났잖아? 도당에서도 결정이 나와 돼 또. 나를 원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더라고. 육이오 뎀데 걸어서 가라고 하더라고. 쌀 몇 되 걸머지고(웃음). 머머 회양, 피란을 인제군에서는 우리 하나만 갔지 인제군 사람들은 다 이포리에 집결돼서, 배급도 쫓았어. 소도 잡아 먹고. 난 그런 혜택 하나도 못받았어요. 회양에 가 있어서.

## 인제 사람들이 겪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초판 인쇄 2012년 12월 20일

초판 발행 2012년 12월 31일

엮은이 이학주 · 정무교

기획인 백창현

펴낸이 남덕우

펴낸 곳 인제문화원 (033)461-6678 / 팩스 (033)461-0220

편집 · 인쇄 마루금기획 (031)-954-0711

비매품

※ 이 책은 군비 보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인제문화원